

입당구법순례행기를 통해 본 신라인군상

입당구법순례행기를 통해 본 신라인군상

발행처 ·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발행인 · 김재철

지은이 · 김문경

발행일 · 2008년 12월 31일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한국무역센터 1803호

공급처 · 청년정신

ISBN · 978-89-93648-07-2

비매품

입당구범순례행기를 통해 본 신라인군상

김문경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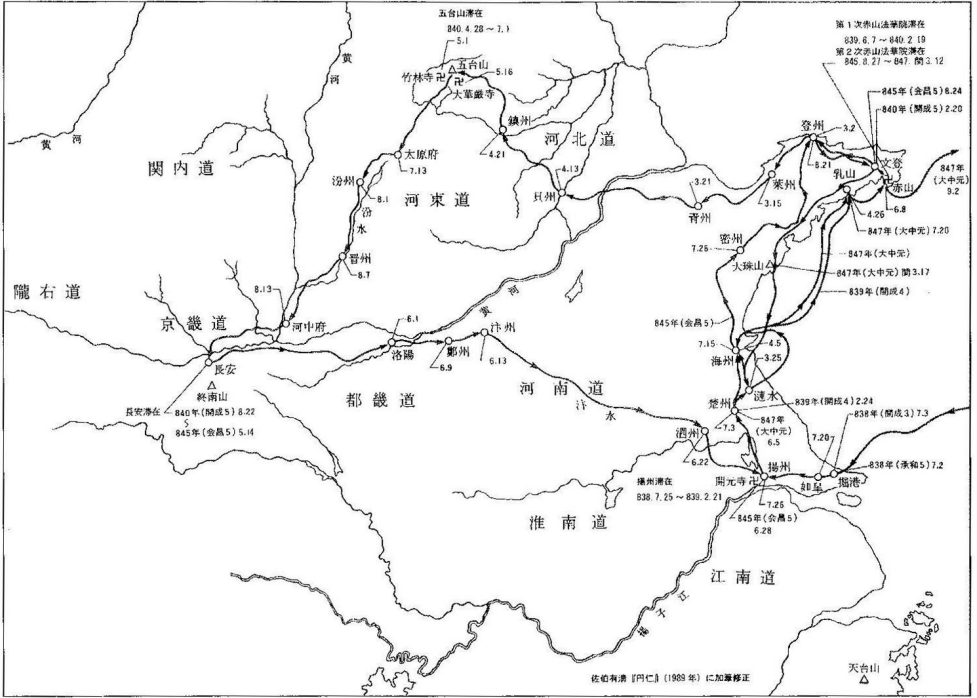
목차

1. 머리말 ... 7
2. 신라인과 세계무역 ... 11
 - 1) 장강하류와 운하변의 무역상 ... 13
 - 2) 연해안의 신라인 ... 18
 - 3) 산동 연해안의 무역과 사원 ... 23
 - 4) 신라인과 귀국길의 엔닌 ... 31
3. 신라인의 생업 ... 39
 - 1) 중앙·지방관인 ... 41
 - 2) 선원과 조선 ... 52
 - 3) 농업·제염·제탄업(製炭業) ... 67
4. 무역상의 신앙 ... 73
 - 1) 교역선과 불교 ... 75
 - 2) 무역선과 관세음보살 신앙 ... 83

- 5. 신라인의 불교운동 ... 97
 - 1) 불교운동과 의식 ... 100
 - 2) 신앙결사 ... 121

- 6. 신라원과 그 역할 ... 129
 - 1) 청주 용흥사의 신라원 ... 131
 - 2) 장산현(長山縣) 예천사(醴泉寺) ... 136

- 7. 맺는말 - 세계사 속의 신라 무역상 ... 139



엔년의 입당순례지도

1. 머리말

일본의 청익승(淸益僧) 엔닌(794~864)은 서기 838년 6월부터 847년 12월까지 9년 반 동안이나 당의 동해안 일대와 대운하변, 그리고 광대한 제국의 내륙 등지를 여행하면서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以下 행기)라고 알려진 이 책은 시대적으로는 9세기 중엽에, 지리적으로는 중국에 한해 있지만 시간적·공간적·지역적인 것을 초월한 역사적 문헌임에 틀림없을 것 같다.

『행기』는 당을 여행하였던 일본승의 기록이지만 전권을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의 절반은 당나라 사람이나 일본사람이 아닌 신라인이 차지한다. 이들은 특히 회수 하류와 대운하 일대, 산동반도 남쪽 연해안 일원에 집중되어 있었다. 전자는 초주(楚州)가 그 중심지였고 후자는 적산촌(赤山村)이었다. 운하의 요충 초주와 그 인근의 연수현(蓮水縣)에는 신라방(新羅坊)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적산촌 주변에는 많은 신라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우리들이 이 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동아시아 세계를 보는 한, 세계무역사의 새로운 단계인 동서해상무역의 초기단계에 신라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해상(海商)들이 지중해나 중동해안에서 행하였던 역할을 동아시아 해상에서 수행해 갔던 것이다. 『행기』에 등장하는 신라선 기착 항포만 20여 개에 달한다. 양주를 비롯하여 소주·명주·초주·연수현·동해현·숙성촌(宿城村)·전만포(田灣浦)·대주산 교마포(駁馬浦)·낭야대(瑯琊台)·소산포·유산포·장회포(長淮浦)·모평현 노산·승가장·도촌(陶村)·등주 봉래현·성산포·상도(桑嶋) 등이다. 여

기에는 물론 신라인이 거류하였고 이들은 신라해상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전초기지였다.

필자는 『행기』를 통하여 신라사에서 잃어버린 신라인 해상활동의 제상(諸像)과 여기에 등장하는 못 군상의 생활상, 특히 일본인과 재당신라인 간에 이루어진 공적·사적인 인간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다.

2. 신라인과 세계무역

1) 장강 하류와 운하변의 무역상

일본의 청익승(請益僧) 엔닌은 두 번이나 도해(渡海)에 실패한 제17차 견당사선(遣唐使船)에 편승하여 승화(承和) 5년(838) 6월 13일에야 디자인후(大宰府)를 출발하였다. 그해 7월 2일에 당 양주(揚州) 해릉현(海陵縣) 백조진(白潮鎮) 상전향(桑田鄉) 동량풍촌[東梁豊村, 강소성(江蘇省) 여동현(如東縣) 승리가(勝利街)] 인근에 도착하였다.¹⁾ 거의 20일이 소요된 셈이며,²⁾ 836년 7월 첫 번째 입당(入唐)을 시도한 지 꼭 2년 만의 일이었다.

엔닌은 양주(揚州) 개원사(開元寺)에 유석(留錫)하는 동안 신라인 무역상 왕정(王靖)의 방문을 받았다.³⁾ 왕정(王靖)은 819년 당나라 무역상 정각제(張覺濟) 등과 일본을 왕래한 국제무역상인이다. 엔닌은 회창(會昌) 6년(846) 일본정부(日本政府)가 파견한 ‘엔닌수색대(円仁搜索隊)’의 한 사람인 제자승(弟子僧) 성해(性海)의 서신 역시도 양주(揚州)의 신라무역상인 왕종(王宗)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었다.⁴⁾ 이러한 사실들은 양주(揚州)를 거점으로 한 신라인 무역상에 관한 사소한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당시 당나라의 대무역항이던 양주에 신라해상의 거류

1) 徐琛(鈴木靖民譯), 『圓仁の入唐求法經路考』, 『日本古代の國家と祭禮』, 雄山閣, 1996.

2) 『入唐求法巡禮行記』卷1 開成 3년(838) 7月 2日, 午時到江口 未時到揚州海陵縣白潮鎮桑田鄉東梁豊村 日本國承和五年七月二日 即大唐開成三年七月二日.

3) 上同 卷1 開成 4년(839) 正月 8日: 上同 개성 4년(839) 正月八日. 新羅人王靖來相看 是本國弘仁十年 流著出州國之唐人張覺濟等同船之人也 問漂流之由 申云爲交易諸物 離此過海 忽遇惡風 南流三月流著出州國

4) 上同 卷4 會昌 6년(846) 4月 27日, 新羅人王宗 從揚州將日本國性海法師書來中具說來由 五月一日王宗却歸揚州去

지가 존재했을 것이라 추측할 만한 사료들이다. 북송(北宋) 원풍(元豐) 7년(1084) 고려관(高麗館)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러한 추정은 더욱 믿어볼 만하다.⁵⁾

엔닌은 양주에서 천태산(天台山) 순례(巡禮)를 목적으로 당(唐) 정부에 통행증인 ‘공험(公驗)’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발급이 어렵게 되자 개성(開成) 4년(839) 2월 21일 운하를 따라 초주[楚州, 강소성(江蘇省) 회안(淮安)]를 향해 출발하였다. 그곳에는 함께 귀국할 견당사 일행이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엔닌 일행의 체류를 주선해 오던 신라인 역어(譯語) 김정남(金正南)⁶⁾ 역시 초주(楚州)에 머물면서 파선된 2척의 일본선 대신 9척의 신라선을 구입하였고 바닷길에 익숙한 신라선원 60여 명을 고용하여 그들의 귀국을 준비하였다.⁷⁾ 승화견당선(承和遣唐船)은 처음부터 재당신라인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출발한 듯하다. 3척(隻)의 선박에는 각각 신라인 통역관(通譯官)이 타고 있었다. 엔닌은 지쿠젠 태수[筑前太守, 오노수에 쓰구(小野末嗣)]가 장보고(張保臯)에게 보낸 소개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일본은 당나라에서의 장보고(張保臯)와 재당신라의 역할과 활동상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 하겠다.

5) 『江都縣志』卷16.

6) 日本遣唐使船에는 대체로 신라인 통역관이 동승한다. 承和遣唐使船에도 제1박 金正南, 제2박 朴正長, 제4박 道玄이 승선하였다. 이들은 당나라에서의 통역뿐만 아니라 견당사 일행의 온갖 편의 즉, 선박의 구매·수리, 관리와의 교섭, 재당신라인과의 연계, 학문승들의 유석·수학·순례·귀국 등 여러 가지의 일들을 도왔다.

7) 『入唐求法巡禮行記』卷1 開成 4년(839) 3月 17日, 其九隻船 分配官人 各令船頭 押領 押領本國水手之外 更雇新羅人諳海路者六十餘人 每船或七 或六或五人 亦令新羅譯語正南 商(量)可留之方便 未定得否.

초주(楚州)는 회하하류(淮河下流)에 위치하며 대운하와 회수(淮水)를 이어주는 조운은 물론 경제적·전략적 요충지였다. 또한 회수(淮水)·사수(泗水)·변하(汴河)·채수(蔡水)·영수(潁水)·와하(渦河) 등 수많은 하천이 직·간접으로 교회하여 이곳을 거쳐 흐르기 때문에 운송의 중심지였다. 남으로는 양주(揚州)를 지나 장강으로 나아가고 운하를 거쳐 소주(蘇州)·항주(杭州)·명주[明州, 영파(寧波)] 등 무역항으로 통하였다. 북으로는 해주[海州, 연운항]로 나아가 산둥반도로 직결되었다. 서쪽으로는 와하(渦河)·변하(汴河)를 거슬러 올라가서 중원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이렇듯 초주는 강회지역의 경제적 요지이며 운송의 중심지였기에 이곳에 거주하던 신라인들의 생업도 자연이 도시의 성격에 부합될 수밖에 없다. 김정남(金正南)이 신라선과 바닷길에 익숙한 신라선원을 고용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연유였다.

초주의 신라인 취락은 운하변을 따라 집중되어 있었고 그 지역을 ‘신라방’이라 하였다. 총관(總管)이 행정(行政)을 관장하였고 그 아래에 역어(譯語)와 전지관(專知官) 등의 관리가 있었다. 그리고 이곳 신라인들은 인보제도(隣保制度)에 바탕을 둔 단보조직(團保組織)으로 단두(團頭) 아래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초주 역어 유신언(劉慎言)을 비롯한 신라방(新羅坊) 사람들은 건당사의 귀국선박의 알선은 물론 엔닌의 유당(留唐)·순례·귀국과, 유학승의 성지순례승·상인들의 자국왕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도맡아 수행하였다. 또한 당나라 각지에

산재했던 신라인들과의 엔닌 ‘도움의 부탁’,⁸⁾ 서신의 상호교환,⁹⁾ 체재경비(滯留經費)의 전달,¹⁰⁾ 귀중품의 보관¹¹⁾ 등 이루어야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도왔다. 뿐만 아니라 천태유학승(天台留學僧) 엔재(円載)의 본국과의 연락, 그의 제자(弟子) 인호(仁好)·순창(順昌) 등의 일본왕래와¹²⁾ 그리고 종자승 인제(仁濟)의 입당도 초주 역어 유신언(劉慎言)이 주선하였다. 일본 정부가 청익(請益) 유학승에게 보내는 유당 경비도 그를 통해 전달되었다.¹³⁾ 839년 신라선박에 편승입당(便乘入唐)한 혜악

8) 上同 卷4 會昌 5년(845) 7월 8日, 八日發 劉譯語有書狀 付送登州已來路次鄉人所屬安存與作主人等事 上船入淮.

9) 上同 卷3, ① 會昌 2년(842) 5월 25日, 円載留學從僧仁濟來 便得載上人 會昌元年十二月八日書… 又楚州新羅譯語劉慎言 今年二月一日寄仁濟送書云 送朝貢使梢工水手 前年秋廻彼國 玄濟閣梨附書狀 并沙金廿四小兩 見在繫所 惠尊和尚附船到楚州 已巡五台山 令春擬返故鄉 慎言已排此人船訖… 擬李隣德四郎船 取明州歸國 依尊和尚 錢物衣服并弟子 悉在楚州…僧云濟 將金廿四小兩 兼有人人書狀等付於陶十二郎歸唐 此物見在劉慎言宅

② 會昌 3년(843) 正月 29日, 楚州新羅人客來 得楚州譯語劉慎言書一通 順昌阿闍梨書一通

③ 會昌 3년(843) 12월 得楚州譯語劉慎言書云 天台山留學円載閣梨稱 進表遺弟子僧兩人 令歸日本國 其弟子等 來到慎言處覓船 慎言 與排比一隻船 差人發送訖 今年九月發去者.

④ 會昌 6년(846) 4월 27日, 新羅人王宗 從揚州將日本國 性海法師書來 中具說來由

⑤ 6월 17日 得楚州總管 同十薛詮書信 付李國遇送來 便知前遣南州丁雄萬 續欲發來 兼知五月一日 歸南州人王宗 五月下旬得楚州便 入揚州訖 李國遇說矣

⑥ 6월 29日, 丁雄萬來到兼得楚州主人劉慎言書 先寄功德幀文書之中 胎歲金剛兩部大曼荼羅盛色者 緣淮南勅牒嚴切 劉慎言已焚訖 其余圖畫及文書等具得將來 丁雄萬不得向揚州而來.

10) 序9 -①참조

11) 上同 卷4, 會昌 6년(846) 2월5日, 爲取楚州劉慎言處寄着經論等 差丁雄萬就闊方金船 遣楚州 大便勾當 發送其船至三月十三日 發訖云云.

12) 序9 -③참조

13) 『續日本後記』卷14 承和 11年 7월 2日, 在唐天台請益僧門仁 留學僧円載等 久

(惠尊) 스님의 3차에 걸친 중국왕래와 오대·천태산의 성지순례도 모두 유신언(劉慎言)의 도움으로 이루어졌고 그의 제자승과 전물(餞物)·의복 등 행장(行裝)을 맡아두기도 했다.¹⁴⁾

『행기』에는 연수현(漣水縣)에도 신라방이 있었음을 전해주고 있다. 초주(楚州)에서 35Km 떨어진 연수현은 옛 회하 하류의 북안에 위치하고 동북으로 140여 리, 운하를 통하여 바다에 이른다. 수운과 해운의 요충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회창 5년(845) 7월 9일 엔닌은 법란(法難)을 피하여 귀국하던 길에 이곳 신라방을 방문하였다. 엔닌은 이곳에서 일찍이 장보고의 휘하에서 청해진병마사(淸海鎭兵馬使)였던 최훈제십이랑(崔暉第十二郎)을 만나 큰 도움을 받게 된다. 신라방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그곳 전지관(專知官)의 반대로 인근의 대선사(大善寺)에 유숙한다. 엔닌의 일기는 본인 신변에 관한 이야기로 한정되어 있지만 신라방 관리로 총관과 전지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초주 신라방의 크기와 비슷했으리라 짐작된다. 신라인 관리들의 이름은 알 길이 없다.

앞서 김정남(金正南)이 초주에서 고용했던 신라선원 60여 명 가운데의 몇 사람은 아마도 연수현에서 온 선원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유로는 일본조공사선박(日本朝貢使船舶)의 제1선에 승선(乘船)했던 신라선원과 사공들이 연수현에서 하선하여 하루 동안 귀선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¹⁵⁾ 운

遊絕域 應乏旅資 宜附門載 廉從僧仁好還次 賜各黃金二百小兩者.

14) 주9 -①참조,

15) 上同 卷1, 開成 4년(839) 3月 25日, 未時到徐州管内漣水縣南 於淮中停宿 風色不變 緣第一船新羅人水手及梢功下船未來 諸船爲此拘留 不得進發.

하연변에 거주하던 다른 신라인들처럼 이들의 대부분도 역시 운수업·무역·조선업·상업에 종사했으리라 믿어진다.

9세기부터 고조되어 가던 세계무역의 조류가 당시 중국무역의 중심지인 초주·연수현(漣水縣)·양주(揚州) 등지로 신라인을 모여들게 했던 것이라 해도 억측은 아닐 것이다. 항해술에 능숙했던 신라인들은 장보고 전성기(828~841)에는 신라·당·일본의 삼국무역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며 양주·항주(杭州)·명주(明州) 등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와의 교역도 활발히 전개해 갔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회하의 강줄기가 변하여 운하길이 막히고 바다가 메워져서 연수현은 바다로부터 더욱 멀어졌으므로 수운은 겨우 폐황하(廢黃河)와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2) 연해안의 신라인

신라인들은 반드시 운하변에만 모여 살았던 것은 아니다. 일본조공사 선박(日本朝貢使船舶)이 해주(海州) 동해현(東海縣) 숙성촌(宿城村) 연안에 이르자 엔닌 등 4명은 구법(求法)의 일념으로 미지의 해안에 상륙하였다. 조공사 역어 김정남(金正南)과 초주(楚州) 역어 유신언(劉愼言)이 짜 놓은 각본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이곳에서 엔닌 일행은 밀산(密州, 산둥성 제성현)으로부터 초주로 목탄을 수송해 가던 우호적인 신라상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들의 안내로 20여 리 떨어져 있는 신라

인마을 숙성촌에 안내되었다. 이곳에서 엔닌은 거짓으로 신라인이라 칭하고 2~3일의 기숙을 청하였다. 그러나 촌장 왕량(王良)이 일본사람임을 간파하고 ‘관객(官客)’을 유숙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다. 때마침 마을에 와 있던 ‘자순군중(子巡軍中, 순찰병)’ 장량(張亮)·장무(張茂) 등에 의하여 이들은 다시 조공사 선박(朝貢使船舶)으로 환송되었다. 엔닌은 이로써 선단 제2선에 승선하게 되었다.¹⁶⁾ 여기서 당 체류를 도와줄 또 한 사람의 신라역어(新羅譯語) 도현(道玄)을 만나게 된다.

숙성촌은 바닷가 마을이며, 이곳 신라인들은 주로 소금생산에 종사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곳에서 생산된 소금도 초주(楚州)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중에는 목탄 생산에도 관계하는 자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 이유는 촌락 주변이 산림지대라는 점과 또 이곳 주민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목탄업자와도 관계를 맺고 있었던 까닭이다. 당시 목탄은 밀주 대주산(大珠山) 일대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었다. 목탄은 당의 동부 연해지역, 즉 초주(楚州)·연수현(漣水縣)·양주(揚州)와 심지어 양경(兩京)의 시장에까지 거래되고 있었다.¹⁷⁾ 밀주의 연안 대주산 교마포(駁馬浦)에도 신라인

16) 上同 卷1 開成 4년(839) ① 4月 5日, 平明…請益僧先在楚州 與新羅譯語金正南共謀 到密州界 留住人家 朝貢船發 隱居山裏便向天台…船人等云 吾等從密州來 船裏在炭 向楚州去 本是新羅人…申時 到宿城村新羅人宅 暫憩息…爰村老王良書云 和尚到此處 自稱新羅人 見其言語非新羅語 亦非大唐語 見澠日本國朝貢使船 泊山東候風 恐和尚是官客 從本國船上逃來 是村不敢交官客住 請示以實 示報之莫作妄語 只今此村有州牒… ② 4月 8日 早朝…左右盡議 不可得留 官家嚴檢 不免一介 仍擬駕第二船歸本國.

촌락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선원이 며칠 전 풍파로 파괴된 선박의 수리를 이곳 교마포에서 하고자 했다. 선박수리를 도울 수 있는 기술자들과 선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곳은 대주산에서 생산되는 목탄의 집하장이기도 했다. 엔닌이 숙성촌 연안에서 만났던 선원들이나, 대중(大中) 원년(元年, 847) 이곳에서 초주까지 타고 간 배도 신라인 목탄수송업자 진충(陳忠)의 선박이었다.¹⁸⁾ 이러한 사실들은 대주산 교마포 일대의 신라인촌락의 성격을 옹변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신라인 촌락의 흔적은 교마포 북쪽, 청도(靑島)의 동북쪽 지금의 노산만 부근 팔수하(八水河)로 추정되는 승가점(柵家店), 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엔닌 일행은 일본무역에서 돌아 온 신라인 김자백(金子白)·함량휘(欽良暉)·김진(金珍) 등을 찾아 이곳에 정박하였다.¹⁹⁾ 이들은 847년 5월 11일 소주(蘇州) 송강오송(吳松) 하구를 출발하여 일본에 가려던 당·일 간의 무역업자들이다. 엔닌은 이들로부터 일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일본 왕래가 잦은 이들에게 귀국에 대해 도움을 청하고자 했던 것이다.

노산(嶗山)은 높은 바위산이기 때문에 해주의 동해산 밑주의

17) 朱江, 『統一新羅時代海外交通術要』, 孫寶基編, 『張保臯와 淸海鎮』, 해안, 1996.
 18) 『入唐求法巡禮行記』卷4 大中元년(847) 閏3月 17日, 朝到密州 諸城縣界 大珠山駁馬浦 遇新羅人陳忠船載炭欲往楚州 商量船脚價絹五疋定
 19) 上同 卷4, 大中元년(847) 6月 26日, 到嶗山南柵家庄 訪金珍船 其船已往登州赤山浦訖 見留書云 專在赤山相待 既如此 不免向乳山 趁逐彼船.
 金子白·欽良暉·金珍 등은 남으로는 소주·명주에서 북으로는 산동반도에 이르는 연해안 교역에만 종사했던 것은 아니다. 일본 왕래도 잦았다.

대주산 문등(文登)의 적산(赤山)과 함께 당시 황해의 들도 없는 좋은 표적물이었으며 기항지이기도 했다. 이곳에는 국제무역업자만이 아니라 명주·소주에서 산동반도에 이르는 연해안 무역업자들의 선박도 북비고 있었다. 엔닌 일행이 그곳에 거주하는 신라인 최씨의 선편으로 초주(楚州) 총관 유신언(劉愼言, 이때에는 총관)에게 서신을 발송하고 다시 신라인 왕가창(王可昌)의 선편으로 유산포(乳山浦)로 갔던 사실에서도 이는 뒷받침된다.²⁰⁾ 넓은 모래사장을 낀 포구에는 지금도 수많은 돛단배와 건조 중인 목선들이 눈에 띄어 시간의 흐름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청도로부터 산동반도 남쪽 연해안 일대에는 가장 많은 신라인 촌락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다. 소촌포(邵村浦), 도촌(陶村), 망해촌(望海村), 유산포(乳山浦) 등이 그 대표적인 마을이다. 엔닌 일행은 연안을 지나면서 많은 신라인들의 거룻배를 목도하고 이들로부터 그들 일행의 소식과 신라에서 일어났던 정변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들을 수 있었다.²¹⁾ 그리고 장보고의 도움으로 김우징(신무왕)이 등극하였다는 놀랄만한 정보도 들게 되었다.²²⁾ 귀국과 체류의 갈림길에서 엔닌이 체류를 결심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신라정변에서 장보고가 승리하였다는 소식이었다. 장보고는 엔닌의 중국왕래와 재당생활에

20) 上同 卷4, 大中元년(847) 6月 27日, 修書付崔家船 報楚州劉愼言訖 更雇船主王可昌船 望乳山去.

21) 上同 卷1 開成 4년(839) 4月 2日, 風變西南… 其大珠山 計當新羅正西 若到彼 進發災禍難量 加以彼新羅與張寶高 興亂相戰 得西風及乾坤風 定着賊境

22) 上同 卷2 開成 4년(839) 4月 20日, 早朝新羅人乘小船來 使問張寶高與新羅王子同心罰得新羅國 使令其王子作新羅國王子既了.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재당신라인들의 연해안 운송망과 그들만의 연락체계는 물론 본국과의 정보 교환의 실상에 대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엔닌의 증언을 통하여 많은 신라인들이 오고가며 크고 작은 소식을 전해 준 마을들 중에는 유산포가 가장 큰 규모였다고 추정된다. ‘태자통사사인(太子通事舍人) 김란중(金簡中)’이 ‘조문사겸책봉부사’가 되어 신라로 출발했던 곳이 유산포였음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²³⁾ 4월 26일 엔닌이 탄 조공사선박이 유산포에 정박했다. 30여 명의 신라인들이 말과 노새를 타고 선박을 조사할 압아(押衙)를 마중 나왔다. 물에도 많은 낭자(娘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유산포 신라인 마을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유산포 주변은 넓은 평야가 있었으므로 신라인들은 해운업·상업은 물론 농업에도 종사하고 있었을 것이다. 주민들이 말과 노새를 타고 있었다는 사실과 일본사절단 선박이 필요로 했던 식량을 인근 소촌(邵村)에서 구매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엔닌은 역어(譯語) 도현(道玄)을 통하여 촌장 왕훈(王訓)에게 당나라 체류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는 장보고가 세운 적산법화원의 관리자 3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왕훈(王訓)이 엔닌 일행을 선뜻 받아들였던 것은 그럴 만한 힘이 있었던 까닭이다.

23) 上同 卷4 大中元년(847) 閏3月 10日, 聞入新羅告哀兼弔祭冊立等副使 試太子通事舍人 賜緋魚袋 金簡中判官王朴等 到當州牟平縣南界乳山浦 上船過海

3) 산동 연해안의 무역과 사원

엔닌이 탄 제2 선박은 5월 4일 유산포(乳山浦)에서 출발하여 6월 7일에야 문등현(文登縣) 청령향(靑寧鄉) 적산촌[赤山村, 영성시(榮成市) 석도진(石島鎭)] 포구에 도착하였다. 무려 1개월 이상이 소요된 셈이다. 적산촌(赤山村)은 산동반도 연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한 재당신라인 사회의 심장부였다. 도촌(陶村)·소촌포(邵村浦)·장회포(長淮浦)·유산포(乳山浦)는 물론 적산촌(赤山村)·진장촌(眞莊村)·유촌(劉村)·망해촌(望海村)·막야도(莫耶島)·상도(桑島)·오루도(五壘島) 등의 주민으로 이루어진 신라인사회는 장보고 휘하의 구당신라소(勾當新羅所) 압아(押衙) 장영(張詠)의 관장 하에 있었던 것 같다. 적산촌의 가장 큰 기능이라면 신라와 당, 그리고 일본을 이어주는 안전하고도 중요한 항포(港浦)의 종착지이며 중원 연해안과 일본으로 나아가는 시발지였다는 점이다. 장보고의 ‘대당매물사’ 선박이 오고 가던 곳이며, 일본으로 ‘교관선(交關船)’이 출발하던 항포(港浦)이기도 했다. 청주병마사(靑州兵馬使) 오자진(吳子陳), 최부사(崔副使), 왕판관(王判官) 등이 신무왕(神武王)의 즉위(卽位)를 위문하는 사신이 되어 수행원 30여 명과 함께 법화원(法花院)을 방문(訪問)하고 신라로 출발했던 곳도 적산포(赤山浦)였다.²⁴⁾ 앞서 초주(楚州)에서 9척의 신라선(新羅船)을 구입하여

24) 上同 卷2 開成 4년(839) 6月 28日, 大唐天子 差入新羅慰問新卽位王之使 靑州兵馬使吳子陳崔副使王判官等 三十餘人登來 寺裏相看 夜頭張寶高遣大唐賣物使崔兵馬使來寺問慰

귀국하였던 일본의 조공사선박도 이곳에서 출항하였고 이후에 엔닌도 적산포에서 귀국길에 올랐다. 장보고의 무역선단을 이끌고 온 청해진의 병마사 최훈이 다시 이곳에서 양주로 유산포로 왕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무역선이나 연해안 운항선 등 많은 선박들이 적산포를 기점으로 남북을 왕래하였다. 장보고의 통제 하에 있던 국제무역항이던 셈이다.

이곳에는 820년대 초반에 장보고가 세운 적산법화원이 있었다. 엔닌은 다음해 2월 19일까지 이곳에 8개월 넘게 체류하면서 유당문제(留唐問題)와 순례준비를 하였다. 연간 5백 섬의 알곡식을 수확하는 장전(莊田)을 소유하였던 법화원은 장보고 휘하의 구당신라소의 압아인 장영과 임대사(林大使), 그리고 왕훈 등 3명에 의하여 경영되었다.²⁵⁾ 상주승 24명, 니(尼) 2명, 노파 3명 등 29명이 있었다. 한편, 5백 석을 수확하던 장전을 경영하였는데, 이는 가까운 척산(斥山)의 광대한 전지와 소촌포, 유산포 등 일부의 땅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화원이 타국에서 이같이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사원의 규모와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일부 기록만 보아도 법화원에는 법당과 장경각을 비롯하여 승방, 니방, 그리고 수 개의 객사, 식당, 창고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법당의 크기는 당시 거행된 겨울철 법화경강회에 모였던 스님과 신도들의 수로 추측이 가능하다.

25) 上同 권2 開成 4년(839) 6月 7日, …未申之際 到赤山東邊泊船 其赤山純是巖石高秀處 卽文登縣清寧鄉赤山村 山裏有寺 名赤山法花院 本張寶高初所建也 寺有莊田以充粥飯 其莊田一年得五百石米 … 當今新羅通事押衙張詠及林大使王訓等 專勾當.

법화원에서는 겨울과 여름에 불경강회가 있었다. 겨울철에는 『법화경(法花經)』을 강설하고 여름에는 『금강명경(金光明經)』,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을 강의하였다. 839년 11월 16일부터 다음해 1월 15일까지 열렸던 강회에는 매일 40명 안팎의 ‘남녀도속과 노소존비’가 강회에 관계있는 시주들과 함께 참례하였다. 강경 의식은 신라풍속에 의하여 신라어로 거행되었으며 마지막 2일 동안에는 200명의 신도들이 각각 참례하였다. 물론 이 강회에는 인근 신라승원(新羅僧院)의 스님과 신자들도 참가했다. 엔닌은 그해 7월 14일 남산(南山)의 진장촌(眞莊村) 천문원(天門院)을 방문하여 법공(法空)스님을 만났으며 11월 17일 다시 그를 찾아가 담소를 나누었다. 법공은 819년 경 일본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두 스님 간에는 또 다른 친근감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²⁶⁾ 엔닌은 개성(開成) 5년(840) 2월 14일 신라승(新羅僧) 상적(常寂)의 초청을 받아 유촌(劉村)에 있는 그의 사원으로 갔다. 상적은 법화원 법화경강회(法花經講會)에서의 논의자(論義者) 가운데의 한 사람이다. 논의자란 강경내용(講經內容)을 질문하고 그 회답을 들으면서 강경을 도왔던 스님이다. 청중이 경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상적(常寂)의 학문승(學問僧)으로서의 면모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엔닌은 이 조그마한 사원에서 백석미륵상(白石彌勒像)·문수보살(文殊菩薩)·보현보살(普賢菩薩)

26) 上同 권2 開成 4년(839), ① 7月 14日, 辰時辭山院…往眞莊村天門院 相看法空闍梨 此僧曾至本國 歸來二十年 夜宿其院 ② 11月 17日, 齋前由當院講起 遞且出寺 往南山法空闍梨院…

薩)·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대사자보살(大師子菩薩)·나후라(羅睺羅) 등 많은 존상과 불사리 철각(鐵閣)을 보았다.²⁷⁾ 무너진 불당 터에서 발굴된 이 존상들은 북주(北周)의 폐불(廢佛) 때(574~577) 매몰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²⁸⁾ 그날 밤 스님과 속인이 모여 예불하였고 희사(喜捨)하며 밤을 새웠다. 2월 15일은 열반일(涅槃日)이었으므로 절에서는 제를 올렸고 사람 수는 제한하지 않았다. 그곳에서 장영압아(張詠押衙)를 만나 공험발급(公驗發給)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또한 작년 6월 27일 교관선 2척을 이끌고 적산포(赤山浦)에 정박한 최훈병마사(崔暈兵馬司)의 소식도 들었다. 그는 지금 양주(揚州) 등지를 거쳐 유산포에 정박 중이라고 한다. 엔닌은 2월 19일 적산 법화원을 떠나기에 앞서 순례를 마치고 귀국할 것을 염두에 두고 최훈과 장보고에게 도움을 청하는 서신을 작성하여 법화원사람에게 맡겨두었다.²⁹⁾

엔닌은 법화원 강경법주 성림화상(聖琳和尚)의 설득으로 천태산 순례를 하려던 당초의 뜻을 변경하여 오대산 순례를 결심하였다. 성림은 20여 년간 오대산·장안(長安)을 순례하며 학덕을 닦았던 스님이다. 엔닌은 지원(志遠, 768~844?)이 오대

27) 上同 卷2 開成 5년(840) 2月 14日, 依新羅僧常寂請 往劉村 到彼便見白石弥勒像 像体上著土問事由 答云於此有新羅人王憲 夜夢有一僧來語云 我是文殊師利古佛堂墮壞 積年無人修壞 佛菩薩埋沒土中 見汝信志 故來告報… 掘地 深至胸上 尋得佛菩薩像 今見掘得弥勒佛像一體 文殊師利菩薩一體 普賢菩薩一軀 觀世音菩薩兩軀 大師子菩薩一體 羅睺羅一軀 佛骨鐵閣廿斤已上 諸人見之奇異不少.

28)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譯註』卷2 開成 5년(840) 2月 14日

29) 『入唐求法巡禮行記』卷2 開成 5년(840) 2月 17日. 爲與崔押衙 留狀一封 囑者院家 兼以書一封 同贈張大使.

산 대화엄사에 40여 년간 주석하며 마가지관(摩訶止觀) 등 지자대사(智者大師)의 가르침을 강의하고 마치 천태종 사찰인양 크게 번성시켰던 이야기를 상세히 들었다.³⁰⁾ 그리고 법화원의 양현(諒賢)으로부터는 오대산에 이르는 행로와 노정을 듣고 기록해두었다.

엔닌은 법화원에 유석(留錫)하는 동안 신라 불교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를 기록해 놓았다. 즉 ‘신라강경 의식(新羅講經儀式)’을 비롯하여 ‘신라일일강경 의식(新羅一日講經儀式)’ ‘신라송경 의식(新羅誦經儀式)’의 행법내용(行法內容)이 그것이다. 신라강경법회는 신라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소중한 자료이다. 행법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산법화원의 이 세 의식의 작법내용(作法內容)은 당의 그것을 짐작하게 하는 유일한 자료가 된다.

엔닌은 법화원에서 8개월여 함께 생활하면서 24명[니(尼)3, 노파² 제외]의 신라승과 사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혜각(惠覺)의 이름이 보인다. 민영규(閔泳珪) 박사는 “혜각은 뒷날 최치원(崔致遠)이 찬(撰)한 지증대사비문(智證大師碑文)에서 정중무상(淨衆無相)과 함께 서화(西化)한 2위의 선승(禪僧) 중의 한 분인 진주혜각(鎭州惠覺) 곧 상산김화상(常山金和尚)과 동일인물이다.”라고 하였다.³¹⁾ 회창법난(會昌法

30) 上同 卷2 開成 4년(839) 7月 23日. 早朝… 聞澗向北巡禮 有五臺山 去此二千余里許 南遠北近 又聞有天台宗和尚 法号志遠文鑿座主 竝天台玄素座主之弟子 今在五臺山 修法花三昧 傳天台教迹… 依新羅僧聖琳和尚口說記之 比僧入五臺及長安 遊行得二十年 來此山院… 暫休向天台之議 更發入五臺之意 仍改先意 便擬山院過冬 到春遊行巡禮臺山

31) 閔泳珪, 『四川講壇』, 民族社 1977, p.192

難)으로 흔적 없이 파괴된 적산법화원에 대하여는 『행기』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인사회의 정신적 지주이며 교화승(敎化僧)으로 그곳 거류민과 어울려 고국을 그리워하며 ‘8월 15일지절’을 경축하였던 법화원 승중(僧衆)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다. 엔닌은 『행기』에서 “다만 황하 이북의 진주(鎭州)·유주(幽州)·위주(魏州)·노주(潞州) 등의 4절도사는 원래 불교를 숭상하고 중히 여겨 사찰을 허물지 않았으며 승니도 규제정리하지 않았으므로 불교에 관한 일이 일체 흔들림이 없었다. 빈빈히 칙사를 보내 조사하고 처벌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천자가 스스로 와서 사원을 허물고 경전과 불상을 불살라버린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신 등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³²⁾ 반당적 번진(藩鎭)이 점유하고 있던 하북삼진(河北三鎭)에서는 『행기』의 내용처럼 파불령(破佛令)이 시행되지 않았다. 혜각은 하북땅 진주에서 전국을 휩쓴 회창파불(會昌破佛)의 재난을 피한 유일한 법화원 스님인 셈이다.

개성 5년(840) 2월 19일 엔닌 일행은 8개월을 넘게 신라승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오던 적산법화원을 출발하여 오대산 순례길에 올랐다. 원주승(院主僧) 법청(法淸)은 구당신라소 장영압아(張詠押衙)의 집까지 배웅하였다. 장영은 신라소의 이명재(李明才)를 문등현청(文登縣廳)으로 달려 보내서 일행의 공

32) 『入唐求法巡禮行記』卷4 會昌 5년(845) 11月 3日, 大使來 未到庄上 相看安存 … 唯黃河已北鎭幽魏路等四節度 元來敬重佛法 不毀折寺舍 不條疏僧尼 佛法之事 一切不動之 類有勅使勘罰 云 天子自來毀折焚燒即可然矣 臣等不能作此事也.

힘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의 일을 엔닌은 『행기』에 기록하였다. “지난 개성 5년(840) 이 포구에서 오대산으로 들어갈 때 이 대사(大使, 장영)는 힘을 다하여 오로지 주·현의 공문(公文)과 공협에 관한 일을 담당하여 우리를 떠나게 하였다.”고 전한다.³³⁾

엔닌은 등주도독부(登州都督府)에 이르러 개원사(開元寺)로 가서 유숙하였다. 그는 부성(府城)을 소개하는 글에서 “성남쪽 거리 동편에 신라관(新羅館)과 발해관(渤海館)이 있다.”고 하였다.³⁴⁾ 가탐(賈耽)의 『도리기(道里記)』(『신당서』권43 지리지 하)와 『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권11 등주)에 의하면 등주는 분명 신라로 가는 출발 항포(港浦)임에 틀림없다. 물론 신라사절단을 비롯하여 순례승·유학승·학자·상인 등이 당으로 오는 경우에도 등주가 종착항이 되었다. 그러므로 신라관을 신라인을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은 물론 숙소의 기능도 담당했을 것이다. 신라는 경애왕(景哀王) 4년(927) 이곳에 지후관 이언모(李彦謨)를 파송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하고 있다.³⁵⁾

엔닌은 청주부(靑州府) 용흥사(龍興寺)와 장산현(長山縣) 예천사(醴泉寺)에 신라원이 있었다고 전한다.³⁶⁾ 1996년 10월 청

33) 上同 卷4 會昌 5년(845) 8月 27日, 到勾當新羅所 … 去開成五年 從此浦入五臺去時 得此大使息力 專勾當州縣文牒公驗事發送.

34) 上同 卷2 開成 5년(840) 3月 2日, 平明發…到登州入開元寺宿 …登州都督府城東一里南北一里 … 城南街東 有新羅館渤海館…: 2004년 이곳을 답사한鈴木靖民教授는 新羅館의 위치를 蓬萊 前花市 弄23이라 比定하고, 明·淸까지 迎賓館이었다고 한다(酒寄雅志, 『圓仁の足跡を訪ねて-山東半島-』, 『栃木史學』第19卷, 平成17年 3月)

35) 『冊府元龜』卷976 外臣部 褒異3, 後唐 明宗 天成 2년(927) 3月 乙卯

36) 『入唐求法巡禮行記』卷2 開成 5년(840) 3月 24日, 4月 6日

주박물관 부지 확장과 학교건설공사 때 ‘용흥사조상군(龍興寺彫像群)’ 400여체가 발굴되었다. 이로써 용흥사의 정확한 위치와 조상군의 제작연대도 밝혀지게 되었다.³⁷⁾ 그러나 엔닌이 머물렀던 신라원의 위치는 알 수 없다. 다만 3월 28일의 입하(立夏) 공양(供養) 때 이곳에 재를 마련하고 50여 명의 사승(寺僧)들이 함께 점심을 먹었다고 안 것을 보면 원(院)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예천사는 장원(莊園)이 15개소나 되고 승중도 100여 명에 이르렀던 큰 절이었다. 엔닌은 “현재 절에 거주하는 사람은 30여 명”이라고 하였는데 이미 절이 쇠퇴기에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일행은 유리전(琉璃殿)에서 지공화상[誌公和尚, 보지(寶誌), 425~514]의 존영(尊影)을 예배하고 전좌승(典座僧)의 안내로 신라원으로 가서 묵었다. 청주(靑州) 용흥사와 마찬가지로 신라승들이 낙양(洛陽)·장안(長安) 등 성蹟(聖蹟)과 오대로 순례하는 것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승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천사는 우리나라에 전래된 지공(誌公)의 십일면관 음화신신앙(十一面觀音化身信仰)의 시원과 전래 경로를 시사해주는 곳이라 생각되어 흥미롭다. 당나라 때에 편찬된 『남사(南史)』 권76의 도홍경(陶弘景, 456~526) 전(傳)에 의하면 고구려가 지공의 갖가지 예언과 주술·영이(靈異)를 듣고 사신을 보내어 공양했다고 전한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이 신앙을 받아들인 시기가 아마도 육조(六朝) 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³⁸⁾ 중국문

37) 拙稿, 『羅唐文化交流의 中心地 新羅院』, 『佛敎春秋』13, 1998; 平澤加奈子, 『圓仁の足跡を訪ねて(Ⅱ)-山東から河北へ-』, 『栃木史學』第21卷, 平成19年 3月

화는 일찍부터 이 지역을 경유하여 산동반도를 거쳐 우리나라로 전해졌으며, 예천사의 신라원도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당시의 이정(里程)을 충실히 기록했던 엔닌이 청주부 장산현(長山縣)에서 서북쪽에 있는 오대산으로 길을 바꾸었으므로, 서남쪽의 황하중류를 따라 장안(長安)에 이르는 간선도로변의 신라관·원에 관한 소식은 더 이상 전하지 않는다.

4) 신라인과 귀국길의 엔닌

엔닌은 오대산순례를 마치고 개성 5년(840) 8월 22일 장안에 도착하여 대흥선사(大興善寺) 서선원(西禪院)에서 1박 하였고 다음날 자성사(資聖寺)로 옮겼다. 귀국할 때까지 자성사에 머물면서 열의에 찬 구법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엔닌은 당 정부가 불교와 승려를 탄압하려는 징조를 보았다. 그해 8월 7일 엔닌은 귀국하기 위한 허가원을 처음으로 공덕원(功德院)에 제출하기 시작하여 회창 5년(845) 5월 15일 장안을 떠날 때까지 4년 9개월 동안 귀국 허가의 탄원서를 100여 차례도 넘게 제출하였다.³⁹⁾ 출발 이틀 전에 엔닌은 환속되었고 다음날 경조부(京兆府)에서 양도(兩道, 하남·회남)의 공험을 받았다. 4년 만에 귀국 허가를 받아들 수 있었던 엔

38) 金文經譯註, 『入唐求法巡禮行記』, 2001, p.276.

39) 『入唐求法巡禮行記』卷4 會昌 5년(845) 5월 14日

닌은 당시의 감회를 “지금 승니환속(僧尼還俗)의 법으로 인하여 바로 귀국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기쁘다.”고 술회하고 있다.⁴⁰⁾

회창 3년(843) 8월 13일 법난(法難)의 소용돌이 속에서 엔닌은 ‘귀국허가서를 구하기 위하여’ 좌신책군압아(左神策軍押衙) 신라인 이원자(李元佐)를 찾아갔다.⁴¹⁾ 이후 약 2년간 두 사람의 관계는 “정이 들어 매우 친숙하였다. 객승(客僧)으로 있는 동안 부족한 물자가 있으면 잘 도와주었다. … 이원좌는 경조 부아문에 있는 동안 (14일 밤)에도 또한 음식과 침구 등을 보내주며 친절히 도와주었다⁴²⁾”고 술회하고 있다. 장안을 떠날 때에도 이원좌는 적지 않은 송별품을 가져왔고, 춘명문(春明門) 밖 장락과(長樂坡)까지 와서 밤을 새워 이야기 하면서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그는 “이 제자가 생각하옵건대 금생(今生)에서는 다시 만나 뵈옵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화상께서 성불하실 때, 청하옵건대 이 제자를 잊지 마시옵소서. … 화상(和上)께서 입고 계시는 납가사(納袈裟)는 청하옵건대 남겨주시어 이 제자에게 주소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죽을 때까지 향을 피우며 공양하겠습니다.”라고까지 말하였다고 한다.⁴³⁾ 엔닌의 학덕과 인품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엔닌이 낙양·정주·변주·사주·양주 등을 거쳐 초주에 도

40) 上同

41) 그의 官職은 左神策軍押衙·銀青光祿大夫(從三品)·檢校國子祭酒(從三品 上 당)·殿中監察侍御史·上柱國(正二品 해당)이었다. 佛敎의 獨신자로 圓仁을 성심껏 도왔다.

42) 『入唐求法巡禮行記』卷4 會昌 5년(845) 5월 14日

43) 上同 卷4 會昌 5년(845) 5월 15日

착한 날은 그해 7월 3일이었다. 개성 4년(839) 3월 22일 견당 사일행과 함께 9척의 신라선에 분승(分乘)하여 실의에 찬 마음으로 초주를 떠난 지 꼭 6년 4개월의 시간이 흘러간 셈이다. 엔닌은 곧 신라방으로 달려가 총관 설전(薛詮)과 유신언(劉愼言)을 만났다. 실로 오랜만의 재회였다. 그러나 신라방사회는 장보고의 죽음(841)과 회창 법난으로 상호 불신과 분열 상태에 빠져 있었다. 초주 총관 유신언·청해진병마사(淸海鎭兵馬使) 최훈의 권위도 그곳의 신라인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았다. 그는 장안에서 가지고 온 불전(佛典)과 만다라(蔓荼羅) 그리고 행장(行裝) 등 4상자를 유신언에 맡겨둔 채 2일 만에 등주(登州)로 떠나야 했다. ‘위칙죄(違勅罪)’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불교에 대한 광기어린 무종(武宗)의 처사는 당나라 도처에서 그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등주에 이르는 길은 실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 뒤따랐다.

엔닌은 차마 볼 수 없는 폐불(廢佛)의 참상을 목도했다.⁴⁴⁾ 그는 다시 문등현 청녕향(淸寧鄉)에 있는 ‘구당신라소(勾當新羅所)’로 길을 서둘러 8월 27일 압아 장영과 5년 만에 재회했다. 화상(和尚)을 기쁘게 맞이한 장영은 엔닌을 이미 파괴된 법화원 밖 사장(寺庄) 내의 방 한 칸을 마련하여 주었다. 신라 환속승으로 홍인(弘仁) 말(823) 다지이후에 8년간이나 거주한 적이 있는 이신혜(李信惠)와 함께 유석(留錫)하게 했다. 엔닌의 귀국준비는 이곳 신라촌 사람들과 장영, 그리고 초주 신라방상인들과 유신언·설전(薛詮) 등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44) 上同 卷4 會昌 5년(845) 8月 16日

일본 정부의 소식은 국제무역상들로부터 수집하였고 적산촌 초주 간의 연락과 국내정보는 연해안과 운하운송업자들로부터 얻었다. 앞서 소개한 그의 제자승 성해(性海)가 법화원 사장(寺庄)에서 스승을 만나게 된 것도 이들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장영은 엔닌이 유신언에게 맡겨둔 경론·불화 등을 가져오기 위하여 가인(家人) 고산(高山)을 초주로 파견하였고 한편으로는 그곳의 동태를 살피고 일본의 소식도 알아오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엔닌의 종자(從者)인 데이유만(丁雄滿)을 염방금(閻方金)의 선편으로 초주 유신언에게 보냈다. 오대산 장안에서 구득(求得)한 귀중한 경론·불화·전적(典籍)·의복 등을 가져오도록 한 것이다. 앞서 양주에서 구입한 ‘성적(聖籍)’들은 준판관(準判官) 토모노 수쿠네(伴宿禰管雄)의 선편으로(新羅船 제8선) 엔라쿠지(延曆寺)에 보냈다.

회창 6년(846) 3월 23일 폐불(廢佛)의 태풍을 일으켰던 장본인 무종이 승하하였다. 새 황제 선종(宣宗, 847~859)은 그해 5월 5일 ‘대사령(大赦令)’을 내렸다. 전국의 스님들은 물론 입당구법승들에게도 지나긴 겨울이 지나간 셈이다. 장영이 엔닌의 귀국을 위하여 겨울부터 건조하였던 선박은 이듬 해(847) 2월에 완성되었다.⁴⁵⁾ 그러나 곧 귀국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엔닌에게 다시 불행한 일이 생겼다. 장영이 ‘나라의 이름으로 원국(遠國)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배를 건조하고 있다’는 참언(讒言)을 받게 된 것이다.⁴⁶⁾ 엔닌은 장영과 협의하여 명주(明

45) 上同 卷4 會昌 7년(847) 2月

46) 上同 卷4 大中元年(847) 閏3月 10日

州)에서 귀국하기로 작심하고 윤 3월 12일에 출발하였다. 이때 부터 많은 신라선원들의 도움으로 적산촌(赤山村)과 연해안 그리고 초주의 운하길을 4개월간이나 왕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산포로 돌아온 엔닌 일행은 귀국준비를 서둘렀다. 엔닌은 8월 15일에 삭발하고 다시 승복을 입었다. 회창 5년(845) 5월 13일에 속의(俗衣)로 변신한 지 꼭 2년 3개월 만의 일이었다. 김진(金珍) 등 선원들은 엔닌과 함께 9월 2일 정오에 신라촌 적산포를 떠났다. 하젠(肥前) 마쓰우라(松浦郡)의 북쪽 시카시아(鹿島)에 도착한 것이 10일이었으니 적산포를 떠난 지 8일 만의 일이었다. 19일에 다자이후의 홍려관(鴻臚館)에 짐을 풀었으니 실로 기나긴 구법순례의 길이었다.⁴⁷⁾

표1) 新羅貿易商·官吏名(入唐求法巡禮行記)

	이름	登載卷數 및 年月日	備考
1	金正男	卷1 承和 5년(838) 6.28, 8.10, 12.18 開成 4년(839) 閏正. 4, 3.17, 4.3, 4.5	譯語
2	王靖	卷1 開成 4년(839) 1.8	貿易人
3	朴正長	卷1 開成 4년(839) 8.10	譯語
4	劉眞言	卷1 開成 4년(839) 3.22, 3.23 卷3 會昌 2년(842) 5.25, 10.13, 會昌 3년(843) 正.29 卷4 會昌 3년(843) 3.12 會昌 5년(845) 7.3, 7.5, 7.8, 7.9, 9.22 會昌 6년(846) 正.9, 2.5, 6.29 大中元년(847) 6.5, 6.9, 6.10, 6.27	譯語, 總管

47) 『續日本後記』卷17 承和 14년(847) 10月 甲午 甲午遣唐天台請益僧圓仁及弟子二人唐人四十二人到泊大津. ; 卷18 承和 15년(847) 3月 26日 乙酉 天台宗入唐請益僧圓仁 將弟子僧性海性正等 去年十月駕新羅商船 來着鎮西府 是日歸朝.

5	張保臯	卷1 開成 4년(839) 4.2 開成 5년(840) 2.17	淸海鎮大使
6	道玄	卷1 開成 4년(839) 4.8, 4.10, 4.29, 5.6, 6.9, 6.29 卷2 開成 4년(839) 4.24, 4.26	譯語
7	張詠	卷2 開成 4년(839) 6.7 開成 5년(840) 1.20, 2.19, 2.20 卷4 會昌 5년(845) 8.27, 9.22, 11.3 會昌 6년(846) 2.5, 3.9 大中元년(847) 閏3.10, 閏3.12, 7.21, 8.9	勾當新羅所 押衙
8	崔暈	卷2 開成 4년(839) 6.28 開成 5년(840) 2.15, 2.17 卷4 會昌 5년(839) 7.9, 7.13	淸海鎮兵馬使, 貿易人
9	王長文	卷2 開成 4년(839) 11.1	貿易人(沿岸)·莊 客(?)
10	陶中 (陶十二郎)	卷3 會昌 2년(842) 5.25, 10.13, 會昌 6년(846) 正.9	貿易人
11	王憲	卷2 開成 5년(840) 2.14	僧(?)
12	李隣德	卷3 會昌 2년(842) 5.25 卷4 會昌 5년(845) 7.5 會昌 6년(846) 正.9	貿易人
13	薛詮	卷4 會昌 5년(845) 7.3, 7.5, 9.22 會昌 6년(846) 6.17 大中元년(847) 6.10	總管
14	闍方金	卷4 會昌 6년(846) 2.5	貿易人(沿岸)
15	王宗	卷4 會昌 6년(846) 4.27, 5.1, 6.17	貿易人
16	李國遇	卷4 會昌 6년(846) 6.17	貿易人
17	鄭客	卷4 大中元년(847) 閏3.10	運送業
18	陳忠	卷4 大中元년(847) 閏3.17	貿易人(沿岸)
19	金子白	卷4 大中元년(847) 6.9	貿易人
20	金珍	卷4 大中元년(847) 6.9, 6.10, 6.26, 7.13, 7.20	貿易人
21	欽良暉	卷4 大中元년(847) 6.9	貿易人
22	王可昌	卷4 大中元년(847) 6.18, 6.27	貿易人(沿岸)
23	新羅船員	卷1 開成 4년(839) 3.17, 3.25, 4.1, 4.5 卷2 開成 4년(839) 4.20	60余名
24	李明才	卷2 開成 5년(840) 2.20	勾當新羅所 官吏

25	孫淸	卷2 開成 4년(839) 5.16	貿易人(沿岸)
26	李元佐	卷4 會昌 3년(843) 8.13, 會昌 5년(845) 5.14, 5.15	左神策軍押衙 銀青光祿大夫 等
27	高山	卷4 會昌 5년(845) 9.22	張詠家人

3. 신라인의 생업

1) 중앙·지방관인

엔닌은 3개월 가까이 오대산을 순례한 후, 개성 5년(840) 8월 22일 장안(長安) 동쪽 춘명문(春明門)으로 들어가 대흥선사(大興善寺) 서선원(西禪院)에서 묵었다. 대흥선사는 좌가(左街) 정선방(靖善坊)에 있는 수대(隋代) 이래의 사찰이다. 천축승 나련야사(那連耶舍)·사나굴타(閻那崛多) 등이 기거하면서 역경에 종사하였다. 당 현종(玄宗) 말년에는 불공(不空, 705~774)⁴⁸⁾이 유석하면서 밀교의 중심 사찰이 되기도 했다. 다음날 엔닌은 좌가 공덕사(功德使)⁴⁹⁾의 순원(巡院)에 가서 구법의 서장을 올렸으며 24일에는 본원에서 공덕사 구사량(九士良)⁵⁰⁾을

48) 복인도 또는 사자국(스리랑카) 출신 승려라고도 한다. 당때 장안으로 와서 금강지(金剛智)에 사사하며 밀교를 배우고 역경에 종사하였다. 스승이 죽은 뒤 천보 원년(742)에 광주로부터 사자국에 가서 천보 5년(746)에 법본 500부를 가지고 들어와 현종에 바쳤다. 궁중에 단(壇)을 설치하고 천자에게도 관정(灌頂)을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다. 안사의 난이 일어나자 대흥선사에서 국가 안온의 비법과 역도 진압의 수법을 행하는 등 나라를 위하여 크게 활동하였다. 또 오대산에 금각사(金閣寺)를 건립하여 밀교의 도량으로 삼고 문수보살 신앙을 홍보하는 한편 많은 제자를 길러내었다. 그 가운데 신라의 혜초(慧超) 스님을 비롯하여 함광(含光)·혜과(惠果)·혜랑(惠郎) 등이 유명하다. 그는 당대 국가불교의 마지막 꽃을 피운 고승이라 할 수 있다.

49) 대종(代宗) 대력 9년(大歷, 774) 금군의 무장이 사관(寺觀)의 공덕사로 임명되어 조사(造寺)·조상·설제(設齋)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정원 4년(788)에 양가와 동도(東都)에 공덕사가 설치되어 사부(祠部)의 소관이던 사원 행정과 승니(僧尼) 예속등의 일도 관장하였다. 뒤에 가서 환관이 공덕사로 임명되면 서부터 점차 그 성격도 달라져 갔다. 원화 2년(807)에는 좌신책군호군중위(左神策軍護軍中尉)가 겸임하게 되었고 도사여관(道士女冠)도 여기에 예속되었다. 이로써 공덕사는 환관 가운데 가장 권세있는 자가 부임하는 종교행정직이 되었다. 山崎 宏 :『支那中仏教の展開』‘唐代に於ける僧尼所隸の問題’清水書店, 東京, 昭和 17년(1942)

50) 환관. 자는 광미(匡美)이며 광동 흥년현 사람이다. 헌종 때 감군사가 되고

만났다. 당의 대궐인 대명궁(大明宮) 안에 있는 내호국천왕사(內護國天王寺)에서 묵었다. 다음날 공덕사의 공문서를 받아 자성사(資聖寺) 안에 있는 정토원(淨土院)에서 머물게 되었다. 엔닌은 장안에 머무는 4년 10개월 동안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구법활동을 펼쳐나갔다.

그런데 엔닌은 1년도 채 안 되어 폐불(廢仏)의 징조를 보았다. 회창 원년(841) 6월 11일 무종의 탄생일에 대궐에서는 재가 마련되었다. 양가의 공양대덕(供養大德)과 도사 4명이 모여 경을 논의하였는데 2명의 도사에게만 자색가사를 하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천축의 보월(寶月) 삼장이 직접 군왕을 대면하여 귀국을 허락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월관죄(越官罪)⁵¹⁾가 적용되면서 제자 3인과 통역승은 각각 곤장 7대와 10대를 맞았으며 귀국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해 8월 7일 엔닌은 처음으로 귀국원을 작성하였으며 자성사를 통하여 공덕사에 제출하였다. 이후 회창 5년(845) 5월 15일 장안을 떠날 때까지 4년 9개월 동안 무려 100여 차례나 귀국 허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때로는 구사량 사후 양주에서 알고 지낸 신임 공덕사 양흠의(楊欽義)를 통하여 귀국을 도모하였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엔닌은 초주의 신라역어 유신언의 서신과 인편을 통하여 귀국 이후의 견당사 일행의 소식과 재당 일본승들에 대한 동향,

문종(文宗) 때 좌신책군중위가 되어 좌가공덕사를 겸임하였다. 무종(武宗) 등극에 공이 있어 표기대장군초국공(驃騎大將軍楚國公)으로 봉해졌다. 회창 3년 관군용사(觀軍容使)가 되어 좌우신책군까지 통관하였다. 구사량은 문종·무종 때의 대표적 환관 세력가이며 독실한 불교신자로 불교행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신당서』권107 구사량전, 『구당서』권184 왕수정전)

51) 관의 위계를 밟지 않고 상부에 직소하는 죄

그리고 일본 정부로부터 부쳐온 유당 경비, 엔닌의 귀국에 대한 일본 조정의 노력 등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⁵²⁾ 회창 3년(843) 폐불의 도가 점차 강화되어 가던 와중에 실의한 엔닌은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되었다. 8개월 동안이나 병석에 있던 사랑하는 제자 이교(惟曉)가 그해 7월 24일 죽었던 것이다. 자성사 스님들의 도움으로 장사를 지내고 칭명십념(稱名十念)으로 극락왕생을 빌었다.

엔닌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유신언을 통하여 얻은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마지막에는 공덕사 양흠의의 친사(親事)⁵³⁾인 신라인 고관 좌신책군압아(左神策軍押衙) 이원좌(李元佐)를 직접 방문하였다.⁵⁴⁾ 그는 중앙정부의 핵심 권력기관에 근무한 유일한 신라인이다. 신책군은 현종 천보 13년(754) 토번(吐蕃) 방위의 목적으로 설치되어 안사의 난(755~763)·토번의 침범과 대종(代宗, 763~779)의 몽진 등의 국난을 겪으면서 황제를 호위하는 과정에 명실공히 금군이 되었다. 현종 때부터 환관세력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이들이 신책군과 추밀(樞密)를 관장하는데 있었다. 조익(趙翼)은 『이십이사차기(二十二史劄記)』(권20)에서 당대 환관의 화를 논하면서 ‘입군, 시군, 폐군’을 함부로 했다고 지적한다.⁵⁵⁾ 당시 환관세력이 어떠한가를 웅변으로 증명하

52) 주 9) 참조

53) 사서에 집장친사(執杖親事)·집장승친사(執杖乘親事) 등 직명이 보인다. 절도사 관하에도 친사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新唐書』百官志의 직명인 것 같다. 여기서는 측근과 같은 뜻으로 보인다.

54) 주 41) 참조

55) 조익, 『二十二史劄記』권20, 至唐則宦官之權 反在人主之上 立君弑君廢君 有同

고 있다. 구사량도 폐불황제 무종을 제위에 오르게 한 장본인이다.⁵⁶⁾

엔닌은 『행기』 회창 원년(841) 작은 사건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구사량의 권력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구사량은 장안 성 북쪽 대명궁(大明宮) 구내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 뜰에다 ‘구공기공덕정지비(仇公紀功德政之碑)’를 건립하였으며 비의 제막식에는 황제도 참석했다고 한다.⁵⁷⁾

무종을 옹립한 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을 가졌던 독실한 불교신자 좌가공덕사·호군중위 구사량이 사망하자(6월 23일) 곧이어 ‘책을 내려 구군용(仇軍容)의 공목관(孔目官)인 정중승(鄭中承)과 장단공(張端公) 등 4명을 베고 아울러 남녀노비 등을 모두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였다’고 한다.⁵⁸⁾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환관의 사후를 욕되게 했던 것으로만 해석되지는 않는다. 즉, 회창 5년(845) 4월 양가 신책군 지휘권 이양을 둘러싼 환관과 황제·관료들이 대립하게 된 보다 의미심장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엔닌의 일기에서는 중국의 사서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⁵⁹⁾ 황제가 행정관료들에게 양군의 지휘권을 이관시키고자 하였고 좌신책군 호군

兒戲 實古來未有之變也.

56) 『二十二史劄記』권20, 乃中尉仇士良魚弘志 矯詔廢成美 立穎王灑爲皇太弟 卽位是爲武宗 是武宗之立 由仇士良等之力也.

57) 『구당서』권18, 무종본기 회창 원년 2월조 참조.

58) 『行記』권4, 會昌 3년(843) 6월 25日, 廿五日 勅 斬仇軍容 孔且官 鄭中丞 張公端等四人及男女奴婢等 盡殺破家.

59) 『行記』권4 회창 5년(845), 3~4월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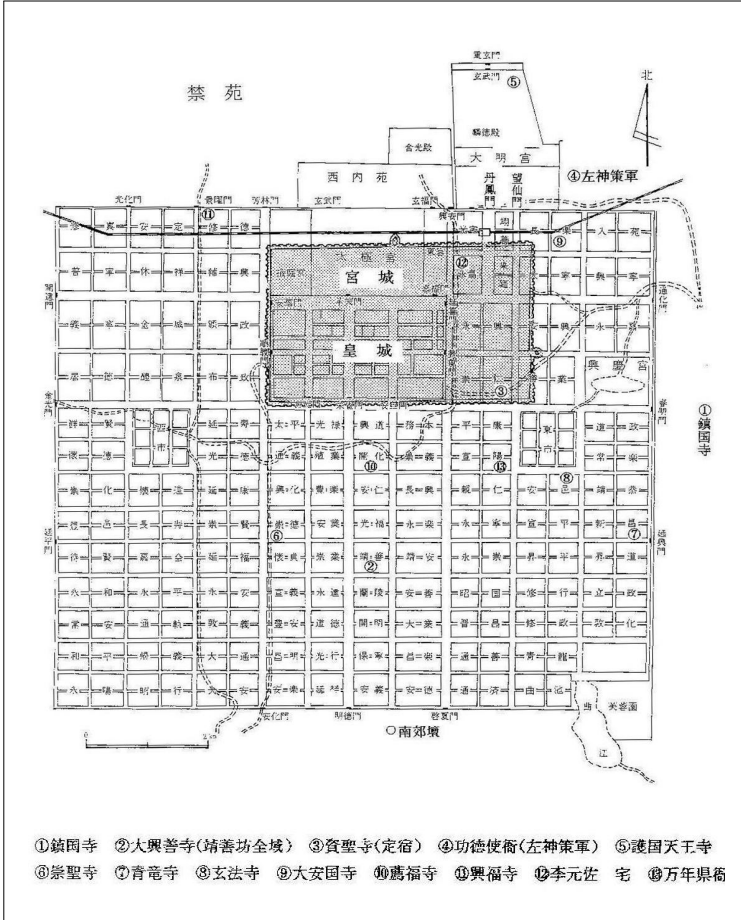
중위 양흠의는 지휘권을 상징하는 ‘인(印)’의 반납에 동의했다. 그런데 우신책군 호군중위이며, 환관이었던 어홍지(漁弘志)는 만일 ‘인’을 반납하라고 강요한다면 병마의 동원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결국 황제는 당초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신책군 세력이 막강하였음을 실감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하겠다.

이원좌의 거주지 영창방(永昌坊)은 호국사(護國寺) 인근이다. 장안성 동가 궁성의 바로 동편인 단봉문가(丹鳳門街)와 통화문가(通化門街)의 교차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금군의 고관이 거주할 만한 요지이다. 내호군사가 궁성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호국사는 외호국사인 것 같다.

엔닌은 그의 자택에서 귀국에 관한 일을 의논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엔닌은 “귀국을 청하는 일로 이원좌와 서로 알고 지내온 지가 근 2년이 되었다.”⁶⁰⁾고 하면서 부족한 물자의 도움과 정에 넘치는 보살핌을 받았다고 회술하고 있다. 엔닌은 혹독한 폐불의 와중에서 이원좌의 비호를 받아 환속되었고 “바로 귀국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기쁘다.”고 하면서 장안을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

60) 『行記』권4, 회창 5년(845) 5월 14日, 註42 참조.

당(唐) 장안성(長安城) 복원도



엔닌은 839년 6월 7일 신라거류민의 도움으로 적산법화원에 유석하게 되었다. 물론 당률(唐律)에 반한 불법입국자의 신분이었다. 판두(板頭) 두문지(竇文至)의 고발에 의한 문등현 청의 힐문첩(詰問牒)이 엔닌과 법화원주에게 발송되었다. 적산법화원 원주인 법청은 엔닌의 ‘유재산원사유(留在山院事由)’ 서인

‘감일본국승인선상불귀사유등장(勘日本國僧人船上不歸事由等狀)’를 제출하였다. 이때에 엔닌은 ‘구당신라소(勾唐新羅所)’의 압아 장영과 관계를 맺게 되고 후일 그의 도움으로 순례와 체류가 가능한 공험을 받게 되었다.

장영은 신라 사람으로 직명은 평로군절도동십장검등주제사암아(平盧軍節度同十將兼登州諸事押衙)이다. 문등현(文登縣)에 살고 있던 신라인의 호구를 관할하고 오늘날의 영사업무와 같은 일상 사무를 담당한 것 같다.⁶¹⁾ 현 당국에서는 불법 입국한 엔닌 일행에 대하여 주(등주부)에 보고하고 사(청주절도사)에게 보고를 끝마쳤다. 그리고 (승려 등이) 이리저리로 가서 소재를 모를까 염려하여 8월 14일 적산산원과 촌보·판두·포구의 담당관 등에게 그들의 소재를 알아두도록 통첩하였다.⁶²⁾ 이들의 행동은 감시 하에 놓였던 것이다.

엔닌은 법화원의 겨울강경회가 시작된 다음날 사원이 분주하였으므로 잠시 동안 절을 나와 남산의 법공(法空)사리 사원에 들렀다. 적산원의 강유(綱維)는 급히 서신을 보내어 돌아오기를 청하였고 남원(천문원)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엔닌의 행동거취를 감시한 사례라 하겠다. 엔닌은 한 해 겨울을 법화원에서 유석하기로 작심하였다. 그동안 공험을 받기 위하여 일을 진행하였으며, 9월 26일 ‘일본국구법승등첩(日本國求

61) 『行記』권4, 會昌 5년(845) 8월 27日, 廿七日 到勾當新羅所 勅平盧軍節度同十將兼登州諸軍事押衙張詠 勾當文登縣新羅人戶.

62) 『行記』권2 개성 4년(839) 9월 3日, 三日 午時 縣使一人 將縣帖來 其帖文如左 縣 帖青寧鄉·請帖海口所由 及當村板頭 並赤山寺院綱維等 須常知存亡 請處分者 奉判准狀 帖所由者 依檢前伴人事 須帖海口所由告報 及綱維等 須常知存亡 如已後州司追勘 稱有東西不知去處 口追必重科決.

法僧等牒’을 받았다.⁶³⁾ 이 문서는 적산법화원이 ‘중국의 격례(格例)에 준하여 주·현에 공문을 올려 공험을 발급해 주도록 청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이첩이 구당 신라소에 전해졌을 터이지만 그 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엔닌은 다음 해 정월 19일 다시 법화원에 첩을 올렸다. 다음날 사원의 강유는 서장을 작성하여 이쇼(惟正)와 사인(使人)을 구당신라소 장영에게 보내어 이를 전달하였다.⁶⁴⁾ 구당신라소 장압아는 이를 문등현청에 올리고 형청은 다시 주(등주부)에 상신하였다. 십여 일을 기다린 후 주청에서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바로 떠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장압아의 답신을 받았다.⁶⁵⁾ 그러나 엔닌은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여 압아에게 재촉하는 서신을 올렸다.(2월 1일) 구당신라소에서 현청으로, 현청에서 다시 등주부로 상신하여 공험을 받으려한 일련의 과정에서 장영 압아의 헌신적인 노력을 볼 수 있다. 당시 압아의 답신에는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다시 사람을 보내어 간곡히 계획을 아뢰었으니 오래 지 않아 회답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건대 잠시 동안 손님(엔닌)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좌주께서 나의 관할구역에 오셔서 머무는 그때부터 몇 사람들이 종일토록 수고하고 있습니다.”⁶⁶⁾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63) 『行記』권2 개성 4년(839) 9월 12일

64) 『行記』권2 개성 5년(840) 1월 20日, 廿日 當院綱維 更作一狀 差惟正及院家使 報當州軍事押衙張詠宅去 求法僧 別作一狀 同送押衙.

65) 『行記』권2 개성 5년(840) 1월 27日, 廿七日 晚頭得押衙報 稱 昨已具高意報當 縣宰君近報來云 以申州 候十數日間 州司有處分 方可東西者.

66) 『行記』권2 개성 5년(840) 2월 1日, 得押衙報云 更差使申懇計 不久即來且願客 无至憂辱 座主自到弊管止泊時 多少人終日區區云云.

2월 15일 엔닌은 장압아를 만났고 구당 신라소에 문등현청의 통보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시가 급한 엔닌은 문등현청에 직접 가서 공험을 받으려고 장압아가 작성한 첩문을 가지고 문등현청으로 행하였다. 『행기』의 2월 20일자 일기에 “장압아는 공문서를 엔닌 등에게 주고 현청까지 보내어 공험을 내어 주도록 하였다. 아울러 담당자인 이명재(李明才)와 함께 현으로 떠나게 했다.”⁶⁷⁾ 이로써 엔닌은 문등현·등주도독부·청주절도사(押新羅勃海兩藩使)의 공험을 얻어 구법순례의 길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구당신라소 장영 압아의 직명에 주의해 볼만하다. 장영은 ‘평로군절도동십장겸등주제군사압아(平盧軍節度同十將兼登州諸軍事押衙)’이다. 이는 신라 거류민사회에서의 직명이 아니고 등주 또는 평로치정 절도사에 사사하는 군직을 겸한 지방 하급관리였음이 분명하다. 엔닌이 오대산 순례를 떠날 때까지 받은 공험은 그 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문등현·등주도독부·청주절도사압신라발해양변사 등 세 관아에서 발행한 것이었다. 그런데 엔닌에게 발급된 공험의 결제자는 압신라발해양변사인 청주절도사 위장(韋長)이었다. 구법(求法) 순례와 본국 환송의 결정권이 양변사 위장의 수중에 있었으며, 외국인에 대한 공험은 양변사가 발급했기 때문이었다. 장영은 문등현에 거주하는 외국인 특히 신라인들의 호구를 관할하는 오늘날의 영사업무와 같은 일도 관장하였으므로 엔닌의 공험 신청 업무

67) 『行記』권2 개성 5년(840) 2월 20日, 廿日 押衙牒付門仁等 送縣司 令出公驗兼差所由 李明才相送入縣 便辭別押衙 及共赤山院主僧法清等 相別了.

도 그가 관장하는 사항이었던 것이다.

초주·연수현(漣水縣) 신라방의 장을 총관이라 하였다. 당 지방제도하에서의 총관은 지방군진의 지휘관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당말에 오면 외국인 관계 사무를 관장하던 하급관리도 총관이라 하였던 것 같다. 압아와 총관의 직위나 계위는 분명치 않으나 초주총관 선진(鮮詮)을 ‘당주동십장(當州同十將)’이라고도 불렀다. 장영 압아도 ‘평로군절도동십장(平盧軍節度同十將)’이라고도 하였다. 따라서 구당 신라소의 장영이나 신라방의 총관은 기본적으로 같은 직책인 듯하다. 그것은 『구당서』권48 식화상(食貨上) 무덕령(武德令)에 ‘5가(家)를 보(保)로 삼고 읍시에서는 방(坊)이며 전야(田野)에서는 촌(村)⁶⁸이라 한다고 한 설명에서도 알 수 있다.

이 밖에 적산촌에는 ‘촌보(村保)’·‘판두(板頭)’라는 직도 있었다. 인보제(隣保制)에 의한 보 또는 촌락의 장이 아닌가 짐작된다. 초주의 신라방에는 전지관, 역어 이외에도 단두(團頭)란 직이 있었다. 단(團)은 집단을 뜻하는데, 처음에는 주로 군사적 집단이나 단체의 의미로 쓰인 것이며⁶⁹ 민간에도 단조직이 생겨난 것 같다.⁷⁰ 돈황 문서에 보이는 단두나 초주 신라방의 단두도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당율소의(唐律疏議)』권6 명례(名例) ‘화외인상범(化外人相

68) ‘百戶爲里 五里爲鄉 四家爲隣 五家爲保 在邑居者爲坊 在田野者爲村 村坊隣里 遞相督察

69) 『수서』권28 백관지; 『신당서』권50 병지

70) 『唐會要』, 開之二十九年三月二十六日勅 天下諸州 每歲一團貌 旣以轉年爲定 復有籍書可憑 有至勞煩 不從簡易於民非便…

犯)’에는 “동류 외국인간의 범죄행위는 본국의 법에 의하여 단죄되며 외국인과 중국인 그리고 외국인과 외국인간의 범죄·송사는 당률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하였다.⁷¹⁾ 당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율령에서 하나의 특이한 점을 보이고 있다. 즉 국가주권에 어떠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자치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납박각(納舶脚, 交關稅)’을 납입하거나 금진이(禁珍異, 禁輪品)를 구매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행기』권1, 2월 20일조에 의하면, 귀국길의 조공사 일행이 장안에서 구매하지 못한 물품을 양주의 시장에서 구입하기 위하여 다시 초주에서 양주로 와야만 했다. 사사로이 교역할 수 없는 금지품을 구입한 사람들 중에는 양주아문에 소환되기도 하였으며, 시장에서 향약을 구입하다가 관원에 발각되어 돈까지 버리고 도망한 사건도 일어났다.⁷²⁾ 뿐만 아니라 대사의 겸종 아와다노 이에쓰쿠(粟田家繼)는 물론이고 선원과 관원 모두가 물건을 구매하러 시장에 갔다가 체포·구금되기도 했다.⁷³⁾

71) 『唐律疏議』, 諸化外人同類自相犯者 各依本俗法 異類相犯者 以法律論 疏議曰 化外人謂蕃里夷之國 別立君長者 各有風俗 制法不同 其有同類自相犯者 須同本國之制 依其俗法斷之 異類相犯者 若高麗之與百濟相犯之類 皆以國家法律論定刑名.

72) 『行記』권1 개성 4년(839) 2월 20일, 大使等以今月十二日 到楚州住 緣上都不得賣買 使差前件人等爲買雜物來…第四舶監國信并通事 緣買勅斷色 相公交人來喚…曉際 第四舶通事知乘等 被色趨來 長官僂從白鳥 清岑 長岑 留學等四人 爲買香藥等下船到市 爲所由勘追 捨二百余貫錢逃走但三人來.

73) 上同 21일, 大使僂從粟田家繼 先日爲買物 下船往市 所由捉縛 州裏留著 今日被免來 又第四舶射手被免放來; 22일, 廿二日辰時發 射手身人部貞淨於市場 先日被捉縛州裏 今日被放來 …第四舶射手水手二人被免却來 史越智貞原 先日往市買物所 由報州請處分 今日趨來.

허가받지 않고 금지품을 구입했다가 체포된 사례라 하겠다. 이 시기의 교역에 관한 금령은 『당회요(唐會要)』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⁷⁴⁾ 당송시대의 등주·양주·광주·천주 등 해항에 박래된 향약·보화류는 원칙적으로 사사로운 매매가 허용되지 않았다.⁷⁵⁾

당대에는 외국무역은 공·사 모두 행하였다. 관시(官市)는 진귀하고 고급품을, 사시(私市)는 대개 염과품을 취급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품세와 교역세를 지불하여야 했으며, 금수품에 대해서는 허가를 얻어야만 했다. 금동이 귀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시기에도 유통을 금지하였다.⁷⁶⁾

구당신라소의 압아와 신라방의 총관은 ‘양변절도사’에 예속된 지방하급관리이다. 또한 신라 거류민의 호구 사무는 물론 해사·교역·사법·종교 등 오늘날의 영사 업무와 같은 제반사를 총괄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다른 번국(蕃國) 특히 일본의 여행자에 대한 공적인 업무도 수행한 것 같다.

2) 선원과 조선

7~8세기의 양주와 광주는 당제국의 2대 무역항이었다. 이곳

74) 『唐會要』권86 市 開元 2년(714) 윤 3월, 開元二年 閏三月 勅 諸錦綾羅縠織成紬絹絲 犂牛尾 眞珠金鐵 並不得與諸蕃互市 及將入蕃 金鐵之物 並不得將度西北諸國

75) 『宋會要』諸蕃國香藥寶貨 至廣州 交址 泉州兩浙 非出於官庫者 不得私相市易

76) 『冊府元龜』권999, 外臣部至市門 開成之年(836) 6月, 淄青節度使新羅渤海將到熱銅 請不禁斷

에는 해상무역의 선구자였던 페르시아·아랍 해상들이 변방(蕃坊)이란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신라인들도 세계무역사의 새로운 움직임의 첫 단계에 참여하고 있었다. 중국으로 진출한 페르시아·아랍 상인들은 그들의 무역시장을 양주 이북 즉, 대운하변과 동북쪽 연해안으로는 확대하지 못하였다. 반면 신라인들은 운하변과 연해안을 중심으로 ‘방’과 ‘촌’을 형성하고 중국의 동쪽 연안을 비롯하여 신라 본국과 일본 서남해안과 세도나이카이 등의 넓은 지역을 그들의 시장으로 삼고 활동하였다. 엔닌이 문견한 신라 해상들의 활동상은 『삼국사기』 잡지에 나오는 박래품의 이름과 흥덕왕(826~835), 능비 파편에 나오는 ‘무역지인간(貿易之人間)’이란 어구에서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엔닌은 양주 개원사에서 신라인무역상 왕정의 방문을 받았다.⁷⁷⁾ 왕정은 일본국 홍인(弘仁) 10년(819) 무역차 일본에 가던 중 데와국(出羽國)에 표류하였던 당나라 사람 장각제(張覺濟) 등과 같은 배에 탔던 사람으로, 양주에 거점을 둔 국제 무역상이었다. 그런데 『일본기략(日本記略)』의 홍인 11년(820) 4월 무술조에는 ‘당인 이소정(李少貞) 등 20명이 데와국에 표착하였다’고 되어 있다.⁷⁸⁾ 만일 장각제 형제가 이소정과 같은 배를 탔다면 『행기』의 10년은 11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기략』에는 ‘당나라사람 이소정’으로 되어 있지만 이소정은 본래 장보고 휘하의 국제 무역상이며, 장보고 사후 염장(閻長)의 부하

77) 주 1) 참조

78) 戊戌 唐人李少貞等二十人漂著出羽國.

가 된 사람이다.⁷⁹⁾ 미루어 보면 아마도 신라인 왕정과 같은 배를 탔던 장각제 형제도 양주에 거점을 둔 신라 국제해상일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살펴본 양주 무역상 왕종의 이야기와 『강도현지』의 기록 등을 종합해 보면, 양주에도 신라인 거류지인 신라방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엔닌이 당에 머물고 있던 시기에 간행되었다고 생각되는 주경현(朱景玄)의 『당조명화록(唐朝名畫錄)』에는 한 신라해상이 양주·초주 지역에서 당시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수십점의 그림을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신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⁸⁰⁾ 이는 양주·초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해상들의 활동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근간에 당대 나성지에서 수점의 신라자기와 고려청자의 파편이 출토되었다.⁸¹⁾ 그리고 인근에서 아랍의 유리그릇, 페르시아의 녹유(綠釉) 도기, 일본의 수우각료(水牛角料) 등도 출토되었다. 이 사실은 나성지 주변 일대가 신라인의 거주지였을 뿐만 아니라 서방세계의 무역상인들의 집락지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당시 양주는 대운하와 장강하류의 요충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였다. 무덕(武德) 9년(626) 이곳에 대도독부(大都督府)를 설치하고 대도독으로 친왕이 취임하였으며, 지덕(至德) 원년(756)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가 설치되어

79) 『續日本後記』권11, 承和 9년(842) 正月 10日 新羅人李少貞等 四十人到着筑紫大津 大宰府遣使問由來 頭首少貞申云 張宝高死 其副將李昌珍等欲叛亂 武珍州列賀閻丈(長) 興兵討平 今已無廣…公卿議曰少貞會是宝高之臣 今則閻丈之使 彼新羅人其情不遜…

80) 졸저, 당대 신라교민의 촌락과 사회, 『당대의 사회와 종교』, 승전대학교 출판부, 1984, p.65.

81) 朱江, 統一新羅時代海外交通述要, 『張保臯와 淸海鎮』, 혜안, 1997, p.138.

11개 주를 관장하였다. 이후 강남 재부의 집산지로서, 국제통상의 심장부로 발전하여 천하에 으뜸가는 부유한 도시가 되었다. 그러므로 신라인을 비롯하여 서방세계의 파사국(波斯國, 페르시아)·대식국(大食國)·인도·실론·점파국(占婆國, 인도차이나) 상인들도 이곳에 거류하였던 것은 물론이다.⁸²⁾

따라서 이곳에는 거주지인 파사장(波斯莊)과 신라방, 그리고 화물집하장인 저(邸)들이 집중적으로 생겨났다. 그리고 화물의 거래장소인 점(店)을 개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십리장가라는 야시장 거리까지 생겨났다. 이로써 동서를 대표하는 해상들이 양주에서 교역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신라인의 취락은 산동반도 남안(南岸) 일대에서 회하 하류와 운하변에 이르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지역에 산재해 있던 마을을 연결해 보면 당시 신라와 당과의 중심지를 이어주는 수로와 바닷길이 형성된다. 이들 마을 가운데 중국과 동쪽 나라들과의 무역 중심지는 분명 초주(楚州)였다. 초주는 회수하류에 위치하여 대운하와 회수를 이어주는 물류항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대양으로 나아가는 선박이나 양주 등 남쪽 지방에서는 오는 거룻배까지도 모여들었다.

개성 3년(838) 12월 18일 신라인 통역관 김정남(金正男)은

82) 『行記』권1, 개성 4년(839) 正月 7日, …孝感寺…修瑞像閣 得修此閣 彼斯國出千貫錢(占)婆國人捨二百貫
『全唐文』권75, 大和八年 疾愈德音 南海蕃舶本以慕化而來…比年長吏多務徵求…其嶺南福建及揚州蕃客 宜委節度使觀察使 常加存問 除舶脚收市進奉外 住其來往通流 白爲交易 不得重加率稅.

견당사신(遣唐使臣)의 귀국 선박을 구입하기 위하여 초주로 떠났다.⁸³⁾ 일본의 조공사선은 입당할 때 파손되어 쓸모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김정남은 초주에서 신라선 9척을 구입하고 바닷길에 익숙한 신라선원 60여 명을 고용하여 귀국 준비를 하였다.⁸⁴⁾ 그리고 구입한 배를 수리하기 위하여 양주에 머물렀던 일본 도장(都匠, 장인의 총감독), 번장(番匠, 番上의 장인으로 숙련된 장인), 선공(船工), 단공(鍛工, 대장장이) 등 36명을 초주로 불러들였다.⁸⁵⁾ 당시의 초주는 재당신라인 무역상에 관한 일뿐만 아니라 일본인 해상이나 순례승들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곳이었다. 초주를 거점으로 한 신라국제무역상도중(陶中, 陶十二郎),⁸⁶⁾ 이인덕(李隣德), 장공정(張公靖), 흠량휘(欽良暉), 김자백(金子白), 김진(金珍) 등 많은 해상들은 운하는 물론 일본과 중국의 동쪽 연해안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인덕은 선주이며 대일본 무역업자이다. 일본승 에가쿠(惠萼)는 이인덕의 배를 타고 귀국하였고 이 배가 귀환할 때 엔닌의 제자 세이카이(性海)가 사승을 찾아 이 배를 타고 당나라로 왔다.⁸⁷⁾

83) 『行記』권1 개성 3년(838)12월 18日, 末時 新羅譯語金正男 爲定諸使歸國之船向楚州發去.

84) 『行記』권1 개성 4년(839) 3월 29日.

85) 上同 윤 1월 4日, 依金正南請 爲令修理所買船, 令都匠番匠船工鍛工等三十六人 向楚州去.

86) 『行記』권3, 會昌 2년(842) 5월 25日, 僧玄濟將金廿四小兩 兼有人人書狀等 付於陶十二郎歸唐 此物見在劉愼言宅.

87) 『行記』권3, 會昌 2년(842) 5월 25日. 惠萼和尚附船到楚州 已巡五台山 今春擬返故鄉 愼記排比人船訖 其惠萼和尚去秋 暫往天台冬中得書云 擬趁李隣德四郎船 取明州歸國 依惠萼和尚錢物衣服弟子悉在楚州 又人船已備 不免奉邀 從此發送; 上同 권4, 會昌 5년(845) 7월 5日. 又日本國惠萼闍梨 會昌2年 禮五

이인덕의 일본 왕래가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공정도 초주 신라인의 선주이며 당일 무역업자이다. 天台宗留學僧 円載가 조정에 표를 올리기 위하여 제자 닌코(仁好)와 순쇼(順昌)를 귀국시킬 때 초주의 유신언에게 부탁하여 배를 구했다. 그때 마련한 배가 곧 장공정의 선박이며 이들은 이 배를 타고 나가토(長門)에 무사히 도착하고 있다.⁸⁸⁾ 중국 남쪽 천태산에서 초주까지 와서 배를 구해 일본으로 갔던 것을 보면 초주 신라인의 활동과 선원들의 항해 기술을 짐작케 한다. 엔닌은 귀국선을 찾아 적산과 초주를 오르내리면서 대중(大中) 원년(847) 6월 9일 초주에서 신라인 무역업자 흠량휘(欽良暉), 김자백(金子白), 김진(金珍) 등이 일본으로 간다는 소식을 접한다. 이들이 남긴 서신에는 “5월 11일 소주의 송강구(松江口)에서 출발하여 일본국에 간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일본국의 스님들이 지금 등주의 적산촌에 머물고 있으니 곧 그곳으로 가서 그들을 만나 태우고 가자.”고 하였다. 이 밖에 일본인 무역상이라고 생각되는 순타로(春太郎) 신이지로(神一郎)도 함께 김진의 배로 귀국하기로 했으나, 약조를 어기고 명주(明

台山爲求五台供 就李隣德船 却歸本國去 年年將供料到來 今遇國難還俗 見在楚州云; 上同 會昌 6년(856) 正月 9日, 又云 近得的信 李隣德船廻 兼云 日本客相隨來 因尋訪陶中等消息去 次如有彼國信來 卽專付上云云 高山云 在楚州親見從船下來人云 有二僧人 專爲請益僧就船來到 今遇僧難 裏頭在云云.

『續日本後紀』권18, 승화 15년 3월 26일, 天台宗入唐請益僧門仁 將弟子僧性海 惟正等 去年十月駕新羅船 來着鎮西府 是日歸朝.

88) 『續日本後紀』권13, 승화 10년 12월 9일, 入唐留學天台宗僧門載之弟子仁好順昌 與新羅人張公靖等廿六人來着長門國; 『行記』권4, 會昌 4년(844) 12月, 十二月 得楚州新羅譯語劉慎言書云 天台山留學門載聞梨 僞進表遣弟子僧兩人 令歸日本國 其弟子等來到劉慎處覓船 與排比一隻船差人發送訖 今年九月發去者.

州) 사람 장지신(張支信)⁸⁹⁾의 배를 타고 귀국하였다. 순타로의 아들인 무네다케(宗健)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들의 소유물은 아직도 이 배에 있다고 했다. 이들을 통한 일본 왕래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일본 무역업자의 중국 왕래에는 신라 선박이 많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흠양휘 등도⁹⁰⁾ 당일무역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무역상들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하 하류의 연수현에도

89) 『續日本後紀』 안상사자재장(安祥寺資財帳)에는 장우신(張友信)으로 기록되어 있다. 물론 지신과 우신은 같은 사람이다. 일본의 많은 사료에는 장우신을 당나라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는 해양 무역업자 일뿐만 아니라 조선업에도 관여하고 있다(『頭陀親王入唐略記』). 그런데 장우신은 재당신라인으로 생각되는 점이 많다. 그것은 당대 당일무역업자간의 통역업자는 대부분 신라 사람이 맡아왔다. 장우신이 원래 ‘통사 장우신’이었던 것으로 보면 명주에 거점을 둔 재당 신라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구당신라소’ 남아 장영도 ‘통사’이기도 했으며 엔닌의 귀국선을 건조하기도 했다. 정관 3년(861)의 기록(『頭陀親王入唐略記』)에 ‘대당통사장지신(大唐通事張支信)’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동업자 김문습(金文習), 임중원(任仲元)도 ‘당인’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때의 당나라에는 김씨 성을 가진 중국 사람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즈음의 재당신라인은 거의 당나라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재당신라인들이 자칭하여 ‘당인’이라 했을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명주에는 일찍부터 신라인의 왕래가 빈번하여 지금까지도 ‘산라초(新羅礁)’, ‘신라촌’의 명칭을 가진 곳이 남아 있다.

90) 이들은 재당신라인으로 당의 연해안 교역은 물론 당일간의 무역업에 종사해 온 사람들이다. 흠양휘는 이 뒤(852) 일본에 내항하여 일본 천태종 스님 엔진(円珍)을 입당시키고 있다(『円珍傳』, 仁壽 二年(852) 閏八月 值大唐國商人 欽良暉交關船來三年七月十六日 上船到值嘉島 停泊鳴浦 八月初九日放船入海). 엔진전에는 흠양휘를 ‘대당국상인’이라 하고 있다. 김진은 『행기』에서도 ‘당인’이라 하고 있다(『행기』권4, 회창 7년(847) 10월 19일, 十九日 太政官符來太宰府 円仁五人 速令入京, 唐人金珍等四十四人 仰太宰府 量加支給者官符在別). 앞의 주석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의 국제무역업자들은 때에 따라 국적을 바꾸어 이야기하기도 하고 당사국에서도 말면서 기록하기도 했을 것이다. 특히 신라인들의 경우 장보고 사후 재당신라인의 조직의 붕괴와 그들의 귀화 현상의 표출이라 생각된다.

신라방이 있었다. 초주의 신라방과 마찬가지로 ‘총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거류민 수는 초주와 비슷했으리라 생각된다. 운하의 요충이었으므로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는 국제 무역업자와 선원들도 많았을 것이다. 엔닌이 귀국길에 이곳에서 다시 만났던 청해진 병마사 최훈의 본거지도 이곳으로 생각된다.⁹¹⁾ 김정남이 고용했던 신라선원 60여 명 가운데에는 연수현의 선원과 키잡이가 포함되어 있었다.⁹²⁾ 그것은 귀국선 제일박의 신라인 선원과 소공(梢工, 키잡이)이 배에서 내려 돌아오지 않았던 사건에서 알 수 있다. 배의 조타수인 소공은 항해의 방향과 해로를 익히 알아야 하고 돛의 운용기술에 정통해야 한다. 조류와 바람을 이용하여 추진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예정된 항로를 따라 배의 항해 방향을 바로 잡는 최고의 기술자다. 배에 키잡이가 승선하지 않았으니 출발할 수 없는 애로가 있었던 것이다. 장보고 전성기(828~841)의 신라인들의 해상활동과 항해기술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조공사 일행이 초주를 출발하여 회하구(淮河口)에서 산둥반도 동단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북상하면서 이 해안을 오르내리는 신라선을 자주 목격하였다. 이들을 통하여 신라 국내에서 일어난 왕위계승의 싸움이며 장보고의 도움으로 김우징(신무왕)이 등극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⁹³⁾ 엔닌이 밀주 대

91) 『行記』권4, 會昌 5년(845) 7月 9日, 九日 齊時到漣水縣…遇崔暲十二郎 會爲清海鎮兵馬使 在登州赤山院時一度相見便書名有期云 和上求法歸國時 事須將此名紙到漣水 暲百討相送…其人又歸到新羅 遇國難逃至漣水住 今見便識情分不疎 竭力謀停住之事…

92) 『行記』권1, 개성 4년(839) 3月 25日.

93) 『行記』권1, 개성 4년(839) 4月 2日, 加以彼新羅興張寶高光亂相戰;上同 권2,

주산 인근 연안에서 만난 목탄을 실은 신라 운송선이나⁹⁴⁾ 귀국선을 찾아 적산포에서 초주로 가던 도중 밀주 체성현의 교마포에서 빌려탄 진충(陳忠)의 배,⁹⁵⁾ 초주신라방에서 유산포(乳山浦)로 갈 때 편승한 왕가창(王可昌)의 배,⁹⁶⁾ 그리고 승가장(枳家庄)의 최씨 배⁹⁷⁾ 산동연해안과 운하를 운행하던 신라인 연해운송선이다.

유산포는 인근 신라인 촌 가운데에서 가장 큰 항포였던 것 같다. 엔닌은 유산포의 신라인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오전 10시경에 신라인 30여 명이 말과 나귀를 타고 와서 말하기를 ‘압아는 썰물이 되면 와서 조공사 일행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아를 마중하기 위하여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 오래지 않아 압아는 신라선을 타고 왔다. 배에서 내려 바닷가 언덕으로 오르니 낭자(娘子)들이 많이 있었다.”⁹⁸⁾ 일인(日人) 이마니시 류(今西 龍)는 이 낭자들이 유녀(遊女)임에 틀림없다고 하였으니⁹⁹⁾ 당시 그

개성 4년(839) 4월 20일, 廿日早朝 新羅人乘小船來 便問張寶高 與新羅王子同心罰得新羅國 便令其王子作新羅國王(子) 既了.

94) 『行記』권1, 개성 4년(839) 4월 5일, 請益僧惟正 惟曉水手丁雄万四人 下船留住岸上…有一船到泊船處 拾有余人 下可停住從船處來問僧等在此之由…船人等云…向楚州去本是新羅人….

95) 『行記』권4, 會昌 7년(847) 閏 3월 17일, 十七日朝 密州 諸城縣界大珠山駁馬浦 遇新羅人陳忠船載炭 欲往楚州商量船脚 備絹五疋定.

96) 『行記』권4, 會昌 7년(847) 6월 18일, 十八日晚際 乘楚州新羅坊王可昌船 三更發.

97) 『行記』권4, 會昌 7년(847) 6월 27일, 廿七日 修書付崔家船 報楚州劉德管訖 更雇船主王可昌船 望乳山去.

98) 『行記』권2, 개성 4년(839) 4월 26일, 已時到乳山西浦 泊船停住…未時新羅人卅余 騎馬乘驢來云 押衙潮落擬來相看 所以先來候迎…不久之間 押衙駕新羅船來 下船登岸 多有娘子

곳 신라인 사회를 잘못 이해한데서 온 결과라고 생각된다. ‘기마승로(騎馬乘驢)’하여 온 30여 명의 신라인과 많은 ‘낭자’는 압야를 마중하러 온 그곳 또는 인근의 거주자들이다. 엔닌은 일기에서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어제 여산에서 왔습니다. 일본국 조공사선 9척이 모두 여산에 도착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과 물품은 손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¹⁰⁰⁾라고 전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당주군사압야’, ‘구당신라소압야’인 신라인 ‘장영’을 마중하러 온 사람들이다. 장영의 관할 하에 있던 이곳 주민들로서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또한 유산은 당나라의 정삭(正朔)을 받는 주변나라의 국왕이나 추장이 죽거나 왕위를 계승할 경우 이를 공인하는 의미에서 당의 국사를 파견한 곳이기도 하였다. 적산포에 뒤지지 않는 큰 항포였음을 짐작케 한다.¹⁰¹⁾

엔닌은 적산원에서 장보고가 파견한 교관선 2척이 적산포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는다.¹⁰²⁾ 이 무역선은 ‘대당매물사(大唐賣物使)’ 선박으로 그의 휘하의 최훈 ‘병마사’가 지휘하고 있었다. 최병마사는 적산포에서 양주에 이르는 연해안과 운하를 왕래하면서 교역 활동을 전개한 중국무역의 책임자이기도 하였다.¹⁰³⁾ 엔닌은 귀국할 때의 제반사를 최훈에 부탁하고 귀국

99) 今西龍, 『慈覺大師入唐求法巡禮行記를讀みて』, 『新羅史研究』, 京城, 1933.

100) 『行記』권2, 개성 4년(839) 4월 26日, 就中有一百姓云 昨日從廬山來 見本國朝貢使船九隻 俱到廬山人物無損.

101) 『行記』권4, 회창 7년(847) 閏 3월 10日, 閏三月十日 聞入新羅告哀兼弔祭冊立等副使試太子通事舍人賜緋魚袋 金間中判官王朴等 到當州牟平縣南界乳亂山浦 上船過海.

102) 『行記』권2, 개성 4년(839) 6월 27日, 廿七日 聞張大使交關船二隻 到赤山浦.

시기를 매우 낙관적으로 ‘내년 가을경’으로 잡고 있었다. 그만큼 적산포에 교관선의 출입이 빈번하였음을 시사해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신무왕이 즉위하자 치청절도사 관아의 오병마사를 책봉사로 파견하고 그들이 출항한 곳도 바로 적산포(赤山浦)였다.¹⁰⁴⁾ 뿐만 아니라 일본 조공사 일행의 귀국이며 후일 엔닌 자신도 이곳에서 출발하여 귀국하였다.¹⁰⁵⁾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산포는 장보고의 대당무역거점이며, 당·일 간을 이어주는 가장 안전하고도 중요한 항로의 종착항이었고 중원과 운하를 나아가는 시발점으로 외교사절이 왕래하던 항포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적산촌을 중심으로 한 인근에는 많은 신라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것은 법화원의 겨울철 법화경 강회의 마지막 2일간에 모였던 신도들의 수가 250명과 200명이었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엔닌은 적산촌 사람들의 추석 경축행사를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많은 음식을 마련하고 가무와 음악을 연주하며 밤낮으로 이어져 사흘만에야 끝이 났다. 지금 이 사원에서도 고국을 그리워하며 오늘 가을의 축하행사를 마련하였다.”¹⁰⁶⁾

3일간 밤낮으로 계속된 이 행사에는 적산촌 신라인뿐만 아

103) 『行記』권2, 개성 5년(840) 2월 15日, 十五日 聞崔押衙船從揚州來 在乳山浦

104) 주24 참조; 『行記』권2, 개성 4년(839) 6월 28日, 廿八日 唐天子差入新羅慰問新即位王之事 靑州兵馬使吳子陳 崔副使 王判官等 州余人等來.

105) 同上 7월 21일, 廿一日申時 本國相公已下九隻船來泊此赤山浦 卽遣惟正起居相公 ; 廿三日早朝山頭望見泊船處 九隻船并不見 便知夜頭同發 ; 同上 권4, 회창 4년(847) 9월 2일, 九月二日午時 從赤山浦渡海 出赤山莫瑯口 向正東行 一日一夜.

106) 同上 8월 15일, 十五日 寺家設餽餽餅食等 作八月十五日之節 … 設百種飲食 歌舞管絃以畫續夜 三個月便休 今此山院 追慕鄉國 今日作節….

나라 인근지역의 신라인 모두가 이 행사에 참가한 것 같다. 신라인 사회의 광대함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항해술은 조선술의 발전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신라시대의 조선 기술을 알 수 있는 기록은 거의 없다. 『삼국사기』에는 해사에 관한 기록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의 선형이나 구조에 관한 기록은 없다. 다만 후대의 서적들에 당시 선박의 규모·형체에 관한 기록이 있어 중국·일본 등의 사료와 함께 검토하여 신라시대의 배 모양을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경남 울주의 반구대는 태화강 중류에 위치하여 배로 동해에 나갈 수 있는 곳에 있다. 청동기 시대의 암각화에는 당시 바다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음각하였으며 ‘외양선’ 모양의 배 그림이 보인다.¹⁰⁷⁾ 삼국시대 신라·가야에서 각대가 달린 배 모양의 토기가 수점 출토되었다. 경주 금령총, 경북 달성군 현풍 등지에서 출토된 배 모양의 토기가 곧 그것이다. 이것들은 거의 5~6세기의 것이며 출토지역도 신라·가야에 한정된 것이다. 1976년 경주 안압지에서 발굴된 통나무배로서도 신라 선체의 구조를 알기에는 미흡하다.¹⁰⁸⁾ 1984년 봄에 완도 어두리(漁頭里) 해저에서 발견된 고선체는 신라 선박의 모양을 추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던져준다.¹⁰⁹⁾ 인양된 선체는 11세기 고려 초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근해연안 왕래에 적합한 전통적 ‘한선구조방식’의 평저구조 너벽선이다.¹¹⁰⁾

107) 김원룡, 『한국고고학보 9』, 『울주 반구대암각화에 대하여』, 1980, p.7.

108) 『안압지 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78, p.258.

109) 『완도해저유물』, 문화재관리국, 1985, p.109.

110) 김재근, 『장보고시대의 무역선과 그 항로』, 『장보고의 신연구』, 완도문화원,

1960년 3월 당대의 양주(揚州) 양자현(揚子縣, 지금 邗江縣 施橋)에서 대형 평저목선(平底木船, 길이 24m, 너비 4.3m, 깊이 14.3m)과 배 바닥이 둥글고 좁은 원저목선(圓低木船, 길이 13.65m, 너비 0.75m, 깊이 0.56m)이 발굴되었다.¹¹¹⁾ 큰 배는 장부를 맞추고 못을 박는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졌고 이미 침몰 방지의 성능이 강한 방수선실 기술이 시공되어 있었다. 1973년 6월 당대의 양주 해릉현 여고진굴항(海陵縣 如臯鎮掘港) 부근에서 인양된 당초기의 목선(길이 17.32m, 너비 2.58m, 깊이 1.6m)도 방두(方頭)·방소(方艚)·평저(平底)형으로 전자와 같은 기술로 만들어졌다.¹¹²⁾ 중국을 비롯한 동양 고대선의 모양은 일반적으로 방두 방소 편저 모양이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지만, 시교에서 발견된 ‘원저목선’처럼 당대에 이미 평저선보다 원양향해에 더욱 편리한 ‘저원면고선(底圓面高船)’도 건조되고 있었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당대에는 조선기술이 크게 발달하여 전국의 항포에는 크고 작은 배들이 드나들며 교역에 종사하고 있었다. 『구당서』 최융(崔融, 653~673)전에 보면 “천하의 여러 나루터로 향해하여 모여든 배들은 파(巴)·한(漢)과 통운하고 민(閩)·월(越)로 나아간다. 택(澤)·수(蘆)·강(江)·호(湖)는 하락(河洛)으로 통하니 회해(淮海)로 나아간다. 천만척의 큰 배들이 밤낮으로 교역한다.”고 하였다.¹¹³⁾ 이미 당초에는 수운이 크게 열려 교역이

1985, p.147.

111) 『文物』, 『揚州施橋發見了古代木船』, 강소성문물공작대, 1961~1966, p.52.

112) 『文物』, 『여고발견적당대목선』, 남경박물관, 1974~1975, p.84.

113) 『구당서』권94, 列傳 44, 且如天下渚津 舟航所聚 旁通巴漢 前指閩越 七澤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나라의 연해·하천·운하변의 중요한 항포에는 조선소와 선박수리소가 널리 퍼져있었을 것이며, 양주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당어림(唐語林)』에는 대종(代宗, 763~779) 때의 염철·전운사(塩鐵·轉運使)이던 유안(劉晏, 715~780)이 처음 선박 건조를 계획하고 한 척당 백만 전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양주에만 10개의 조선소를 건설하고 10명의 전문 관리인을 두었다.¹¹⁴⁾ 당대 양주의 조선소·선박수리소는 양자현, 곧 지금의 강소성 의정(江蘇, 儀征)에 집중되어 있었다. 당대의 이곳은 양주부는 물론 장강과 운하가 합류하는 곳이었다. 조선소의 바로 인근인 시교에서 발굴된 당대선박도 이 조선소에서 만들어지고 수리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양주를 거점으로 무역활동을 하였던 신라 해상들의 파손된 선박도 양자현 조선소에서 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초주는 조운의 중심지였으므로 해상 운수업을 생업으로 하는 많은 신라인이 살고 있었으므로 신라인들의 조선소와 선박수리소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신라역어 김정남은 일본 조공사의 귀주선 9척을 그곳에서 구입하고 그 배를 수리하였다고 한다. 동해 연해안을 따라 북상하던 일본 사절단의 신라인 선원들은 지금의 청도 서남쪽 해안에 이르자 “이곳에서 북쪽으로 하루를 더 가면 밀주(密州) 관하의 동해안에 대주산(大珠山)이

藪 三江五湖控引河洛 兼包淮海 弘綱巨艦 千軸万艘 交易往還 味且永日.

114) 『唐語林』 권1 政事上, 晏初 議造船 每一船 用錢百万…乃置十場於揚子縣 專知官十人 競自營辦.

있습니다. 지금 남풍을 얻으면 다시 그 산에 이르러 배를 수리하고 거기서 곧 바로 바다를 건너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¹¹⁵⁾ 수일간의 풍파로 파괴된 선박의 수리를 밀주의 대주산에서 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대주산 연안에는 그들의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신라인들이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대충 원년(847) 윤 3월 엔닌 일행이 적산포에서 명주로 가던 도중, 대주산 아래의 교마포(駁馬浦)에 도착하여 신라인 진충의 목탄 운송선을 타고 초주까지 갔다.¹¹⁶⁾ 대주산은 산동성 교현(膠縣) 남쪽 120여 리에 있는 산으로 해주의 동해산(東海山), 청도의 노산(嶗山), 등주의 적산(赤山)과 함께 당시 항해 선원들의 들도 없는 길잡이 노릇을 했다. 그러므로 이 해안에는 신라인 무역업자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었다. 지금도 대주산 하의 항포에는 조선소가 있어 옛 정취를 느끼게 한다.

또한 적산포에도 조선소가 있었다. 구당신라소 압아 장영은 엔닌 등을 귀국시키기 위하여 “지난해 겨울부터 배를 만들기 시작하여 금년 2월에 이르러 일을 마쳤다. 오로지 엔닌 등을 실어 떠나보내어 귀국시키고자 함에서였다.”¹¹⁷⁾ 적산포 앞 막야도(莫耶島)에는 야금(冶金)의 전설이 전해온다.¹¹⁸⁾ 오인(吳人) 단공(鍛工) 간장과 막야에 관한 이야기는 『오월춘추(吳越

115) 『行記』권1, 개성 4년(839) 4월 1日, 新羅水手申云 自此北行一日 於密州管下東岸 有大珠山 今得南風更到彼山 修理船 卽從彼山渡海 甚可平善.

116) 주 18) 참조.

117) 『行記』권4, 회창 7년(847) 2月, 張大使 從去年冬造船 至今年二月功畢 專擬載門仁等 發送歸國.

118) 『行記』권2, 개성 4년(839) 6月 29日, 赤山浦東南 涉少有海嶋 與東岸接連 是吳干將作劍處 時喚爲莫耶嶋 但莫耶是嶋之名 干將是鍛工之名.

春秋』, 『등주부지(登州府志)』 등에 나오지만, 두 사람의 작검(作劍)의 이야기는 절강성·강소성 등지에도 전해온다. 사료의 내용을 보아 막야도에는 예로부터 야금소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양자현과 여고진에서 발견된 당대선은 장부를 맞추고 못을 박는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졌고, 이에 침몰방지의 성능이 강한 방수선실 기술이 시공되고 있었다. 당시 신라선은 방수선실, 즉 칸막이(水密隔壁) 기술과 철못으로 건조된 매우 견고한 목선이었을 것이다.

3) 농업 · 제염 · 제탄업(製炭業)

엔닌은 개성 4년(839) 6월 7일 천신만고 끝에 적산촌에 도착한다. 그의 일기에는 “산에는 절이 있는데, 그 이름이 적산법화원이다. 본래 장보고가 처음 세운 것이다. 오랫동안 장전(莊田)을 가지고 있어 식량에 충당하고 있다. 그 장전은 1년에 500석의 곡식을 수확하였다. … 지금은 신라통사 압야 장영, 그리고 임대사 왕훈 등이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¹¹⁹⁾ 원래 장전은 별장을 교외 넓은 땅에 마련하고 전원(田園)을 둔 것에서 비롯된다. 법화원의 장전은 전지(田地)만을 말하고 있는 듯한데, 당대에는 사찰이 많은 장전을 가지고 있었다. 장전은 승려들의 수전(授田)과 신도들에 의한 전지의 회사 등으로 이루어진다.¹²⁰⁾ 법화원의 장전은 장보고의 보시에 의한 것이

119) 『行記』권2, 개성 4년(839) 6월 7일.

다. 이 사원은 연 500석의 알곡식을 수확하였다고 하니 대단히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다. 사원 장전의 경작은 소작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대는 소작인들을 장객(莊客)이라 하며 이들은 장조(莊租)·장과(莊課)라고 하는 소작료를 지주에서 납입하였다. 당대의 소작료는 확실치는 않지만 경기지역의 상전(上田)의 경우 1무당 미(米) 1석이고 중전(中田)의 경우는 1무당 0.5석이었다.¹²¹⁾ 이 비율로 경기지방의 보통의 땅인 중전의 평년 수확을 기준으로 하여 법화원의 소작인이 소작료를 납입한다고 한다면 장전의 넓이는 족히 1,000무가 되는 셈이다.

나대경(羅大經)의 『학림옥로(鶴林玉露)』권7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¹²²⁾ 법화원은 광대한 전지를 이국땅에서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후일 엔닌이 귀국할 때 법화원의 사장(寺莊)에 머물렀던 것을 보면¹²³⁾ 이 장전은 신라인들에 의하여 경작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엔닌은 처음 적산 법화원에 머물렀던 839년 11월 1일에 신라인 왕장문(王長文)의 초청에 응하여 그의 집에서 제를 들고 점심을 마친 뒤 몇 명의 스님과 함께 사원의 장원(莊園)에 가서 하룻밤을 지냈다.¹²⁴⁾ 이

120) 『唐六典』권3 戶部, 凡道士給田三十畝女冠二十畝 僧尼亦如之.

121) 『陸宣公奏議』권15 均節條賦稅恤百姓, 今京畿之內 每田一畝 官稅五升 而私家收租 殆有畝至一石者 是二十倍於官稅也 降及中等 租猶半之 是十倍於官稅也.

122) 加藤 繁, 『支那經濟史考證』上卷 pp.238~239, 百畝之收 平歲米五十石 上熟之歲 爲米百石.

123) 『行記』권4, 會昌 4년(845) 9월 22日, 本意擬住赤山院 緣州縣准勅毀折 盡無房舍可居 大使處分於寺莊中一房安置 飯食大使供也.

124) 『行記』권2, 개성 4년(839) 11월 1日, 十一月一日 赴新羅人王長文請 到彼宅

‘사원장’도 적산법화원의 ‘사장’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며, 왕장문은 이 사장의 관리인으로 생각된다. 당대 ‘장(莊)·별서(別墅)’에는 장리(莊吏)·별서리(別墅吏)라고 하는 관리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 왕장문도 그러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모를 일이다.¹²⁵⁾

당 중기 이후에는 균전제도의 붕괴로 사원소유의 장전이 점점 많아졌다. 엔닌은 오대산을 행하던 도중 장백산(長白山)의 예천사(醴泉寺)에 머문다. 이 사원에도 15개소의 장정을 소유하고 있었다.¹²⁶⁾ 사원이 광대한 장전을 소유하고 있었던 예는 매거하기에 힘들지 않다. 당 무종(武宗) 회창 5년(845) 8월의 폐불령 내용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천하의 4,600여 사원을 파괴하고 환속된 승니 26만 500명이 양세호에 충당되었다. 초제(招提)·난야(蘭若) 4만 여소가 허물어졌고 비옥한 상전 수천만 경이 몰수되었으며 노비를 몰수하여 양세호를 삼은 수가 15만 명이 되었다.”¹²⁷⁾ 환수된 기름진 상전만 해도 수천만 경이나 되었으니 사원장전이 얼마나 광대했던가를 알 만하다.

엔닌은 유산포에서 ‘말과 노새를 타고 온 신라인 30여 명’과 많은 ‘낭자(娘子)’들을 보았다.¹²⁸⁾ 유산포 일대는 넓은 들이 있

裏喫齋 齊後共數僧到寺院莊宿一宵.

125) 『唐語林』권2, 鄭光 宣宗之舅 別墅吏頗恣橫 爲里中患 積歲徵租不入…上曰卿禁鄭光莊使何罪 (韋)澳具奏之.

126) 『行記』권2, 개성 5년(840) 4월 6日, 六日…方得到醴泉寺菓園 喫茶 向南更行二里 到醴泉寺斷中…寺莊園十五所于今不少.

127) 『旧唐書』권18 상, 武宗本紀, 八月制…其天下所折寺四千六百余所 還俗僧尼二十六萬五百人收充兩稅戶 折招堤蘭若四萬余所 收膏腴上田數千萬頃 收奴婢爲兩稅戶十五萬人.

128) 『行記』권2, 개성 4년(839) 4월 26日.

어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농경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람도 많았다. 말과 노새를 타고 왔다는 사실은 포구 인근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왔음을 시사해 준다. 엔닌 일행은 유산포 인근 서남쪽 해안의 소촌포(邵村浦)에서 바다 건널 양식을 구당(句當) 왕훈의 집에서 구입하였다.¹²⁹⁾ 유산포에서 소촌포 일원은 들이 넓고 농경민도 많았으며 수확고도 높았던 것 같다. ‘바다건널 양식’이 적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촌장 왕훈도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의 영향력도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엔닌이 유당 가능성을 물었을 때의 답변에서도 자신만만한 어투였다. 그는 적산법화원의 관리인 3인 가운데 한 사람임을 익히 아는 바이다. 이 당시 재당신라인 가운데는 농업에 전념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만 근해 해양업을 하면서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의 농수산을 겸한 연해안 사람들의 생업과 별다른 것이 없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숙성촌(宿城村, 海州 東海縣)은 바다에 임한 마을로 이곳 신라인들은 주로 염 생산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 같다. 엔닌은 이 마을을 지나면서 주변에 ‘취염처(取鹽處, 염전)’가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¹³⁰⁾ 그 염전은 지금도 소금을 산출하고 있다. 논밭하나 없고 마을에 노·마 한 필도 빌릴 수 없는 것으로 보아¹³¹⁾ 농경생활과는 관계없던 촌락임이 분명하다. 연옹항 시박

129) 同上 5월 1일, 五月一日 遣買過海糧於村句當王訓之家 兼問留王此村之事 王訓等云 如要住者我專句當 和尚更子用歸本國云云.

130) 同上 6월 7일, 七日卯時 …天暗雲氣 從山裏行 越兩重石山 涉取塩處 泥深路遠.

물관장을 지낸 유홍석(劉洪石) 씨는 숙성촌 인근 2km 지점에 있는 산봉우리를 주민들은 ‘소문정(蘇文頂)’이라 부른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아래쪽 산마루에 고려관이 있었고 도기 파편도 발견되었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숙성촌은 오랜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주해 와서 삶을 영위해 가던 곳이라 짐작해 볼만 하다. 지금은 저수지 속으로 잠겨버린 법기사(法基寺) 사지 주변에는 오래된 당대의 맷돌들이 흩어져 있다. 수많은 신라인들의 역사가 모두 물속으로 잠적해 버린 것만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한량없다.

밀주의 연안 대주산(大珠山) 일대는 산림이 울창하여 조선과 선박수리는 물론 목탄 생산도 활발히 이루어진 듯하다. 엔닌 일행이 숙성촌 연안에서 만났던 신라인들도 밀주에서 초주로 목탄을 수송해 가던 사람들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중원년(847) 윤3월 엔닌은 적산촌에서 명주로 가던 도중 대주산 교마포에 도착하여 신라인 진충(陳忠)의 목탄수송선을 타고 초주까지 여행하였다. 대주산 교마포 인근의 신라인 촌락의 성격을 웅변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선·선박수리업에 종사했으리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보아본 바이지만 이곳 신라인들은 목탄 생산업, 운송업, 상업 등에 종사했던 것도 분명하다.

밀주 대주산 일대에서 생산된 목탄은 교마포 등 항포에서 초주로 운송되어 인근지역의 시장으로 판매되었을 것이고 서로는 와하(渦河)·변하(汧河)를 거슬러 올라가서 중원으로도

131) 同上 4월 6일, 子巡將張亮云 今差夫一人 將和尚隨身衣服到第二船處 到山南 卽覓驢馱去 在此无處借賃驢馬者.

판매시장을 넓혀갔을 것이다. 당시 신라인이 만들고 운반하여 판매한 목탄은 “당의 동해지역과 심지어 양경(兩京, 長安, 洛陽)의 시장까지 점거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목탄은 잘타고 연기가 없어 부잣집의 찻물이나 연회 음식을 만드는데 최고로 좋은 연료였을 뿐만 아니라 겨울에 난방으로 제일 좋은 연료였기 때문이다.”¹³²⁾ 근대까지 회남·북 중심의 회양(淮陽)은 목탄의 집산지이다. 이는 신라목탄시장을 계승해 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132) 朱江, 『統一新羅時代海外交通術要』, 孫寶基編, 『張保臯와 淸海鎮』, 혜안, 1996. p.139.

4. 무역상의 신앙

1) 교역선과 불교

당대 불교가 크게 융성하면서 주변 여러 나라로 수용되어갔다. 바다를 통한 불교의 유포는 해상무역의 발달과 크게 관계된다. 사원의 융성은 해상들의 신앙심과 그들의 경제력과도 깊은 관계를 가진다.

9세기에 접어들면서 신라의 해상활동은 발해·황해·동중국해·남중국해·동해 등 넓은 해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들은 신라·당·일본 3국간을 항해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교역권을 형성하고 그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남·북연해안의 여러 항포와 운하의 수송업에도 종사하면서 당시의 국제 교역상품 유통에도 앞장섰다. 당시 산둥과 양절(兩浙)에는 동북아시아의 무역선들이 모여들던 곳이며, 양절과 북진·광주에는 이슬람제국과 남해의 상박(商舶)들이 집결하는 지역이었다. 신라해상들도 이 지역을 왕래하면서 남해 상인들과 페르시아·아랍 해상들과도 교역하였다. 광대한 해역을 항해하면서 빈번한 해난사고에 접하게 되었다. 당시의 조선술이나 항해기술이 발달하기는 하였으나 벽력(霹靂)·풍도(風濤)·표익(漂溺)에 의한 해난은 당시의 지식이나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자연의 힘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옛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의 위력을 풍신·해신 등의 노여움과 빌미(祟)라고 생각했다. 곧, 해난에 대한 두려움을 그대로 신령에 대한 공포로 나타냈다. 사람들은 항해의 안전을 얻기 위해 해난과 관계있는 많은 신령을 성심

껏 봉제(奉祭)하여 그들의 노여움을 풀고 빌미를 피하여 보호를 받으려고 애써왔다. 물론 나라와 지역 그리고 신령의 성격에 따라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봉제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엔닌은 그의 일기에 그들의 해난진호와 관련된 자국신을 비롯하여 불·보살과 중국의 토지신·신라의 토신 등 해난을 물리칠 수 있는 많은 신을 선상과 육지에서 성심껏 봉제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조공사선이 일본을 출발하자 곧 대사 후지하라노 쓰네쥬쿠(藤原常嗣)는 화사에게 관세음보살을 그리게 하였고 청익(請益)·유학(留學) 법사 등도 함께 불경을 읽고 항해의 무사 평안을 빌었다.¹³³⁾ 그가 탄 배가 굴항 인근에서 심한 풍파를 만나 모래위에 얹혀 침몰직전에 이르렀다. 파도가 배를 휩쓸어가기로 수없이 하였을 때에 배에 탄 사람 중에는 부처님과 신에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¹³⁴⁾

7월 2일조에도 풍랑이 사나워서 배가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듯하였다. 겁이 나서 닻돌과 물건들을 배 밖으로 던져버렸으며 입으로는 관음보살과 묘견보살을 칭송하면서 마음속으로 살 길을 구하였다.¹³⁵⁾ 조공사 일행은 입당선상에서도 관음보살상을 그리고 독경·서원하며 풍랑으로 표류하자 관음묘견보살을 칭명 기도하였다. 귀국길에 오른 조공사 일행은 다음해(839) 3월 22일 초주를 떠나면서 배위에서 수미요시 오오가미(住吉大

133) 『行記』권1, 개성 3년(838) 6월 24일, …大使始畫觀音菩薩 請益留學法師等 相共讀經誓祈…

134) 『行記』권1, 개성 3년(838) 6월 28일, 洗流船上 不可勝計 船上一衆 憑歸佛神 莫不誓祈.

135) 同上, 7월 2일, …漂流之間 風强濤猛 怕船將沈 捨釘擲物 口稱觀音妙見 意求活路…

神)¹³⁶⁾에게 재액 제거를 비는 제사를 지냈고 28일에는 순풍을 얻기 위하여 수미요시 오오가미에게 봉제하였다.¹³⁷⁾ 3월 29일 사신 일행의 배는 동해현 동해산의 동쪽 작은 포구에 정박하였으나 남풍이 세차게 불었으므로 배의 요동이 심하여 꼼짝할 수 없었다. 다음날 2시경 대사이하 모두 물에 올라 천신과 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¹³⁸⁾

일본 조공사 일행은 물론 엔닌의 항해 안전을 위하여 봉제한 것에서 처절한 감이 든다. 배가 모평현 당양(唐陽) 도촌의 남쪽해안에 정박하고 있을 때 그는 복부(卜部)¹³⁹⁾로 하여금 신들에게 기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미요시 신에게는 화주(火珠)를 올리고 해룡왕에게는 수정 염주 한 꿩미를 보시하였으며 주박지신(主舶之神)에게는 머리깎는 칼 한 자루를 시주하여 편안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¹⁴⁰⁾ 엔닌이 탄 배는 유산에서 적산포에 이르는 바닷길을 무려 한 달 열흘이나 소요하고 있다. 얼마나 고난의 길이었는지 짐작이 간다. 이들은 항해 중에도 때때로 천신지기(天神地祇)에게 제사지내고

136) 오오사카에[大阪市 住吉區 住吉町] 진좌하면서 국토 수호와 항해의 안전을 관장하는 신. 특히 해상에서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믿었다. 신사는 대개 해변에 세워져 있다.

137) 『行記』권1, 개성 4년(839) 3월 22일, 巳時 解除上船 祭住吉大神; 同上 28일, 巳時 爲得順風 祭住吉大神.

138) 『行記』 同上 4월 1일, 未時 節下以下 登陸岸 祀祠天神地祇.

139) 일본 조공사선에는 음양사·주신(主神)과 함께 복부도 승선한다. 복부는 신기관(神祇官)에 예속되었다. 복부에는 이끼(壹岐)·스시마(對馬島) 출신자가 많아 복점도 한반도에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延喜式』권3)

140) 同上 4월 18일, 請益僧 爲早到本國 遂果近年所發諸願 令卜部祈禱神等 火珠一箇 祭施於住吉大神 水精念珠一串 施於海龍王 剃刀一柄 施於主舶之神 以祈平歸本國.

또한 수미요시 오오가미에게도 봉제 보시하였다. 조공사 일행은 유산포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에 선상에서 제를 올리고 비단과 거울 등을 보시하였다.¹⁴¹⁾ 폭풍과 천둥이 심한 계절이라서 항해자의 공포는 극에 달하였을 것이다. 엔닌은 5월 19일 일기에서 그 당시의 상황과 선원들의 심리 상태를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새벽 2시에 이를 즈음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많은 비가 오고 세찬 바람이 불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었다. 배를 매어둔 밧줄은 모두 끊어져서 배는 곧 떠내려갔다. … 밧머리에 모셔둔 신전의 지붕 판자는 큰 바람 때문에 떨어져 날아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자제하지 못하였다.”¹⁴²⁾ 이러한 일이 계속되더니 5월 27일 날이 밝을 무렵 벼락이 떨어져 돛대가 부러지면서 선미의 갑판이 쪼개져 비스듬히 어그러져 나갔다. 두려움에 당황한 선원들은 흩어져 있는 조각을 한곳에 모아 배의 모서리에 묶어두고 폐백(幣帛)으로 제사를 올리고 “본국에 무사히 도착하는 날에는 오로지 신사를 세워 오래도록 제사지내는 곳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였다.¹⁴³⁾ 놀라운 것은 낙뢰의 원인을 밝히는데 거북이 등뼈를 태워 재앙을 점친 사실이다. 지난 5월 22일 사망한 복부를 ‘이곳신(當處神)’ 앞에 장사지냈기 때문에 ‘이곳신’의 분노를 사서 이와 같은 재앙이 일어났다고 생각하

141) 『行記』권1, 개성 4년(839) 5월 2일, 二日西風吹 …日沒之時 於船上 祭天神 地祇 亦官私絹纒縹鏡 奉上於船上住吉大神

142) 同上, 5월 19일, 十九日夜 比至丑時 雷鳴電耀洪雨大風 不可相當 纒纒悉斷 船卽流出 … 舳頭神殿 蓋葦之板 爲大風吹落 不見所在 人人戰怕 不能自抑.

143) 同上, 5월 27일, 採集一處 繫著於船角之上 兼祭幣帛 到本國之日 專建神社 永充祭祀云云…

였다. 이에 상도(桑島)에 제를 올려 신의 분노를 풀어주었다.¹⁴⁴⁾

이와 같이 당시의 항해자들은 자국신(自國神)은 물론 풍신·벽력신·해신·그곳신(當處神)까지도 봉제하였으며, 또한 항해를 불안하게 하는 징조가 보이기만 해도 선박의 운항을 중지하고 뭇신들에게 제를 올려 빌기도 했다. 6월 5일 조공사 선박은 적산포에 도착하기 직전에 “뚝을 내리는 동안 검은 새가 날아와서 배를 세 번 돌더니 섬으로 돌아가 앉았다. 사람들이 놀라 괴이하게 여기고 모두 말하기를 ‘이는 신령이 배가 들어와서 정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배를 돌려 나와서 산에서 조금 떨어진 먼 곳에 닻을 내리고 바다에 정박하자 북쪽에서 천둥소리가 나고 구름을 몰려오면서 천둥소리가 들려왔다. 선상 관인들의 두려움 더욱 심하였는데, 바다신이 노여움을 풀지 않았는지를 거듭 의심하면서 함께 발원하고 신의 분노가 풀리기를 빌었다. 전날 배에 떨어진 낙뢰로 뇌신(雷神)에게 제사를 올리고 선상의 수미요시 오오가미에게 제사를 지냈다. 또한 본국의 하찌만신(八幡神) 등 오오가미(大神)와 해룡왕 그리고 등주의 여러 산신(山神)과 섬의 신(島神) 등에게도 각각 빌었다. 천둥이 겨우 멈추었다.”¹⁴⁵⁾

9월 2일 정오 무렵 귀국길에 오른 엔닌 일행은 4일 날이 밝

144) 同上, …燒龜甲占 其崇舩船上卜部諸公 葬於當處神前 所以得神嗔怒 作此禍災… 仍於桑島解除 又於船上 祭當處神.

145) 同上, 6월 5일, …下帆之會 黑鳥飛來 逸舩三廻 還居嶋山 衆人驚怪 皆謂是神靈 不交入泊 廻泊却出 去山稍遠 繫居海中 北方有雷聲 掣雲鳴來 船上官人 驚怕殊甚 猶疑冥神 不和之相 同共發願 兼解除 祈禱船上霹靂神 又祭船上住吉大神 又爲本國八幡等大神 及海龍王 并登州諸山嶋神等 各發誓願 雷鳴漸止…

을 즈음 멀리 ‘신라국의 서부 웅주(熊州, 공주)의 서쪽 땅’을 바라볼 수 있었다. 밤 10시경에는 고이도(高移島, 신안군 荷衣島)에 정박하고 6일 황모도(黃茅島, 거차군도의 섬)에 닿을 내렸다. 이들은 6명의 쓰시마(對馬島) 백성이 낚시를 하다가 표류하여 이곳에서 잡혀 무주에 감금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 떠나려 했으나 바람이 없어 출발할 수 없었다. 이에 뱃사람들은 거울 등을 바치며 신에게 제사지내고 바람을 구하였다. 승려들은 향을 피우고 섬의 토지신과 대인신(大人神), 소인신(小人神)¹⁴⁶⁾ 등에게 염송하고 다 같이 본국에 갈 수 있도록 기원하여 『금강경』 100권을 전독(轉讀)하였다.¹⁴⁷⁾

『행기』에는 해룡왕이 해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깊은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사실을 많이 전해준다. 엔닌이 제2박을 타기 위하여 숙성촌을 출발하여 839년 4월 8일 동해현 현청 소재지에 도착하였다. 압하는 “이 현성은 동쪽 해안에 있고 주(해주부)는 서쪽 해안에 있습니다. 요시미네 관관(良岑長松, 제2박의 선장)은 병으로 배를 타지 못했습니다. 이작은 만의 서쪽 해안에 해룡왕묘(海龍王廟)가 있습니다. 요시미네 관관은 지금 묘안에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요시미네 관관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만나보게 할까 합니다.”라고 하였다.¹⁴⁸⁾ 해룡왕이 신

146) 일본에서는 대명신(大明神)·소명신(小明神)이라 한다. 여기에서는 신라 고유의 신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47) 同上, 권4, 회창 7년(847) 9월 8일, 八日 聞惡消息 異常驚怕 無風發不得 船衆捨鏡等 祭神求風 僧等燒香 爲當嶋土地及大人小人神等念誦 祈願平等得到本國 卽在彼處 爲此土地及大人小人神等 轉金剛經百卷.

148) 同上, 권1, 개성 4년(839) 4월 8일, 八日…押衙善此縣是東岸 州在西岸 良判官緣病未上舶船 從此小海西岸 有海龍王廟 良判官只今於此廟裏安置 今擬往

양의 대상으로 항포의 묘에 모셔져 해상의 안전은 물론 선원의 구제시설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교 경전에서는 여러 용의 으뜸을 용왕 또는 용신이라 부르고 있다. 용왕은 팔부중(八部衆)의 하나로서 불법을 수호하고 그 영험은 매우 크다고 하였다. 이에 서진(西晉)의 축법호(竺法護)의 번역이라 전하는 해룡왕경(海龍王經)이 많이 읽혀졌다. 그런데 묘(廟)에 봉안된 것으로 보면 해룡왕묘는 도교와 불교가 습합된 것이라 생각된다.

14일조에는 바람을 얻기 위하여 ‘관정경(灌頂經)을 읽고 오곡 공양을 마련하여 오방(五方)의 용왕에게 제사지내고 경과 다라니(多羅尼)를 염송’하였다고 한다.¹⁴⁹⁾ 다음날에도 오곡 공양의 제를 올리고 『반야경』과 『관정경』 등을 독송하면서 신에게 빌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순풍이 불기를 기원하고 있다.¹⁵⁰⁾ 5월 6일에는 법상종(法相宗)의 청익승 가이묘법사(戒明法師)가 주관하여 또다시 오방용왕에게 제를 올렸는데,¹⁵¹⁾ 순풍을 얻기 위하여 3일 동안 전경을 하였다.¹⁵²⁾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당시의 해상생활자와 항해자들은 여러 신들에 대하여 다양하고 독

彼良判官處.

149) 同上, 권1, 개성 4년(839) 4월 14일, 十四日平明… 戌時爲得順風 依灌頂經 設五穀供 祠五方龍王 誦經及多羅尼.

150) 同上, 권1, 개성 4년(839) 4월 15일, 十五日…船上官人 爲息逆風 同共發願 祈乞順風 …入夜祭五穀供 誦般若灌頂等經 祈神歸佛乞順風.

151) 同上, 권2, 개성 4년(839) 5월 6일, …更登陸岸 著幕排比修法之事 晚頭祭五方龍王 戒明法師句當其事.

152) 同上, 권2, 개성 4년(839) 5월 9일, 九日 早朝轉經事畢.

실한 봉제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불교가 수용되고 민중 세계에 뿌리내리게 되자 해난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신들의 폭위를 제압할 수 있는 큰 힘은 불력(佛力)이라 믿게 되었고 해룡왕도 불교에 섭복(懾服)·포섭되어갔다. 일본 조공사선의 스님들이 독경·전경·송경하고 해룡왕의 제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보아 이때의 불교는 이미 해룡신앙을 포용하고 해룡을 부처에 봉사하는 호법왕으로 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오대사(舊五代史)』 사도후(司徒詡) 열전에는 후한(後漢)의 건우연간(乾祐, 948~950)에 오월에서 사행한 사도후가 흑조가 흐르는 먼 바다에서 용왕에게 바치는 불서함 1개를 바다에 던졌더니 관현악(絲竹之音)의 범패로 이 경함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¹⁵³⁾ 용왕이 불교에 섭복하는 형태로 습합되었음을 보여준다. 엔닌은 귀국한 그해 12월 2일 신라 가와라묘진(香春明神)¹⁵⁴⁾을 위하여 금강경 1,000권을 전독(轉讀)하였다. 이것은 ‘수미요시 오오가미’나 ‘가시이묘진(香椎名神)’ 그리고 ‘지쿠젠 묘진(筑前名神)’을 위하여 전경한 500권의 2배에 달하는 분량이다. 가와라묘진이 신라신이라는 점이 인상적이고 신·불의 습합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153) 『구오대사(舊五代史)』권128, 주서(周書)19, 열전8 司徒詡, 漢乾祐中 嘗使于吳越 航海而往… 當以金篆佛書一帙 用伸贊獻 泊復經其所 遂以經一函投于海中 俄聞梵唄絲竹之音 喧于船下舟人云 此龍王來迎其經矣 同舟百余人 皆聞之 無不嘆訝焉.

154) 지금의 福岡縣 田川郡 香春町 산록에 모셔져있다. 『豊前風土記』에는 ‘신라 국신이 스스로 바다로 건너와 가하라에 머물렀으며, 이름을 가와라신(鹿春神)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또한 『속일본후기』권6, 승화 4년 12월에는 사이 쵸도 입당할 때에 이신에게 도해의 안전을 빌었다. 크게 영험하여 뒤에 관사로 승격되었다.

2) 무역선과 관세음보살 신앙

적산법화원에서는 오랫동안 강경 법회가 행해지고 있었다. 여름철에는 8권 『금강명경(金光明經)』을, 겨울에는 『법화경(法華經)』을 강설하였다고 한다. 본래 강경이란 경전을 강의하고 해석하는 것이며, 출가승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불교의 대중화가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동시에 민중의 교화도 법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법화경이 중국에서 역출된 것은 서진(西晉) 태강 7년(太康, 286)의 일이다. 촉법호(233~310)의 정법화경(正法華經, 10권)이 곧 그것이다. 그 후 후진(後秦)의 구마라습(鳩摩羅什, 350?~409)이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수(隋)의 사나굴다(闍那崛多)가 601년 첨품묘법연화경(添品妙法蓮華經, 7권)을 번역하였다. 법화 강경 의식에서 강사가 창(唱)한 경 제목은 구마라습의 묘법연화경이었다. 당 초에 가장 많이 강·독·송경된 경전은 법화경이며, 반야경·금강경·화엄경·유마경·대지도론 등이 그다음이었다. 개원 이후에는 법화경을 비롯하여 금광명경·인왕경·무량수경 등의 불경이 많이 독송되었다. 『태평광기(太平廣記)』 보응류(報應類)에 나타나 있는 민간 신앙의 설화를 보면 론의 독송은 없�어지고 반야·법화·금광명·무량수·약사 등의 경이 염지(念持)·독송·전사(轉寫)되고 있다.¹⁵⁵⁾

신라에 있어서도 이와 거의 일치한다. 진평왕 9년(587)에 처

155) 김문경, 『唐代的 宗教와 社會』, 숭전대학교 출판부, 1987, pp.156~157.

음으로 송경된 경전 역시 법화경이었으며, 그 횃수도 가장 많았다. 그 후 점차로 성덕왕(聖德王, 702~736)대를 전후하여 화엄·금광명·반야·약사 등의 경이 송경되었다. 신라에서는 인왕경(仁王經)이 가장 많이 강경된 반면, 법화경은 독·송·전경된 것으로는 최상이다.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그의 경명만을 ‘창’하여도 얻어지는 복을 헤아릴 수 없다고 하였으며,¹⁵⁶⁾ 불보살 명호를 찬탄하거나 칭명(稱名)하는 것만으로도 해탈과 결정왕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¹⁵⁷⁾ 더욱이 칭명은 자기 자신의 왕생뿐만 아니라 황으로는 선인(善人)·악인이나 유정(有情)·비정(非情)과도 관계없이, 종으로는 선조로부터 자손에 이르기까지 안락국에 왕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대중은 난해한 교학불교에는 흥미를 잃고 오로지 ‘창경제목(唱經題目)’과 ‘칭탄불보살명(稱歎佛菩薩名)’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현실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정토왕생을 회구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적산법화원에서 거행된 신라송경 의식에서 법화경 제명을 ‘창’하면서 약사여래와 관세음보살이 ‘칭명찬탄’된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정유리광(淨瑠璃光)’ 세계를 살면서 상원을 일으켜 중생을 구제하려는 약사여래와 대자대비로 현세의 고난에서 중생을 벗어나도록 하려는 관세음보살이 찬탄된 것도 불교도와 대중이 무엇을 구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장보고는 적산법화원 이외에도 그의 고향인 청해진과 제주

156) 『법화경』권7, 陀羅尼品 제26.

157) 『법화경』권1, 방편품 제2 ; 권7, 관세음보살 보문품 제25.

도 서귀포 하원동에도 법화원을 세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두 사원에서 어떠한 불교의식이 거행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미타삼존불(阿彌陀三尊佛)이 봉안되어 있었던 것을 보면 관세음보살신앙이 넓게 유포되어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장보고 선단은 물론 재당신라인들의 생업이 거의 바다와 관계가 깊었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의 민장사 항목에는 우금리(禺金里) 보개(寶開)가 배를 타고 장사하러 나간 아들 장춘(長春)의 소식을 알 수 없었는데, 그 어머니가 민장사 관세음보살에 7일 동안 기도를 드린 덕분에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¹⁵⁸⁾ 천보 4년(745) 즈음에는 관세음신앙이 널리 유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상들의 활발한 활약상과 강남지역과의 교역상황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양(梁) 육고(陸杲)가 찬술한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와 당 승상(僧詳)의 『법화전기(法華傳記)』권6 월도인(越道人) 1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백제 사문(沙門) 발정(發正)은 천감(天監, 502~519) 연간에 책상자를 메고 바다를 건너서 스승을 찾아와 도(道)를 배워 매우 의해에 정통하고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고 양나라에 30여년 머물렀다… 발정은 월주(越州)의 관음도량이 있는 산에 관세음도

158) 『삼국유사』권3, 흥법3, 禺金里貧女寶開 有子名長春 從海賈而征 久無音耗 其母就敏藏寺 觀音前克祈七日 而長春忽至 問其由緒 曰海中風飄船壞 同侶皆不免 予乘隻板歸泊吳涯 吳人收之俾耕于野 有異僧如鄉里來 弔慰勤勤 率我同行 吳 至此纔戊初 卽天寶四年乙酉 四月八日也 景德王聞之 施田於寺 又納財弊焉 前有深渠 僧掖我跳之 昏昏間如聞鄉音與哭泣之聲 見之乃已屆此矣 日晡時離

실(觀世音堵室)이 있다고 하여 가보니 거기에는 서까래가 다 삭고 허물어져 담장만 남아 있었다. 일찍이 이 산에 두 도인(道人)이 함께 입산하여 한사람은 화엄경을 읽고 한사람은 법화경을 읽으면서 각기 골짜기 하나씩을 차지하여 도실을 지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독송을 끝내기로 약속하였다. … 그 친구(화엄경송자)가 먼저 화엄경을 암송하니 하나도 빠짐없이 잘 외었다. 다음에 그(법화경암송자)가 암송하게 되었는데 …공중에서 화향(花香)이 비오듯 쏟아져 도실에 가득하고 그 향기는 온 골짜기에 퍼졌으며 상서로운 기운이 하늘에 가득 차서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 항상 나(법화경송자)에게 밥을 가져다주는 한 노인이 있는데…라고 하자 그제야 노인이 관세음보살임을 알고는 곧 오체투지(五體投地)하여 정성스레 예배하고 쳐다보니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서까래는 없어지고 담장만이 남아있었던 곳(관음응험)을 발정은 친히 보았다.

이로 미루어보면 양대(梁代) 월주(절강성 소흥) 지역에는 관세음 신앙이 유포되어 있었고 그것도 법화경과 화엄경에 바탕을 둔 관세음신앙이 뿌리내리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 설화는 중국 월주에서 있었던 관음응험설화에 얽힌 이야기이지만 백제 사문 발정이 직접 보고 전한 것이니, 당시 백제의 관음신앙의 한 면도 엿볼 수 있다. 물론 일반 대중에게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만 어떤 경전에 바탕을 둔 종파적 믿음에는 크게 상과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교학의 발전에서 신앙의 깊이는 더해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관세음보살이 해상생활자의 신앙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법

화경』권7, 관세음보살 보문품(普門品) 제25의 경문에 있다.

만일 백천만 억의 중생이 금·은·유리·자거·마노·산호·호박·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기 위해서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흑풍이 불어서 그 배가 표류하여 멀리 나찰귀(羅刹鬼)의 나라에 떨어지게 되었을 지라도 만일 한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리라.

이는 부처님이 무진의보살(無盡意菩薩)의 물음에 대하여 답한 내용의 한부분이다. 대해에 표류하여 나찰귀의 나라에 떨어지게 될 지경이라도 일심칭명(一心稱名)만 해도 그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과 향해선원은 물론 무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관세음보살 신앙이 크게 유포될 수밖에 없었다.

관세음보살은 대승경전(大乘經典)의 여러 부에 들어있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만큼 널리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항해 수호신으로 관세음보살 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경전은 『화엄경』이다.¹⁵⁹⁾ 동진의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 359~429)가 『화엄경』(60권)을 번역한 해는 418~420년의 일이다. 60화엄경 또는 구역화엄경이라고도 한다.

관세음보살은 곳곳에 샘이 흘러 욕지를 이루고 임목이 울창하여 땅에는 부드러운 풀이 깔려있는 광명산(光明山)에 거하면서 금

159) 『大方廣佛華嚴經, 60권본』, 권51, 入法界品 34-8; 『大方廣佛華嚴經, 80권본』, 권68, 入法界品 39-9.

강보좌에 걸가부좌하고 계시며, 무량의 보살에게 둘러싸여 공경을 받으며 대자대비경을 연설하여 널리 중생을 설화하고 계셨다.

위는 선재동자가 보살행과 보살도를 닦는 방법을 물어보러 오 왔을 때에 적은 내용의 한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보살이 거처하고 있는 곳을 광명산이라 하였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비록 관음신앙을 강조하고 있다하여도 거기에는 관음도량(觀音道場)의 개념이 거의 없다. 다시 말하면 관념적 관음신앙이 그려져 있을 뿐이다. 그런데 60화엄경에 묘사된 관음신앙은 매우 구체적이다. 관세음보살이 머무르고 있는 산이 바로 광명산으로 되어 있다. 이 구체성은 신역 80권본 화엄경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신역화엄경은 당 측천무후(則天武后) 당시인 695~699년에 우전인(于闐人)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가 역출하였다. 법장(法藏, 643~712)·의정(義淨, 635~715) 등 당대의 대덕(大德)들도 참가하여 번역한 이 신역 화엄경에서 비로소 광명산을 보타낙가(補陀洛伽)로 명기하고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의 도량처로 하고 있다. 곧 그 산은 ‘사면의 암곡 가운데를 보면 맑은 물이 흐르고 수림이 울창하고 향기롭고 부드러운 풀이 깔려 있는데, 관자재보살이 금강보석 위에 걸가부좌하고 있는 곳’이다. 구역 화엄경의 광명산이 여기에서는 보타락가산(補陀洛迦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내용은 비슷하다.¹⁶⁰⁾

160) 관세음보살의 상주처를 POTALAKA(補怛洛伽, 補陀洛山, 補旦洛迦) 산이

원래 관세음신앙은 남인도 서해안의 마라바르(Malabar)지역의 마라야아(Malaya, 서Ghats산맥) 산중에 있는 보타라카(Potalaka, 補陀洛迦) 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예로부터 해상교역이 성행하였던 지역이라 이 산은 항해하는 선박의 길잡이가 되기도 했고 항해의 안전을 비는 영산이기도 하였다.¹⁶¹⁾ 관세음보살이 상주하는 정토로서 보타라카신앙이 아시아 여러 곳으로 전파되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 낙산(洛山)을 비롯하여 중국의 보타도(普陀島) 불공거관음(不肯去觀音), 일본의 와카야마현(和歌山縣) 나지산(那智山)의 보타라(補陀洛)와 티베트(Tibet)의 보타라궁전(Potala, 補陀洛) 등이 그러하다. 『법화경』·『화엄경』에 보이는 관세음보살과 해상 생활자와의 관계는 두 경전의 성립기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항해·해상교역자들은 그들의 항해 안전을 기원하는 대상으로 초자연적인 무엇을 찾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화엄경』은 1세기를 전후하여 중앙아시아 교통로에 걸친 코스모폴리탄적인 문화권 속에서 초인도적인 것으로 출현하였다.¹⁶²⁾ 그리하여 항해의 수호신으로 인도에서 발생한 관세음보살 신앙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수용되어 갔다.

『삼국유사』에는 ‘옛날 의상법사가 당나라로부터 처음 돌아왔을 때에 대비의 진신이 이 바닷가의 석굴 속에 머문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이름을 낙산이라 하였다. 대개 서역에 보타낙가산

라고 하였으며, 광명산(60화엄)·백화산(白華山)·소백화(小白華)·소화수(小華樹) 등으로 의역하였다.

161) 松本文三郎, 『觀音の語義と古代印度-支那におけるその信仰について』, 『民族宗教史叢書7, 觀音信仰』, 雄山閣, 1982.; 해상수호신으로서의 관음신앙은 이미 300년경에 인도에서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였다.

162) 中村元, 『華嚴經の思想史的意義』, 『華嚴思想』, pp.127~24.

(補陀洛伽山)이 있으므로 이 산을 소백화라 하였고 또 백의대사(白衣大師)의 진신이 머물던 곳이므로 이와 같이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고 하였다.¹⁶³⁾ 의상대사(625~702)는 이미 관세음보살의 상주처가 보타낙가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의상이 당나라 구법에서 돌아온 것은 671년이며, 보타낙가가 등장하는 신역화엄경이 완역 출간된 것은 699년의 일이다. 의상이 662년 이후 종남산(終南山) 지상사(至相寺)에서 지엄(智嚴)의 문하로 법장(法藏)과 수학하던 당시에는 이미 보타낙가산이 관세음보살의 상주처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 해답은 현장(玄奘, 602~664)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권10에서 찾을 수 있다.

나라의 남쪽 해변에 말자야산(秣刺耶山)이 있고 …산의 동쪽 해변에 포달락가산(布咄洛迦山)이 있다. 산길은 위험하고 암곡은 기울어져 있다. 산정에 못이 있고 그 물은 맑아 거울과 같다. 연못 곁에 돌이 있고 천궁관자재보살(天宮觀自在菩薩)의 왕래하는 곳

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¹⁶⁴⁾ 현장이 16년의 구법 여행에서 장안(長安)으로 돌아온 것은 정관(貞觀) 19년(645) 1월이다. 같은 해 5월 벌써 『대보살경』 20권을 번역하면서 대역경사업이 시작되었다. 곧이어 646년에는 태종의 칙명에 의하여 인도 여행

163) 『삼국유사』권3, 洛山二大聖 觀音正趣調信 昔義相法師 始自唐來還 聞大悲眞身住此海邊堀內 故因名洛山 蓋西域寶陀洛伽山 此云小白華 乃白衣大師眞身住處 故借此名之

164) 『大唐西域記』권10, 秣羅矩吒國, 國南濱海有秣刺耶山 …(山)東有布咄洛迦山 徑危險巖谷鼓傾 山頂有池 其水澄鏡 流出大河 周流繞山 二十匝入南海 池側有石天宮 觀自在菩薩往來遊舍

에서 얻은 견문서 『대당서역기』를 지어 올렸다. 따라서 646년 이후 당나라 불교계에서는 이미 관세음보살과 보타낙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서궁(徐兢, 960~1126)이 지은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의 매잠조(梅岑條)에는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 있다.¹⁶⁵⁾

산록에는 양(梁) 무제(武帝, 502~549)가 세운 보타원(寶陀院)이 있고 그 원중 전각에는 영감스런 관음상이 모셔져 있다. 옛날 신라 상인이 오대산에 가서 그 관음상을 조상하여 배에 싣고 신라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러나 출항하자 곧 좌초하여 배가 나아가지 못하였으므로 그 관음상을 암초에 안치하였다. 상원의 스님 종약(宗岳)이 관음상을 전각으로 모셨다. 이후 바다를 왕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들러서 참배하고 복을 빌었는데, 감응하지 않음이 없었다. 오월국(吳越國, 907~908)의 전씨(錢氏)는 그 상을 성중의 개원사(開元寺)에 옮겼다. 지금 매잠에서 신봉되는 상은 그 후에 새로 조성된 것이다.

지금 주산시(舟山市) 보타구(普陀區) 보타도(普陀島) 조음동(潮音洞)에 있는 불공거관음원(不肯去觀音院)의 개기를 전해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관음원은 중국 4대 불교성지 가운데 하나이며 관음신앙의 본산이다. 사원에 안치된 관음상은 신라고인

165) 『宣和奉使高麗圖經』권34, 해도1, 梅岑, (北宋 宣和6年, 1124)麓中有蕭梁所建寶陀院 殿有靈感觀音 昔新羅賈人往五臺 刻其像 欲載歸其國 暨出海遇焦 舟膠不進 乃還置像於焦 上院僧宗岳者 迎奉於殿 自後海泊往來 必詣祈福 無不感應 吳越錢氏 移其像於城中開元寺 今梅岑所尊奉 卽後來所作也.

(新羅賈人)이 오대산에서 모셔온 존상이다. 『보경사명지』(1225~1227년 刊)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대중 13년(859) 일본승 예가쿠는 오대산에 이르러 중대정사(中臺精舍)에서 관음상을 친견하였다. 그 상이 단아하고 생기가 있음에 간곡히 부탁하여 일본으로 모셔가고자 하였더니 그 절의 스님들이 허락하였다. 예가쿠는 곧 등에 매고 이곳에 와 배에 실으려 하였다. 그러나 너무 무거워 들어 올릴 수가 없었으므로 같이 가던 상인들과 힘을 합쳐서 마주 들어 겨우 배에 실었다. 배가 창국(昌國)의 매암산(梅岑山)을 지날 때에 도노풍비(濤怒風飛)하여 선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예가쿠의 꿈에 호승(胡僧)이 나타나 말하기를 “그대가 나를 이 산에 안치해주면 반드시 순풍으로 보내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들 놀라고 이상히 여겨서 끈을 풀고 그 상을 안치하고 떠났다. 이로 인하여 불공거관음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뒤 개원사의 스님 도재(道載)는 관음이 이 절에 오고 싶어 하는 꿈을 꾸게 되었으므로, 전우(殿宇)를 지어 봉안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관음에 기도할 때마다 응험이 있어 서응관음(瑞應觀音)이라고도 하였다. 당의 장사(長史) 위현(韋絢)이 일찍이 이 일을 기록하였다.¹⁶⁶⁾

166) 『宝慶四明志』권11, 寺院禪院 3, 開元寺, 大中十三年日本國僧惠諤 詣五臺山 欲禮至中臺精舍 觀觀音 貌像端雅喜生顏問 乃就懇求 願迎歸其國 寺衆從之 諤卽肩舁 至此以之登舟 而像重不可舉 率同行賈客 盡力舁之 乃克勝 及過昌國之梅岑山 濤怒風飛 舟人懼甚 諤夜夢一胡僧謂之曰 汝但安吾此山 必令使風相送 諤泣而告衆 以夢咸驚 異相與誅苑縛室敬 置其像而去 因呼爲不肯去觀音 其後開元僧道載 復夢觀音 欲歸此寺 乃創建殿宇 迎而奉之 邦人祈禱輒應 亦號瑞應觀音 唐長史韋絢 嘗紀其事.

또한 지반(志磐)의 『불조통기(佛祖統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대중(大中) 12년(858) 일본국 사문 에가쿠(惠萼)는 오대산을 순례하여 관음상을 얻고 사명(四明)길을 거쳐 귀국하려 하였다. 배가 보타도를 지날 때 돌에 걸려 나아가지 못하자 무리들이 두려워하며 기도하였다. “만약 존상이 해동에 (가는)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다면 청컨대 이 산에 머물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배가 곧 떠서 움직였다. 에가쿠는 슬퍼서 떠날 수가 없었으므로 해변에 초를 짓고 관음상을 모셨다(지금 산쪽에 신라초가 있다.) 은인(鄞人)이 이를 듣고 청하여 그 상을 개원사에 안치하도록 하였다(혹은 오대사라고도 하고 불궁거관음이라고도 한다)… 산은 대해 가운데에 있고 은성(鄞城)으로부터 동남 물길로 600리나 떨어져 있다. …산의 이름은 보타낙가이며 관음보살이 거기에 머물면서 곧 대비경(大悲經)에서 말하는 보타낙가산 관세음궁전이다.¹⁶⁷⁾

일본 가마쿠라(鎌倉) 시대 고칸시렌(虎關師鍊, 1278~1346, 京都 東福寺 스님)이 저술한 불교 사서 『원형석서(元亨釋書)』 권 16에는 『불조통기』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고 있다. 이외에도 원(元)의 염상(念常)의 『불교역대통재(佛教歷代通載)』

167) 『佛祖統紀』권42, 선종 대중 12년(858), 日本國沙門惠萼 禮五臺山 得觀音像 道四明 將歸國 舟過補陀山附著石上 不得進 衆疑懼禱之曰 若尊像於海東機緣未熟 請留此山 舟即浮動 萼哀慕不能去 乃結廬海上 以奉之(今山側有新羅礁) 鄞人間之 請其像歸安開元寺(今人或稱五臺寺 又稱不肯去觀音)…山在大海中 去鄞城東南水道六百里…有山名補陀落迦 觀音菩薩住其中也 卽大悲經所謂補陀落迦山觀世音宮殿.

권23이나 성희명(盛熙明)의 『보타낙가산전(補陀洛迦山傳)』 1권, 그리고 『사대명산지(四大名山志)』 권2의 『보타낙가신지(補陀洛迦新志)』에 이르기까지 내용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불공거관음 원의 개기를 예가쿠와 연관 짓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가쿠는 839년 신라인 이인덕(李隣德)의 배를 타고 입당하여 초주(楚州) 신라방(新羅坊)에서 오대산을 순례하고 다시 천태산까지 왕래한 스님이다. 생존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전후 3~4회에 걸쳐 입당 순례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예가쿠의 오대산·천태산 순례와 귀국은 초주를 기점으로 하여 역어 유신언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그의 전물(錢物)과 의복,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모두 초주 신라방에 보관·기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842년 그의 귀국 역시 신라인 이인덕의 배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위의 자료들을 통하여 관음보살 장래 내력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2) 관음보살 장래 내역

사료	장래인	관음상	연대	해난	최초안치	관음상행방
①고려도경 (1124)	신라고인	조상	?	좌초	상원 전각에 안치	오월국 (907~978)의 전씨가 개원사에 안치
②보경사명지 (1225~27)	예가쿠	회사 (상인동행)	859	도노풍비 (호승)	암초인근에 안치	석도재 개원사에 안치
③불조통기 (1269)	예가쿠	구덕	858	좌초 (신라초)	초려안치	은인이 개원사에 안치

장래한 관음상은 ①에서는 신라상인들이 오대산에서 조상하여 모셔온 것이라 하였으나, ②와 ③에서는 회사와 구덕에 의한 것으로 되어있다. 반면에 ①에서는 모셔온 연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②와 ③에서는 859년과 858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본인들은 보타도의 관음신앙 개기전설을 ③과 『원형석서』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858년경에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 학자 가운데 『두타친왕입당략기(頭陀親王入唐略記)』 등을 참조하여 함통(咸通) 4년(863)으로 비정하는 경우도 있다.¹⁶⁸⁾

그러나 ‘신라고인’이 종상하여 장래한 관음상이 보타도관음 신앙 개기설화의 시원임을 주장하는 연구자는 없다. 그 당시의 해상무역업자들이 사원을 짓고 불사를 일으키거나 불상을 조상하는 일은 허다하였다. 적산법화원을 창건한 장보고나 산동 곤유산의 무염원(無染院)을 중건한 신라 압아 김청(金淸)도 대 중국·일본 교역과 명주에서의 무역에 종사하여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다. 신라 상인이 처음 암초에 모신 관음상을 상원의 종약이 전각에 모셔다가 봉안하였고, 이후 오월국의 전씨가 성종의 개원사로 옮겼다. 당시 한반도 남해안의 호족세력과 오월 국간의 교역이 한창이던 때였다. 강남 해안도처에 ‘신라’의 이름을 가진 마을·항포·사원·산이 분포하였다.

신라무역상이 배를 타고 가다가 좌초한 그 바위는 지금도 ‘신라초’라 부르고 있으며, 바로 관음상을 봉안한 곳이기도 하다. 전후사정을 미루어보아 보타도 관세음보살 신앙은 ‘신라고인’이 신라초에 모신 그 관세음보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168) 『入唐求法巡禮行記の研究』 권3, 鈴木學術財團, 1969, pp.406~407.

있다. 위의 『보경사명지』나 『불조통기』 등에는 종교적인 윤색이 첨가되어 있는 반면, 『고려도경』에는 사실적이고 논리적이며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 보타산 조음동 관음신앙의 시원을 불궁거 관음상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곧 신라무역상인들에 의하여 장래된 관음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장보고 전성기(828~841)에 시작되었다고 보아야한다. 이 관음상은 원래 신라고인이 신라초에 봉안한 것인데, 후세에 종교적 의미가 강조되고 여러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독 예가쿠만이 불서나 지방지에 흔적을 남긴 결과 지금과 같은 해석을 낳게 된 것이다. 어찌면 예가쿠는 없어진 ‘신라고인’의 관음상을 대신하여 다시 마련한 존상을 대중연간(847~859) 또는 863년 귀국 시에 봉안했을지도 모르겠다. 또한 불궁거관음은 신라고인과 예가쿠 스님이 함께 오대산에서 모셔온 같은 관음일 가능성도 있다.

5. 신라인의 불교운동

『행기』에는 당나라의 많은 불교의식이 기록되어 있다. 승려들의 일상생활에서부터 매우 큰 규모의 법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신라의 강경(講經) 의식¹⁶⁹과 일일강(一日講) 의식 송경(誦經) 의식을 비롯하여 사원향례의 법회·제회·기도법요·강탄절(降誕節)과 국기(國忌)·연중행사에서 보는 불교의식 등 다양하다.

엔닌은 일기에서 법회의 행법에 관한 기록을 약 8회 정도 남기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신라의 ‘강경 의식’·‘일일강 의식’·‘송경 의식’이라 하겠다. 엔닌은 문등현 적산촌 신라법화원에서 거행된 세 가지 불교의식의 행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당대 3법회의 행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지금에는 당의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불교가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 대중화되어 갔는지를 알 수 있게 하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169) 『행기』권2, 개성 4년(839) 11월 22일, 赤山院講經儀式, 辰時 打講經鐘 打驚衆鐘 訖 良久之會 大衆上堂 方定衆鍾考鍾池本作了 講師上堂 登高座間 大衆同音 稱歎佛名 音曲一依新羅 不似唐音 講師登座訖 稱佛名便停 時有下座一僧作梵 一據唐風 卽云何於此經等一行偈矣 至願佛開微密句 大衆同音唱云戒定香解脫香等 頌梵唄訖 講師唱經題目 使開題分別三門 釋題目訖 維那師出來 於高座前 談申會興之由及施主別名 所施物色申訖 便以其狀 轉與講師 講師把塵尾 一一申舉施主名 獨自誓願 誓願訖 論議者論端舉問 舉問之間 講師舉塵尾 聞問者語 舉問了 便傾塵尾 卽還舉之 謝問便答 帖問帖答 與本國同 但難儀式稍別 側手三下後 申解白前 卒爾指申難 聲如大瞋人盡音呼諍 講師家考家恐蒙難 但答不返難 論義了 入文談經 講訖 大衆同音長音讚嘆 讚嘆語中 有廻向詞 講師下座 一僧唱處世界如虛空偈 音勢頗似本國 講師昇禮盤 一僧唱三禮了 講師大衆同音 出堂歸房 更有覆講師一人 在高座南下座 便談講師所講文 至如會義句 講師牒文釋義了 覆講亦讀 讀盡所講文了 講師卽讀次文 每日如斯。

1) 불교운동과 의식

(1) 강경 의식

적산법화원에서는 오랫동안 강경법회가 있어왔다. 여름에는 금광명경을 겨울철에는 법화경을 강설하였다. 본래 강경은 경전을 강의·해석하는 것으로 출가승과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불교의 대중화가 이 의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동시에 민중의 교화도 이와 같은 법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오전 8시 강경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얼마 후 대중들이 강당에 들어온다. 곧이어 착석을 알리는 종을 치면 강사(講師)가¹⁷⁰⁾ 입당하며 고좌(高座)에 오르는 동안 대중은 같은 소리로 불명(佛名)을 찬탄한다. 그 곡조는 한결같이 신라의 음곡이며, 당의 곡조와는 다르다. 강사가 좌석에 오르면 불명의 칭송을 멈춘다. 그때 하좌(下座)에 자리하고 있던 한 스님이 범패를 부르는데, 오로지 당풍에 의하였다. 즉, “어찌하여 이 경에 있어서랴.” 등의¹⁷¹⁾ 계(偈)였다. “원하옵건대 부처님이여 오묘한 참뜻을 열어주소서.”의 그 절에 이르러서는 대중이 같은 소리로 ‘계향정향해탈향(戒香定香解脫香)’ 등을 부른다.

170) 경문을 강설하는 스님으로 강경 의식의 중심 승려이다. 중국에서는 법사·법주·좌주라고 한다. 승·속을 강칭자로 하여 경전을 강의한 스님의 지위는 매우 높았고 대개 고승대덕이 담당하였다.

171) 운하여차경(云何於此經)은 『大般涅槃經』권3, 수명품 계문의 한 구절이다. 보통 ‘운하패(云何呬)’라고 한다. 범패사는 작법법사(作梵法師)라고 한다. 불교를 대중화하는 방편으로 범패사는 범패를 불러 개개인의 신앙심을 일깨워준다. 정교하고도 특유한 음곡으로 범패를 불러 민중을 매혹시킨다.

범패의 송이 끝나면 강사는 경의 제목을 창하고¹⁷²⁾ 곧 대의를 해설하여¹⁷³⁾ 삼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제목의 해설을 마치면 유나사(維那師)가¹⁷⁴⁾ 나와서 고좌 앞에서 범회를 마련한 연유와 시주의 이름, 시주한 물건을 읽어 알린다. 알리는 일을 마치면 문서를 강사에게 전해준다. 강사는 주미(麈尾)를 들고서 하나하나 시주의 이름을 부르며 혼자 서원한다. 서원이 끝나면 논의자는¹⁷⁵⁾ 논단(論端)하여 질문을 한다.¹⁷⁶⁾ 질문하는 동안 강사는 주미를 들고 질문자의 말을 듣는다. 질문이 끝나면 곧 주미를 기울였다가 다시 이를 들고 질문자에 감사하고 곧이어 대답한다. 질문과 회답의 방법은¹⁷⁷⁾ 일본과 같다. 다만

172) 창경제목(唱經題目)은 경의 제목을 부르는 것인데, 제목은 경전의 내용을 대표하는 것으로 그날의 강경 내용을 알 수 있다. 신라의 강경 의식에서는 『妙法蓮華經』을 불렀을 것이다. 경의 제목 만을 불려도 공덕이 크다고 설법한 경전이 바로 『법화경』 권7의 다라니품이며, 지자대사도 누차 이를 강술하고 있다. 당대에는 이경의 제목을 염창하는 것이 널리 유행하였다.

173) 경의 대의를 밝히는 것이 개제(開題)이다. 개제의 방편은 3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즉, 삼문분별(三門分別)이라 한다. 처음에는 경전의 대강을 밝히고 이어 제자(題字)를 분석하고 명자(名字)의 뜻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경문의 뜻을 분석하여 설명한다.

174) 유나 또는 도유나를 말한다. 사원의 승려를 총괄하고 사찰의 잡사와 승속간의 제반사, 범회, 보시등을 관장하는 승려이다.

175) 교리 경문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논쟁을 마하며 도강(都講)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도강은 경 제목을 창하지만(『大宋僧史略』) 논의자는 이러한 일은 하지 않고 강사와 질문과 회답을 해가면서 강경을 도왔던 점이 다르다. 청중이 경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176) 논의를 시작한다는 뜻으로 묻는 사람이 논의의 제목을 제시하면 이에 따라 강사는 회답을 한다. 거문(擧問)에서 거는 제시한다는 뜻이다.

177) 첨문첨답(帖問帖答)으로 일본에서는 논의를 할 때에 주기라는 기록체가 있어서 물음과 답을 기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묻는 사람이나 답하는 사람이 그 상대방의 논점을 복창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질문과 해답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난의식(難儀式)은 다소 다르다.¹⁷⁸⁾ 논의자는 손을 옆으로 하여 세 번 내린 뒤 강사가 해답을 말하기 전에 갑자기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난’이라고 말한다. 그 음성은 커서 마치 성난 사람처럼 소리를 있는 대로 부르짖어 싸우는 듯하다. 강사는 난을 받으면 다만 답할 뿐이며 다시 난을 보내지 않는다. 논의가 끝나면 경문의 설명에 들어가 경의 뜻을 이야기하고 강의는 끝난다. 대중은 소리를 같이하여 긴소리로 불을 찬탄한다. 찬탄하는 말 가운데 회향사(廻向詞)가 들어 있다.¹⁷⁹⁾ 강사가 고좌에서 내려오면 한 스님이 “세계에 처함이 허공과 같다.”라는 계를 부른다.¹⁸⁰⁾ 음세는 본국과 매우 비슷하다. 강사가 예반(禮盤)에¹⁸¹⁾ 오르면 한 스님이 삼례(三禮)를¹⁸²⁾ 불렀고 강사와 대중도 같이하였다. 강사는 법당을 나와 방으로 돌아갔다. 다시 복강사(覆講師) 한 사람이 있어¹⁸³⁾ 고좌의 남쪽 아래 자리에서 강사가 어제 강의한 경문을 읽는다. 중요한 교의를 함의하는 구절과 같은 곳에 이르면 강사는 그 경문을 다시 읽히고 그 뜻을 설명한다. 복강사도 역시 읽는다. 어제 강술한 글을 다시 읽게

178) 논의할 때에 질문자의 물음에 강사는 답을 하였지만, 그 회답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답을 요구할 때 하는 요식이다. 난은 거듭한다는 뜻이다.

179) 자기 자신이 행하는 모든 공덕을 보살에게 향하게하고 다시 중생에게 베푸는 기원문이다. 곧 회향계를 말한다. 법화경의 회향계가 많이 불리워졌다.

180) 처세계여허공(處世界如虛空)은 범회가 끝날 무렵 계를 부른다. 범회가 시작할 때는 운하패를 부른다. 진(筓)의 섭승원(聶承遠)이 역출한 『超日明三昧經』에 있는 普明菩薩 찬불계의 첫 구절에 나온다.

181) 불보살을 예배하기 위하여 만든 대좌로, 방 3척, 높이 1척이다.

182) 불·법·승의 삼보에 대한 정중한 예를 가리키는 것이다.

183) 복강사는 강사의 강론을 쉽게 다시 설명해주는 스님이다. 복강사의 등장 형태는 송강(俗講)에 이르는 과도기적 단계라 할 수 있다. 즉, 복강이 제도화되어 독립된 형태가 속강이라 보고 있다.

되면 강사는 곧 다음 글을 읽는다. 매일 이와 같이 하였다.

이러한 강경 의식은 11월 16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정월 15일에 마치는 법회의 하나이다. 행법에 등장하는 직승(職僧)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작범법사(作梵法師)

강경은 강사(講師)·강주(講主)·강사(講士)·강장(講匠)·법사(法師) 등으로 불리는 고승에 의하여 행해진다. 불교를 흥포하는 가장 올바른 길은 강사를 통한 강경임에 틀림없다. 강회가 시작하여 강경법주가 등좌하기까지 대중은 합창하며 레불한다. 등좌가 끝나면 칭탄불명이 끝나고 이어 승려 한사람이 작범한다. 작범하는 승려 곧 범패사(梵唄師) 또는 작범법사라고 부르는 범승이다. 작범법사를 경사(經師)의 변화된 형태로 보고 있다.¹⁸⁴⁾ 법사는 불교를 흥포시키며 속(俗)을 교화시키는데 영향력이 컸다. 이들은 불교 대중화의 방편으로 범패를 불러 개개인의 가슴속에 잠자던 불심을 일깨워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경사는 자신들의 정교하고도 특유한 음곡으로 작범하였다. 경사의 변화된 형태가 작범법사라고 한다면 적산법화원의 강경 의식에서 작범했던 승려도 적산촌을 중심으로 한 많은 촌락에서 인기 있었던 한 법사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래의 창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나 자기 자신의 특유한 음곡으로 『운하어차경(云何於此經)』 등의 계(偈)를 불렀다. 이렇게 하여 고답적이고 귀족적이며 혹은 도피적이고 일민적(逸民的)인 경향의 불교가 일반

184) 道端良秀, 『唐代佛敎史の研究』, 법장관, 1981.

대중과 밀접하게 되고 민중을 교화시켜 대중화를 이루어갔다.

② 개제(開題) · 창경제(唱經題)

작법법사에 의하여 범패가 끝나면 강사는 경전의 제목을 창도하고 곧이어 삼문으로 분별해서 개제한다. 경 제목은 물론 경전의 제호를 말한다. 경 제목을 창도하고 개제하는 것은 강경 의식 가운데 중요한 서막이었다.¹⁸⁵⁾ 양(梁) 『고승전』에는 강경에 앞서 개제대회를 거행하였다고 하는데, 개제가 강경 의식의 중요한 범회였음을 증거한다. 적산법화원 의식에서의 창경 제목 · 개제분별삼문의 행법이 곧 개제대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경에 앞서는 중요한 행법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때의 창경제는 묘법연화경을 뜻하며 『법화경』 다라니품 제26에는 창경제의 공덕을 설명하고 있다.

“법화의 이름을 옹호·수지(受持)하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복이 헤아릴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대에 있어서 창경제는 비단 법화경에만 한하였던 것은 아닌 것 같다. 돈황 출토의 변문(變文)에서도 창경제란 어휘가 나타나있다.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에 수록되어 있는 스타인(Stein) 수집(蒐集)의 돈황문서 2440호의 4종 압좌문(押座文) 중에서 「유나경압좌문」은 「경제명목창장래(經題名目唱將來)」라 하였고, 「온실경강창압좌문(溫室經講唱押座文)」과 「삼신압좌문(三身押座文)」은 「경제명자창장래(經題名字唱將來)」라 하였으며, 「팔상(八相)

185) 『고승전』 권5, 竺法太傳, 晉太宗簡文皇帝深相教 重請講放光經 開題大會 帝親臨幸.

압좌문』에는 『도강경제창장래(都講經題唱將來)』라 한 것 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¹⁸⁶⁾

③ 논의자(論義者)

강격법주의 강경을 보좌하는 승직으로 논의자가 있다. 원래 강사의 강경을 보좌하는 법사로는 일반적으로 도강이라 불리었다.¹⁸⁷⁾ 이외에도 도강은 경 제목을 창하는 역할도 하였다. 강경 의식에는 보통 남북으로 두 고좌가 마련되었는데, 북좌에는 강사가 남좌에는 도강이 각각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작법 법사에 의하여 범패가 끝나면, 남좌에 자리 잡고 있던 도강이 경 제목을 창하였다. 그런데 “논의자는 논단하여 질문을 한다. 질문을 하는 동안 강사는 주미를 들고 질문자의 말을 듣는다. 질문이 끝나면 꼭 주미를 기울였다가 다시 이를 들고 질문자에 감사하고 곧이어 대답한다.” 이와 같이 경전의 법의에 관하여 강사와 거문논란하며 강사의 강경을 보조하고 있었다. 도강이나 논의자가 모두 강사와 경전의 법의에 관하여 거문 논란하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적산법화원의 강경법회에 있어서는 돈증(頓證)과 상적(常寂)이 논의자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사와 논란하고 왕복 문답했던 것은 비단 논의자뿐만 아니라 일반 내회자(來會者)들의 청중(聽衆)에서도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186) 道端良秀, 『唐代佛敎史の研究』, 법장관, 1981.

187) 『大宋僧史略』上, 都講, 敷宣之事 擊發之事 非旁人而啓端 難在座而孤起 故梁武講經 以枳園法彪爲都講 彪公先一問 梁祖方鼓舌端 載素載徵 隨問隨答 此都講之大體也.

④ 복강사(覆講師)

복강사는 복사(覆師)·복강(覆講)이라고도 하며 오늘날의 조교와 같은 직승이다. 강사와 논의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던 강경은 비교적 지적 수준이 높아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며, 일반 대중에게는 난해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불교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강사·논의자 만의 강경으로는 부족하였다. 이에 일반 대중과 접근할 방법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 복강사가 등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복강사는 강사가 강론하였던 경전의 법의를 복술하는 법사라 하겠다.

『행기』의 복강사에 관한 기록을 보면, 강사는 경전의 난해한 부분에 이르러서 그 구절을 기록하였고 한편, 복강사는 그 전날에 강의했던 경물을 다시 읽었다. 즉, 복강사는 강사의 강술을 부연하여 대중에게 경전의 법의를 충분히 이해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복강사가 등장하는 이러한 형태의 강경을 당대의 속강(俗講)이라고 보고 있다.

적산법화원의 강경 의식을 통해서 불교의 대중화에 관한 사항과 대중 교화에 종사했던 직승과 그들의 교화방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강경 의식의 내용을 요약하면, 예불(禮佛), 범패(梵唄), 개제(開題), 유연시주서원(有緣施主誓願), 논의(論議), 입문독경(入文讀經), 회향(廻向), 범패(梵唄), 삼례(三禮), 복강(覆講)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 복강은 강경 의식과는 별도의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인데, 예불에서 시작하여 삼례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경은 경전을 강의 해석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출가승과 일반 대중을 청중으로 한다. 교화승의 한사람인

작범법사는 강사를 보조하여 주로 범패를 창하였다. 개제·창경제는 강경에 있어서 의식으로 중요시하였으며, 논의자는 도강의 역할과 비슷하며 강사를 보조하여 경전의 범의를 해석하는 승려이다. 복강사는 강사가 강술했던 난해한 부분을 복연하는 직승이다. 복강은 속강의 과도기적 강경제도이며, 법화원 강경 의식에 있어서는 복강사야말로 일반 대중을 교화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

(2) 일일강 의식¹⁸⁸⁾

『행기』에 기록된 ‘신라 일일강 의식’은 당대에 거행된 일일강 의식의 행법내용을 전하는 유일한 자료이다. 이 법회는 강경과 겸하여 사자의 추선공양(追善供養)을 위하여 성립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나사가 의식거행의 연유를 설명했던 계장에 인생의 무상함을 한탄하고 망자의 공덕을 찬탄했기 때문이다.

오전 8시경 종을 친다. 길게 쳤다고 여겨질 즈음 강사와 도강¹⁸⁹⁾ 두 사람이 당으로 들어왔다. 대중은 먼저 들어와 줄을

188) 『행기』권2, 개성 4년(839) 11월 22일, 新羅一日講義式, 辰時打鐘 長打擬了 講師都講二人入堂 大眾先入列坐 講師讀師入堂之會 大眾同音 稱嘆佛名長引 其講師登北座 都講登南座了 讚佛便止 時有下座一僧作梵 云何於此經等一行 偈也 作梵了 南座唱經題目 所謂唱經長引 音多有屈曲 唱經之會 大眾三遍散花 每散花時 各有所頌 唱經了 更短音唱題目 講師開經目 三門分別 述經大意 釋經題目竟 有維那師 披讀申事興所由 其狀中 具載無常道理 亡者功能 亡逝日數 知登州刺史姓吳名角 時人喚烏使君 有三諱字 明綺給也 明日卽嚮來日 靑州節度使姓壽 時人喚壽尙書 無諱字也.

189) 도강은 강사의 조수로 강경 때에 고좌에 올라 강사와 마주하여 경문을 읽

지어 앉아 강사와 독사(讀師)가 입당하는 동안 소리를 같이하여 불명을 찬탄하며 길게 음성을 빼어 부른다. 그 강사는 북좌에 오르고 도강이 남좌에 앉으면 찬불을 곧 멈춘다.¹⁹⁰⁾ 그때 하좌의 스님 한 사람이 범패를 부르는데, “어찌하여 이경에 있어서야” 등의 한 줄의 게이다. 범패가 끝나면 남좌의 도강은 경 제목을 부른다. 소위 창경은 길게 빼어 부르며 소리에 많은 굴곡이 있다. 창경하는 동안 대중은 세 번 꽃을 뿌린다.¹⁹¹⁾ 꽃을 뿌릴 때마다 각각 칭송하는 바가 있었다. 창경이 끝나면 다시 짧은 소리로 제목을 부른다. 강사는 경의 제목을 해설하고 삼문으로 나누어 경의 대의를 강술한다. 경의 제목 설명이 끝나면 유나사가 있어 강경이 있게 된 연유를 알린다. 그 서장 가운데 상세하게 무상의 도리와 죽은 사람의 선행과 공덕, 그리고 죽은 날을 기재하고 있다. 등주자사의 성은 오(烏) 이름은 각(角)이며, 그때의 사람들은 오사군(烏使君)이라고 불리웠다. 명(名)·기(綺)·급(給)의 세 휘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명일은 곧 내일(來日)이라고 한다. 청주절도사의 성은 수(壽)이며,¹⁹²⁾ 당시 사람들이 수상서라 불렀고 휘자는 없다.

고 때로는 질문도 하는 스님이다. 강사는 대개 제자나 후배를 도강으로 임명하였다.

190) 북좌와 남좌는 의식이나 강경을 위하여 설치한 고좌이다. 강당에 한 쌍으로 설치되고 강경법사와 도강이 여기에 앉는다. 남북 양좌를 강좌·창경좌라고도 한다.

191) 산화(散花)는 산화(散華)라고도 하며, 사개법요(四箇法要) 가운데 하나이다. 권청(勸請) 또는 찬탄을 위하여 꽃바구니에 넣은 생화와 오색의 종이로 된 연꽃을 불전에다 뿌리는 행법을 말한다.

192) 평로치정절도사를 말한다. 치소가 청주이므로 청주절도사라 한다. 당시 수(壽)의 성을 가진 절도사는 없는데, 아마도 위(韋)의 잘못으로 생각된다. 『구

강경법회와 일일강 의식의 다른 점은 강경 의식에서는 예불·개제·논의·강경·복강을 한 것에 반하여 일일강 의식에 서는 예불과 개제뿐이다. 그런데 후자에서는 도강이 등장하여 고좌(高座)에 오르지만 전자에서는 복강사는 하좌한다. 또한 강경 의식에서는 산화행이 없지만 일일강 의식에는 산화와 산 화계(散花偈)를 부른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① 산화(散花)

‘신라 일일강 의식’에서 불렀던 산화악사(散花樂辭)가 어떠한 내용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돈황곡(敦煌曲) 가운데 발견된 많은 불교관련 가곡에는 산화악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법조의 『정토오회염불략법사관행의(淨土五會念佛略法事觀行儀)』(『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권47)에서나 펠리오(Peliot) 장래본인 돈황문서(제3216호)의 『정토오회염불송경관행의』 가운데에서도 산화악사가 발견된다.¹⁹³⁾ 당대 산화악사는 초당(初唐)의 선도(善導, 613~681)와 중당(中唐)의 법조(法照)에 의하여 작사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적산법화원의 일일강 의식에서 송찬된 산화사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산화사의 대부분이 선도 특히 법조의 소작이었으므로 당시 사원에서 찬송된 선화악사 역시 이들의 소작 중 하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당서』권17, 문종 본기에 의하면 개성 4년(839) 7월에 하남윤(河南尹)으로 있던 위장(韋長)이 평로군절도사로 부임하였다.

193) 출처, 『唐·高句麗遺民과 新羅僑民』, 일신사, 1986, pp.134~135.

임이북(任二北)은 『돈황곡초심(敦煌曲初深)』에서 돈황곡 545수를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특히 불교 관련곡 289곡을 가려내었는데, 이 중에는 산화악이 포함된다. 앞에 언급한 펠리오 장래본 3216호 『정토오회염불송경관행의』 가운데에는¹⁹⁴⁾ 산화악사는 한사람의 산화두(散花頭)가 선창을 하면 대중이 화하여 합창한다. 이로써 음악적인 오회염불보다는 다칭(多稱)의 고성 염불로 전화되어가는 염불대중화의 과정이 진행되었음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산화악과 산화악사는 본래는 별개의 것으로서 전자는 곡조를, 후자는 가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 형성 과정에 있어서도 중당기 이후의 7언 연장으로 된 산화악은 초당의 오언쌍곡(五言雙曲)의 후신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6조 때까지 소급할 수 있다.¹⁹⁵⁾ 이때까지 발견된 산화악사는 산화악보다 훨씬 늦은 당대의 대력(大曆)연간(766~779)에 승 법조(法照)에 의하여 작사된 것이다. 허국림(許國霖)의 『돈황잡록』에 수록된 과자 41호의 산화악 제하에 산화악사 5수가 첨부되었는데, 그 사(辭) 앞에 법조가 지은 가사임을 밝히고 있으며,¹⁹⁶⁾ 『정토오회염불략법사의찬』에도 그러하다.¹⁹⁷⁾

194) 『돈황문서』 제1326호, 先須燒香 面西而體 次作散花 請佛來入道場 然念阿彌陀佛…右作梵音了 大衆高聲齊念阿彌陀佛 二百口已來打淨便 作散花樂 一人唱請大衆齊和之 散花樂二唱, 奉請釋迦如來 大道場 散花樂 三唱, 奉請阿彌陀如來 入道場 散花樂 三唱, 奉請觀音勢至 入道場 散花樂 三唱, 奉請十方諸佛 入道場 散花樂 三唱, 西方極樂不思讚 散花樂 一唱, 天(?)人間無量壽 散花樂 一唱, 右作散花樂了. 次念三番六字阿彌陀佛兩邊 然唱讚言

195) 『隋書』권10, 音樂志 하5, 其行曲有單文路 舞曲有散花 樂器有笛 …等七種 三懸爲一部 工二十二人; 『太平御覽』권568, 악부6, 于闐佛曲 有萬代豐等九樂 以聲徐者爲本 聲者疾者爲解 …其曲有散花樂等.

196) 法照名南无(乃岳之訛) 法照和尚散花樂讚.

이상을 종합하면 오늘날 남아있는 산화악사의 대부분은 법조가 지은 것이 분명하다. 『불조통기』의 편자는 법조가 대력 7년(772)에 이미 입적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지만,¹⁹⁸⁾ 『정토오회 염불송경관행의』 권하에 법조는 대력9년(774) 10월까지 생존해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¹⁹⁹⁾ 그런데, 『불조통기』의 기록과 달리 『송고승전』에서는 대력 12년(777) 9월 13일 법조가 제자 8인과 함께 소림사 동대(東臺)에 올랐다는 기록이 전한다.²⁰⁰⁾ 따라서 『불조통기』에 전하는 법조의 생존연대와 5년 이상의 차이가 있다. 필자는 『송고승전』의 설과 「귀거래(歸去來)」 제작연대의 기록에 따라 산화악의 작사 연대를 대력 원년(766)과 대력 10년(775) 사이로 추정해 본다.

신라 일일강 의식의 산화악사의 내용은 분명하지 않으나 이제까지 발견된 산화악사는 대부분 법조가 지은 것이므로 당대(唐代) 적산법화원에서 창송되었던 산화악사도 그가 지은 것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신라·당·일본 3국에서 행해졌던 대부분의 불교의식은 동일하였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응연(凝然)의 『삼국불법전통연기(三國佛法傳通緣起)』가 이 사실의 일부를 설명해주고 있다.²⁰¹⁾

197) 『大正新修大藏經』 권47, 梁漢沙門法照 大歷元年夏四月中 起自南岳翻陀臺般舟道場 依無量壽經作.

198) 『佛祖統紀』 권26.

199) 『淨土五會念佛誦經觀行儀』 권 하, 沙門法照述… 時大歷九年同十月 於北京興龍寺.

200) 『宋高僧傳』 권21, 唐五臺山竹林寺法照傳.

201) 『三國佛法傳統緣起』 권 중, 華嚴宗條, 言講師者 讀經論文 初開論途 立理願旨 窮盡綱目 言複師者 講師初開論理之後 別時如前講 文立義 顯揚莊嚴講師所說; 일본의 복사가 신라 법화원의 복강사와 동일한 직분의 법사였음을 알

이상으로 신라 일일 강의식을 살펴보았다. 다시 의식의 순차를 요약하면 ① 예불(禮佛), ② 범패(梵唄), ③ 개제(開題), ④ 산화(散花), ⑤ 강경(講經), ⑥ 망자기원(亡者祈願)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망자 추선(追善) 의식의 성격을 띤 법회에서 산화 작법이 새로 등장하였다. 이 사실은 강경 자체보다도 의식에 중점을 둔 까닭이라 생각되며, 산화작법도 원래가 권청(勸請)·찬탄(讚嘆)을 위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화악은 당(唐) 이전부터 오랜 시간을 두고 발달해 오다가 당대에 와서야 산화 작법에 필요한 가사가 법조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정토교(淨土敎) 승려들에 의하여 염불 공덕, 특히 오회 염불(五會念佛)이 예찬되면서부터 음악적 요소가 더해졌으며 산화 악사도 이들 교화승들을 통해서 보편화되어갔던 것이다.

(3) 신라의 송경 의식

대당에서는 염경(念經)이라 부른다.²⁰²⁾ 종을 쳐서 대중이 자리를 정하면 하좌의 한 스님이 일어나서 추(槌)를 치고 “일체를 공경하고 상주 삼보를 경례하라”고 낭송한다. 다음에 한 스님이 범패를 부르는데 ‘여래묘색신(如來妙色身)’ 등 2행의 계(偈)이다. 음운 모두 당과 같았다. 범패를 하는 동안 한 사람이 향합을 들고 대중이 앉아 있는 앞으로 가서 급히 행향(行香)하고 행향이 끝나면 대중은 같은 소리로 ‘마하반야(摩訶般若)’의

수 있다.

202) 경전을 독송하여 불덕을 찬탄하고 공덕 음보(功德陰報)에 의하여 부처님의 도움으로 소원 성취하기 위하여 거행된다. 적산 법화원의 의식 역시 행법 내용을 기술한 유일한 자료이다.

제목을 수십 번 부른다.²⁰³⁾

한 스님이 있어 송경의 연유를 상세히 말한다. 대중은 같은 소리로 송경한다. 어떤 때는 경본을 나누어주고 어떤 때는 경본을 나누어주지 않고 한다. 염경이 끝나면 도사(導師)는²⁰⁴⁾ 혼자 ‘귀의불(歸依佛)·귀의법(歸依法)·귀의승(歸依僧)’을 부르고 이어서 불보살의 명호를 부른다. 도사가 불러 ‘나무십이대원(南無十二大願)이라²⁰⁵⁾ 하면 대중은 ‘약사유리광불(藥師琉璃光佛)’이라 한다. 도사가 ‘나무약사’라고 하면 대중은 같은 소리로 ‘유리광불’이라 한다. 도사가 ‘나무대자비’라 하면 대중은 같은 소리로 ‘관세음보살’이라 한다. 그 나머지도 모두 이와 같았다. 예불이 끝나면 도사는 혼자 결원문(結願文)과 회향문(廻向文)을 읽는다. 다소 긴 회향을 마치면 도사가 ‘발심(發心)’이라고²⁰⁶⁾ 하자 대중은 같은 소리로 ‘발심’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도사는 “발원은 이미 끝났으며 삼보에 정례하라.”고 부른다. 다음에 시주가 보시물을 가지고 앉으면 도사는 시주에게 주원(呪願)을 한 다음 곧 흠어진다.²⁰⁷⁾

203) 『마하반야경』을 말한다. 구마라습(鳩摩羅什) 번역의 『마하반야경』인지 또는 현장의 그것인지 알 수 없다. 여기서는 다만 경의 제목만을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04) 본래의 뜻은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후에 와서는 범회 때 모임을 인도하기도 하고 원문을 부르기도 하였다.

205) 『藥師經』에 있는 12가지의 기원. 약사여래가 발하였다고 한다. 약사여래는 약사유리광여래라고도 하며, 이 기원은 병고로부터 벗어남과 장수의 신앙을 설파하고 있다.

206) 무상의 보리심(菩提心)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으로 ‘발보리심’의 준말이다.

207) 新羅誦經儀式, 大唐喚作念經 打鐘定衆了 下座一僧 起打槌唱一切恭敬禮常住三宝 次一僧作梵 如來妙色身等兩行偈 音韻共唐一般 作梵之會 一人擎香盃 歷行衆座之前 急行行便休 大衆同音 誦摩訶般若題數十遍也 有一師 陳申誦經

불교에 있어서 경전을 독(讀)·송(誦)하는 것은 중요한 법사(法事) 가운데 하나이다. 경전에서도 독·송의 공덕을 말한 내용이 많이 있다. 법화경(法華經) 법사품(法師品) 에도 독·송의 공덕을 언급하고 있다.²⁰⁸⁾ 그런데 독과 송은 엄연히 구별되어 있다. 세종조(世宗朝)의 국역장경묘(國譯藏經妙)와 법화연경(法華蓮經)에는 법화품의 독·송 부분을 번역하면서 “수지(受持) 하며 독(讀)하며 송(誦)하여 해탈하며 묘법화경을 서사하고…”라고 하여 독과 송을 구별하고 있다. 『태평광기(太平廣記)』보응류(報應類)에도 마찬가지이다.²⁰⁹⁾ 오오타니(大谷光照)는 독경 목적을 설명하기를 첫째 경전 내용의 이해, 둘째 공덕 응보, 셋째 불(佛)의 명조(冥助)로 구복 기원 등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였다.²¹⁰⁾ 「독경」은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학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송경」은 불덕(佛德)을 찬탄(讚嘆)·공양(供養)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염경(念經)이라 한다. 그러므로 송경은 반드시 「괘(唄)」형식의 음곡으로 독경 되는 것이 보통이다.

來由了 大衆同音誦經 或時行經本 或時不行經本 念經了 導師獨唱歸依佛 歸依法 歸依僧 次稱佛菩薩號 導師唱云 南無十二大願 大衆云藥師琉璃光佛 導師云南無藥師也 大衆同音云 琉璃光佛 導師云南無大慈悲也 大衆同音云 觀世音菩薩 餘皆如此 禮佛了 導師獨結願廻向 廻向稍長 廻向之後 導師云發心 大衆同音亦云發心 次導師唱發願已竟 頂禮三寶 次施主擎施物坐 導師與祝願便散去。

208) 『法華經』권4, 法師品 제10, 若復有人 受持讀誦解脫 書寫妙法華經 乃至一偈 於此經卷 敬視如佛 種種供養 華香瓔珞…成就大願.

209) 『太平廣記』권104, 報應類 3. 有二僧來至殿前 王問師何所有 一答曰 常誦金剛經 一曰 常讀金剛經.

210) 大谷光照, 『唐代佛教의 儀禮』, 『史學雜誌』46권, 1936.

① 송경제(誦經題)

한 승려에 의하여 범패가 창도된 다음에 대중은 동음으로 「마하반야」의 경제만을 수십 편이나 송념하였다. 「마하반야」가 나집(羅什)의 「마하반야경」인지 또는 현장(玄奘)의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인지는 알 수 없다. 「강경」에 사용되었던 경전이 범화경이었음은 이미 지적한 바 있으나 송경에 사용되었던 경본은 「마하반야경」으로 되어있다. 『속고승전(續高僧傳)』이나 『송고승전(宋高僧傳)』에 나타나 있는 당대의 강경·송경에 쓰였던 경전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 당시의 교학 불교의 경향과 거의 일치하기는 하지만 간단히 논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범화경이 다른 경전에 비해 독·송에 월등하게 많이 이용되었다는 것은 이 경전이 당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범화경에 이어 열반경(涅槃經), 금강경(金剛經), 화엄경(華嚴經), 반야심경(般若心經), 유마경(維摩經), 대지도론(大智度論) 등 여러 경론이 뒤따르며, 이외에도 금광명경(金光明經), 인왕경(仁王經), 무량수경(無量壽經), 약사경(藥師經) 등의 경전도 산견된다. 이를 경전과 당시 민간신앙에 염지되었던 경전과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면 매우 흥미 있는 많은 문제들이 발견될 것이다. 『태평광기』 보응류에 나타난 신앙설화 등을 보면 논(論)이 독·송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며, 반야·범화·금광명·무량수·약사경 등이 염지·독·송·전사되었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²¹¹⁾

211) 念持金剛經 日誦二十遍 經二十年, 『태평광기』권105, 보응류4.

당시 이러한 경전이 어떤 동기로 읽혔으며, 이들 경전에 의하여 어떻게 구원되었는가에 대한 민간 불교 신앙에 관해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송경이 매일 수십 편이나 염송되고 더욱이 수십 년이나 계속되었다는 예도 희귀한 것이 아니었다. 『속고승전』 지담전(智琰傳)에서도 범화경을 삼천편이나 염송하였다는 소식이나²¹²⁾ 단성식(段成式)의 『유양잡조(酉陽雜俎)』에 한 승려가 범화경을 10여 년이나 염송하였다는 소식²¹³⁾, 그리고 같은 책의 금강경 구이(鳩異)에서도 장상공이 불교를 혹신(酷信)한 나머지 매일 아침 금강경을 15편씩 염송하기를 수십 년 동안 계속했다고 전한다.²¹⁴⁾ 선도가 중생에게 80억겁의 죄를 멸하기 위하여 칭명염불을 권장하는 한편, 대승경전을 독·송하도록 하여 상품왕생을 이루도록 한 것도 이러한 좋은 예라 하겠다.

② 칭탄불명(稱歎佛名)

장경 의식에는 『칭탄불명』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그것은 「칭탄불명」이 직접 불명을 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덕(佛德)을 염불로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송경

爲蜀三賢寺立 誦法華經, 同書 권109, 보응류8.

專心誦觀音經爲業, 同書 권110, 보응류9.

轉讀藥師經 每日行道, 同書 권112, 보응류11.

精勤不倦 手寫楞嚴經, 同書 권113, 보응류12.

212) 誦法華經三千 講涅槃法華維摩三十 講觀音一百一十, 『續高僧傳』권14, 智琰條

213) 段成式, 『酉陽雜俎』 속집 권5, 寺塔記 上, 安邑坊元(一作立) 法寺 初居人張頻宅也 嘗供養一僧 僧以念法華經爲業 積十餘年.

214) 段成式, 『酉陽雜俎』, 金剛經 鳩異, 張相公 先君齊邱酷信釋氏 每旦更新衣 執經於像前念金講經十五遍 積數十年不懈.

의식에서는 청탄불명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즉, 불명은 일반적으로 약사여래라고 알려져 있는 약사유리광여래이며 보살로는 관세음보살이다. 정유리세계(淨琉璃世界)에 머물면서 12의 상원(上願)²¹⁵⁾을 받기하여 중생을 구제하려는 약사여래가 찬탄된 것은 수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자대비를 근본 서원으로 하는 관세음보살이 찬탄되었던 것도 당시의 불교도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가를 가르쳐준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서 욕구와 희망을 찰지(察知)하여 소원을 성취시켜준다고 생각되었던 가장 인기 있는 보살이었어야만 했던 것을 감안하면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바로 관음을 찬미한 품목이다. 오로지 일심칭명(一心稱名) 만으로도 해탈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보살이다. 청탄불명의 대상이 이룰진대, 불교의 대중화도 심오한 교리의 전개보다 청각·시각에 의한 교화가 더 주효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③ 송경(誦經)과 대중

송경 의식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중동음 송마가반야(大衆同音 誦摩訶般若)’와 ‘대중동음송경(大衆同音誦經)’이라는 구절이다. 대중이 경전 제목이나 경전을 염송했던 일은 강경 의식과 일일강 의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다. 강경 의식의 경우는 강사가 경 제목을 창(唱)하고 입담경문(入談經文)해 갔고

215) 十二上願, 光明普照·隨意成辦·施無盡物·安立大乘·具戒清淨·諸根具足·除病安樂·轉女得佛·安立正見·除難解脫·飽食安樂·美衣滿足.

일일강 의식에서는 도강(都講)이 경 제목만을 창하고 역시 강사가 술경대의(述經大意)했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도사가 선도하여 송경·연불·찬탄을 번갈아 하면서 음악적인 효과를 극대화하여 마치 극락정토세계의 분위기를 창출하려 하였다.

민간신앙단체와 송경·연불 그리고 술경 사업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²¹⁶⁾ 대중 곧 신앙단체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읍의(邑義)·법회(法會)·사읍(社邑)·사회(社會)·읍회(邑會) 등으로 불렸다. 그리고 이들의 숭불사업도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게 전개되었다. 여기에서는 송경과 이들 신앙단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살펴볼 뿐이다.

당초(唐初)의 익주(益州) 복수사(福壽寺)의 승려 보경(寶瓊)은 읍의의 사람은 누구나 다 대품(大品) 한권을 송경하고, 매월 재회(齋會)가 마련될 때에는 개개인이 순차적으로 송경하도록 하고, 그 읍의의 수는 천(千)에 달했다고 한다.²¹⁷⁾ 천이란 수는 과장되었다 해도 1읍 30명으로 한정하여 통산해 보면 그 인원은 매우 놀랄만한 수에 달한다. 종교적인 진지한 태도로 경문(經文)을 송념하고 재회를 베풀어 민중을 교화시키며 불교를 대중화시켰던 읍회의 역할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여기에서의 읍회는 약 30명으로 이루어졌고 읍사(邑師)는 보경임을

216) 졸저, pp.159~164.

217) 『續高僧傳』卷28, 晚移州治 住福壽寺 率勸坊郭 邑義爲先 每結一邑 必三十人 合誦大品 人別一卷 月營齋集 各依次誦 如此義邑 乃盈千計 四遠聞者 皆來造款.

알 수 있다.

『행기』권2의 개성 4년(839) 11월 16일조에는 “산원은 이날부터 『법화경』을 강의한다. 내년 정월 15일을 한정하여 그 기간으로 삼는다. 여러 곳에서 온 많은 스님들과 인연 있는 시주들도 모두 와서 서로 만났다. 그 가운데서 성립화상은 이 강경의 법주(法主)이다. 그 밖에 논의 두 사람이 있는데, 승 돈증(頓證)과 승 상적(常寂)이다. 남녀 도속 할 것 없이 같이 사원에 모여 낮에는 강의를 듣고 밤에는 예불참회하고²¹⁸⁾ 청경하며 차례로 이어간다. 승려와 속인 등 그 수는 40여 명이다. 그 강경과 예참 방법은 모두 신라의 방식에 의해 행하였다. 다만 저녁과 이른 아침(寅時, 4시 무렵) 두 차례의 예참은 또한 당풍(唐風)에 의하여 행하였고 그 나머지는 모두 신라의 말과 음으로 행하였다. 그 집회에 참석한 스님, 속인, 노인, 젊은이, 존귀한 사람, 비천한 사람 모두가 신라 사람이었다.”²¹⁹⁾ 이 법회에 모인 사람은 십방대중·승려·시주 등 40여 명이다. 이들은 낮에는 청강하고 밤에는 예불·참회·청경을 했다. 40명 가운데는 강경법주와 논의자 2명 등 승려 3명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가 대중이라고 표현된 속인들이었다. 이 속인

218) 예불과 참회의 행법을 예참의(禮懺儀)라 한다. 십방불(十方佛)을 예배하고 자신의 죄과를 참회하는 것이다.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에 의거하여 법회참법을 닦는다. 적산법화원에서는 이 참법으로 신라방식에 의해 수행하였다.

219) 『행기』권2, 개성 4년 11월 16일, 十六日 山院起首講法花經 限來年正月十五日 爲其期 十方衆僧 及有緣施主 皆來會見 就中聖琳和尚 是講經法主 更有論義二人 僧頓證僧常寂 男女道俗 同集院裏 白日聽講 夜頭禮懺聽經及次第 僧等其數四來人也 其講經禮懺 皆據新羅風俗 但黃昏寅朝二時禮懺 且依唐風 自餘并依新羅語音 其集會道俗 老少尊卑 惣是新羅人.

들은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의식의 청중으로 참석했던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40명 안팎의 인원은 강의하기에 알맞은 인원수이다. 적산법화원의 송경 의식의 ‘시방대중’은 신앙 단체인 읍회이며, 교화승인 읍사는 도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읍회에는 한 사람의 읍사가 교화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원칙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한 읍회에 2·3명의 읍사가 있을 수도 있었고 또는 한 읍사가 2·3 혹은 더 많은 읍회를 겸임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들 읍사는 읍회를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교화에 힘썼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순회하지 않고 사원의 법회에 참집하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교화에 힘썼다. 이와 같은 읍사는 대중을 상대로 불교를 홍보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2) 신앙결사

신앙결사는 불교 신앙을 공고히 하며 공덕을 쌓는 어려 행사, 예컨대 조상·수사·건탑·강경·송경·연불·사경·재회 등의 신앙행사를 수행하였다. 남북조시대부터 수·당 초기에 걸쳐 이루어진 숭불사업은 조상·수사 등이 많았으나 중당 이후에는 강경·송경·사경·재회 등이 비교적 많아졌다. 그 명칭도 초기의 읍의(邑義)·읍회(邑會)에서 사읍(社邑)·사회(社會) 등으로 변하였으며 교화승도 종래 읍사(邑師)에서 사승(社僧)으로 바뀌었다. 물론 시대의 흐름과 지역에 따라 다양성

을 띄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당 고종 영순(永淳) 2년(683) 산둥성(山東省) 역성현(歷城縣) 천불산(千佛山) 신통사(神通寺) 인근의 촌민 100여 인이 결성한 신앙단체는 승랑(僧朗)의 기우로 감우(甘雨)를 얻게되자 설재(設齋)·조상(造像)·조경(造經) 등의 숭불사업을 수행하였다.²²⁰⁾ 또한 『속고승전』 권14의 소주 무구산(武丘山) 석지염(釋智琰)은 법화경을 송경하며 대중을 교화하고 만년에는 단월 500여 명으로 의읍을 결성하여 조상 사업을 수행하였다.²²¹⁾

앞서 살펴본 당초의 익주 복수사 승 보경의 의읍은 한 읍이 30여명으로 구성되어 대품[열반경(涅槃經)]을 독송하였다. 적산 법화원의 강경·송경에서도 4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강경이나 송경에 참여하는 인원은 대략 이러한 규모였을 것이다. 그러나 조상이나 건탑과 같은 숭불사업에는 큰 의읍이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산둥성 역성현 불곡(佛谷)에는 개성 2년(837) 4월에 건립된 ‘결금강경읍회비(結金剛經邑會碑)’가 있다. 이에는 읍회의 사승 ‘대덕승□방(大德僧□方)’이 입적하자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읍인들이 미륵상과 협시보살을 건조한 내력을 기록하고 있다.²²²⁾ 이 법회는 조상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으며, 비문 끝에

220) 那波利貞, 『唐代の社邑に就きて』, 『史林』23-2・3・4, 1938.

221) 『속고승전』 권14, 당 소주 무구산 석지염전

釋智琰子明璨俗姓朱氏吳郡吳人…常行法華·金光明·普賢等懺 又誦法華三千餘遍 感應冥祥神瑞非一…又願生淨土造彌陀像 行三種淨業 修十六妙觀 與州內檀越五百余人 每月一集 建齋講觀 勝輪相踵 將逾十載.

222) 『寰宇訪碑錄』 권4, 『全唐文』 권988, □濟州歷城縣維那劉長清等八人 爲□中金剛經邑會之長 會同邑內信直者數十公 俱禮南靈臺山禪大德僧□方爲出世之

보이는 바와 같이 공덕 주·도유나·읍인 110 등이 금강회를 결사하고 매회 금강경 1권을 사경하여 1년에 두 번 즉, 정월과 9월에 전체읍인이 한자리에 모여 재회를 가졌다. 재회에서는 아마도 송경·강경 등을 행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백거이(白居易, 772~847)가 중심이 되어 향화사(香火社)를 결사하였다고 한다.²²³⁾ 회창 연간 그가 낙양 향산에서 승 여만과 함께 ‘향화사’란 법사를 경성한 사실만을 알 수 있으며, 어떠한 승불 행사와 사업을 하던 신앙 단체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불조통기』권42에는 그가 말년에 보여준 신앙 형태가 일부 전한다.²²⁴⁾ 그는 148명으로 상생회를 결성하여 미륵신앙의 염원으로 ‘필생도술’을 회구하고 있다. 만년에는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자 서방정도변상도 한 폭을 그리게 하여 주야로 공양하였는데, 이로 보아 그의 신앙심의 깊이를 알 수 있다. 근자에 박현규 교수가 소개한 문등시 쇠자진 곤유산의 당무념선원비(大唐登州牟平縣崑嶮山無染禪院碑)를 보면, 무념원 중수에도 법사가 결성되어 승불사업으로서 수행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비에는 법주·원주·승·니·단월주·공덕주·시주 등 많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師…乃率邑內諸人等 家財同心 奉爲沒故禪大(德) 建此彌勒像一軀侍菩薩兩軀 於南靈臺山先師宴坐之地 上答生前法誨之恩惠矣 開城二年歲次丁巳四月甲午朔 功德主及都維那邑人等一百一十人 結金剛經會 每會書經一卷 每至正月十八日 九月十八日 設齋一中以表衆緣 標於此碑.

223) 『구당서』권166, 백거이전, 會昌中 請羅太子少傅 以刑部尙書致仕 與香山僧如滿 結香火社 每肩輿往來 白衣鳩杖 白稱香山居士.

224) 『불조통기』권42, 大中元년(847)三月 …樂天嘗立願曰 吾勤一百四十八人同爲一志 結上生會 行念慈氏名 坐想慈氏容 願當來歲必生兜率 晚歲風痺 命工畫西方淨土一部 晝夜供養….

추적하면 이 결사에는 가까이는 제(齊)와 노(魯), 멀리는 오월(吳越)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인과 신도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지를 회사한 단월이 있고, 해통(解通) 등 50여 명은 불당안의 불상과 제상을 보수하고 여래상을 빚는 등의 숭불사업을 수행하였다. 또 다른 불자는 가섭·아난상을 보수하였다. 특히 신라인 김청(金淸) 압이는 교역에서 얻은 재물을 회사하여 백석 불탑을 건립하였다. 물론 숭불행사에는 겨울·여름철의 송경·강경 법회도 있었을 것이며, 제회 역시 마련되어 법계를 보자(普資)한 기쁨을 나누었을 것이다. 박현규 교수는 이 선원의 “중창 역사에 참여한 화상들의 명단이 나열되었는데, 마멸된 부분을 포함하면 그 숫자가 무려 120명이 넘는다.”고 하였다.²²⁵⁾ 마멸부분에 대한 검증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중창 보수에 참여한 불자들의 수에 대해서는 수궁이 간다. 중수·숭불 사업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마련이었다.

펠리오 씨가 장래하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한 돈황문서 가운데에는 강경법회에 대한 도움을 사회원(社會員)에게 보내는 회장(回章)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²²⁶⁾ 한 예로 돈황문서 제3286호 지배(紙背)의 ‘사사전첩(社司轉帖)’은 봄가을에 거행하는 강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읍의 록사(錄事)로부터 사인(社人)들에 회부된 첩문이다.²²⁷⁾ 그 내용을 보면 관사(官寺)를

225) 박현규, 『山東無染院과 新羅資料 검토』, 『新羅史學報』11, 2007.

226) 졸저, 같은 책, pp.165~167; 那波利貞, 『佛教信仰に基きて組織せられる中晚五代時代の社邑に就きて』, 『史林』24-3・4, 1939; 山崎宏, 『隋唐時代に於ける義邑及び社邑に就いて』, 『支那中世佛教の展開』, 1942.

227) 社司轉帖, 右緣年支春坐局席 次至主人張醜子家送納 捉二人後到 罰酒(壹)角 全不來者 罰酒半瓮 其帖速遞相分付 不得停滯 如滯帖者 准條科罰 帖周却赴

제외한 대부분의 사원은 단월들의 보시에 의존했음이 분명하다. 결사가 중심이 되어 거행하던 강경·송경·독경 등의 법회는 매년 2회가 일반적이었다. 역시 돈황문서 제3730호의 지배(紙背)에 의하면, 그들은 춘추 2회의 법회를 거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²²⁸⁾

신라 불교가 대중화되어가는 과정에서도 역시 당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신라에서도 읍의나 사읍과 같은 성격을 가진 불교 신앙 단체가 조직되어 그들의 신앙사업으로 조상, 강·송·독·사경, 재회 등이 행하여졌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대중속에 불교 신앙심을 뿌리내리고자 하였다. 그런데 신라 신앙 결사는 통일기를 전후하여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 통일 이전의 성격은 무축적(巫祝的)이었으나, 이후에는 국가와 왕실을 중심으로 기복연명(祈福延命)에 비중을 두었다. 특히 경덕왕대 이후, 즉 800년대를 전후하여서는 아미타 신앙결사가 형성됨에 따라 그 성격과 양상은 더욱 달라졌다.

최초의 결사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 선도성모수회불사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²²⁹⁾ 안흥사에 거주하던 비구니 지혜의 이야기는 신앙결사가 결성되어 사원을 수리하고 춘추 2계

本司用憑造(告)罰 己卯年二月十日 錄事 帖

228) 某甲等 謹立社條 竊以燉煌勝竟…結爲壹會 先且欽崇禮典 後乃逐吉追凶 春秋二社 薦規建福 三齋本分 應有條疏 對截具件……逐年正月印, 沙佛一日 香花佛食 齋主供備 上件條□□□□意勒定 更各改易 謹具社人名目 用爲憑驗.

229) 『三國遺事』 권5, 仙桃聖母隨喜佛事, 眞平王朝 有比丘尼名智惠 多賢行 住安興寺 擬新修佛殿而力未也 夢一女仙風儀焯約 珠翠飾鬢 來慰曰 我是仙桃山神母也 喜汝欲修佛殿 願施金十斤以助之 宜取金於豫座下 粧點主尊三像 壁上繪五十三佛 六類聖衆及諸天神 五岳神君 每春秋二季之十日 叢會善男善女 廣爲一切含靈 設占察法會 以爲恒規.

에 점찰법회를 가졌던 내력을 전하고 있다. 초기 신라의 불교 신앙 결사가 그들의 사업으로 무엇을 택하였는지를 알 수 있으며, 무척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오랜 민족신앙이 깃들어 있음을 역력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신앙결사가 비교적 불교의 성격을 보이는 것은 통일 이후라 하겠다. 『삼국유사』 대산오만진신의 내용에서는 진여원에 화엄사를 결성하여 춘추 2계에 조(租) 100석과 부유(浮油) 1석을 공여하여 화엄경 전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시지·율지·좌위 등을 주어서 사장을 마련하도록 하였던 것은 통일 이후에 이루어진 신앙결사의 성격을 설명하는 좋은 예라 하겠다. 이외에도 원통사, 금강사, 수정사, 백련사, 법륜사 등이 결성되어 『국왕천추 인민안태 문호화평 백곡풍양』 등을 기원하였다.²³⁰⁾ 당시 신앙결사의 성립 과정과 유지 경비의 지출, 기원과 목적 등이 당과는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대왕이 친히 백관을 거느리고 오대산을 예방하였고 승불사업의 경비는 8주의 세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던 것이다.²³¹⁾

그런데 결사가 순수한 재가신자들의 자발적인 신앙단체로 성장되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교화승들의 노력이 필요했다. 불교가 많은 교화승들의 포교활동에 의하여 대중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 신자들에 의하여 결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승불사업으로 강경·송경·독경·조상수사 등이 점차로 행하여진 것은 800년 전후로 추측할 수 있다. 『삼국유사』 육면비념불서

230) 『三國遺事』 권3, 臺山五萬眞身.

231) 『三國遺事』 권3, 臺山五萬眞身.

승(郁面婢念佛西昇)의 내용이 그 근거라 하겠다.²³²⁾ 아미타 신앙으로 서방정도를 희원하였던 이들 선사 수십 인은 신앙심이 발로하여 자발적으로 염불결사(念佛結社)를 형성하였다. 더욱이 주목할 것은 아미타 신앙에서 ‘비(婢)’가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정토교(淨土敎)가 서민사회를 중심으로 포교되었던 과정을 설명해주는 증거라 하겠다. 『삼국유사』에서 정토교 관련 자료로서는 최초의 것으로 생각되는 광덕(廣德) 엄장(嚴莊)에서도 마찬가지로 비가 등장한다.²³³⁾ 정토교가 신라에 들어온 초기에는 미륵과 미타가 구별됨이 없이 서민들의 신앙 대상으로 등장했다가 경덕왕대 이후부터는 미륵보살이 현세적 기원에서 등장하고 미타여래는 사자(死者)의 추선회향(追善廻向)에서 나타나고 있다. 동량팔진의 설화를 통하여 미타신앙이 얼마나 대중화되고 대규모의 결사가 이루어져 갔는지를 알 수 있다.²³⁴⁾ 이러한 대규모의 결사가 실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심이 없지는 않으나 불교가 점차로 민중 속에 깊이 침투되어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재가 불교신자들은 신앙 결사를 결성하고 그들의 숭불사업으로 수사(修寺)·조상

232) 『三國遺事』권5, 郁面婢念佛西昇, 景德王代 康州今晉州 一作剛州 卽今順安 善士數十人志求西方 於州境創彌陀寺 約萬日爲契 時有阿干貴珍家一婢名郁面 隨其主歸寺 立中庭隨僧念佛….

233) 同上 권5, 廣德嚴莊.

234) 『三國遺事』권5, 廣德嚴莊, 棟梁八珍者 觀音應現也 結徒有一千 分明爲二 一勞力 一精神; 郁面婢念佛西昇에서는 ‘按鄉中古傳 郁面乃景德王代事也 據徵徵字疑作珍下亦同 本傳則元和三年戊子 哀莊王時也’라고 하였다. 이 설화에 등장하는 옥면 이야기는 원화 3년(803), 즉 애장왕 때의 일이라는 진본전을 부기하였다.

(造像)을 비롯하여 강경·송경·독경·사경·재회 등을 행하였다. 그러나 통일 전후의 신라 결사는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 통일 이전에는 무축적인 데 반하여 이후에는 국가와 왕실의 기복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800년대에는 아미타 신앙 결사가 형성되면서 불교의 대중화가 한층 활발해졌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년 2회의 강경·송경·독경·사경 등의 법회를 거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개 사원들의 보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신라 초기 숭불사업에서는 강경·송경 등의 법회는 2회였으나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다가 민간의 자발적인 신앙결사가 이루어진 후에야 사원(社員)들이 지원하였다. 『삼국유사』에 나타나 있는 신라의 불교신앙결사는 그 대부분이 화엄결사로 되어있는 것이 특색이다.

화엄경이 남북조 시대에 이미 번역되었으나, 그 정신이 뻗어나가지 못하였던 것은 사회적인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회적 조건이 수당대에 들어서 마련되었고 점차로 유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신라에도 해당된다. 신라의 화엄결사는 북조 호족(胡族) 국가와 당초(唐初)의 그것처럼 강력한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되어갔다. 그러므로 국왕의 장구를 기원하거나 국가의 융성을 바라는 뜻에서 조사(造寺)·조상(造像)·독경(讀經)·사경(寫經)을 수행해갔다. 이러한 것이 80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실천적 불교사상이 유포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신앙결사가 형성되고 개인적 추선공양(追善供養)의 숭불사업도 이루어져 불교의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6. 신라원과 그 역할

1) 청주 용흥사의 신라원

개성 4년(839) 6월 초 엔닌은 적산촌의 신라 승원인 법화원에 유석하여 겨울을 지냈다. 이후 봄기운이 한창이던 2월 19일 다시 오대산 순례 길을 떠났다. 법화원 강경법주 성림화상(聖林和尚)의 권유에 따른 것이다. 법화원을 떠나는 엔닌을 원주승 법청(法淸)은 구당신라사 장압아의 집까지 배웅해 주었다. 문등(文登)과 등주부(登州府, 봉래)를 거쳐 한 달 뒤인 3월 21일에 청주부(靑州府)²³⁵에 도착한 후 용흥사(龍興寺)에 머물렀고 3일 뒤인 24일에는 경내의 '신라원'에 머물게 된다. 등주로부터 5백 40여리나 되는 여정이다. 이후 엔닌은 4월 3일 청주를 떠날 때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청주절도부에 공함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엔닌이 유석한 신라원은 독립된 사찰은 아니지만 적산의 신라법화원과 같은 성격의 사원이다. 당시 당토에는 신라인이 많

235) 지금의 산둥성 청주시. 당 무덕(武德) 2년(619)에 총관부를 두고 8주를 관할하게 하다가 동 7년(624)에 도독부로 바꾸었다. 절도사가 설치된 해는 지덕(至德) 원년(756)이다. 부(府)라고 한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듯하다. 안사의 난(755~763)이 일어나자 상원 2년(761) 평로절도사 후희일(侯希逸, 어머니가 고구려인)은 청주로 와서 평로치청절도사가 되었다. 그 뒤 영태(永泰) 원년(765)부터는 고구려유민 이정기(李正己)가 절도사로 옹립되고 압신라발해양변사(押新羅渤海兩蕃使)까지 겸임 임명되었다. 그 뒤 그의 아들 납(納)·손자 사고(師古)·사도(師道)로 절도사직을 원화 14년(元和, 819)까지 이어갔다. 주로 하남도(河南道, 산둥성 중심)의 치·청 지역을 중심으로 15개주(나중에 12개주)를 영유하고 숙종·대종·덕종·순종·헌종의 5조에 걸쳐 당 중앙정부에 대항하며 소왕국적 태도를 취했다.(출고 『당변진의 한 연구-이정기 일가를 중심으로』, 『성곡논총』6, 성곡학술논단, 1975)

이 사는 지역이나 많이 왕래하는 곳에는 신라방·신라촌·신라관·신라원 등이 있었다. 그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신라인을 위한 거주지거나 여행자를 위한 시설이었다. 청주 용흥사 내에 있는 이 신라원은 당나라의 불교 성적을 순례하는 스님이나 구법승 여행자를 위한 법당이였다. 대개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단독 건물이기는 하지만 큰 사찰의 경내에 마련되어 있었다.

당대의 사원은 숙박으로서도 많이 이용되었다. 엔닌의 일기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원래 사원은 사유물이 아니며 사유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곧 지방상주물(十方常住物)이며 지방승가(十方僧伽)의 공유물이기 때문에 항상 개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속 할 것 없이 누구나 유숙할 수 있었다. 당대 교통사상(交通史上) 크나큰 족적을 남긴 오대산의 ‘보통원(普通院)’²³⁶⁾이 곧 이러한 예라 하겠다. 이 원은 오대산의 순례자를 위한 시설로 승·속 관계없이 무료로 휴게·유숙할 수 있었다.²³⁷⁾

그러나 깊은 산중에 있는 보통원은 경영상의 문제로 원주가

236) 보통원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통공양에서 온 말이다. 순례자를 위하여 참배길에 설치하여 승속이 함께 쉬며 숙식할 수 있게 한 시설이다. 대개 20~30리 노정에다 설치하고 원주(院主)가 있어 이를 관리하였다. 큰 곳은 일시에 100여 명이나 숙식할 수 있었다. 이의 유지는 순례자의 보시나 여러 사람들의 회사로 이루어졌다. 『행기』에 나오는 송공인(送給人)·공양주(供養主)·공양사(供養使) 등은 보시를 권유하려 다녔던 스님들이었으며 중앙관아에서 보내는 보시를 지방으로 수송하는 사람도 있었다. 『행기』에 나오는 오대산 순례길에 있는 보통원의 수는 21개소나 된다.

237) 『행기』권2, 개성 5년(840) 4월 23일, …上房普通院長有飯粥 不論僧俗來集便僧宿, 有飯卽與無飯不與 不妨僧俗赴宿 故曰普通院….

없거나 음식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 때문에 순례자가 불평불만을 토론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곳 신라원은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했던 것 같다. 『행기』에 보면 입하(立夏)의 날에 신라원에서 제를 마련하고 모든 승려를 초청하여 그곳에서 점심 공양을 하였다. 모인 스님이 5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한 것에서 짐작할 만하다.²³⁸⁾

청주는 오래된 도시이지만 수·당 시대에는 중국 동쪽의 행정과 군사적 중심지였고 교통의 요충이었다. 고구려·백제·신라·발해·일본 등 여러 나라가 서울 장안으로 가는 길목이었기에 일찍이 도독부(都督府)를 두었고 뒤에 가서는 절도사를 설치하기도 했다. 엔닌이 청주를 방문했을 당시는 ‘평로치청절도사(平盧淄靑節度使)’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절도사의 전신은 고구려 유민 이정기(李正己) 일가가 반세기 동안이나 사직(使職)을 독점하고 있었던 번진이다.

‘안사의 난(安史의 亂, 755~763)’이 일어나자 고구려 유민 이정기 일가는 우여곡절 끝에 평로치청의 절도사가 된다. 그 뒤 이곳 청주·운주를 치소(治所)로 삼고 오늘날의 산둥반도 전역과 인근의 안휘, 강소 등 일부를 점유하고 거의 60년 간(762~819)이나 다스렸다. 그러면서 당 중앙정부와는 때로는 협력하기도 했지만 거의 전 시기를 반독립적으로 반당적 태도를 취하면서 번수직을 아들 손자에게로 계승해 갔다. 그러기에 그들의 발자취는 아직도 산동의 곳곳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238) 『행기』권2, 3월 28일, 廿八日立夏… 於當寺夏供 院有齊普請赴彼斷中 衆僧五十來.

사서에는 이들 번수(절도사)들은 하나같이 불교를 숭상하여 많은 승불사업 특히 큰 사찰을 세우거나 조상사업을 수행하여 관내의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까지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이룩하였다는 그 많은 승불사업의 흔적만은 지금까지 찾아볼 수가 없다.

원래 청주는 일찍부터 불교가 융성하였던 곳이다. 용흥사를 비롯하여 중국 4대 석굴의 하나인 인근의 타산(駝山)과 운문산(雲門山)의 석굴조상들은 오늘날 중국의 크나큰 자랑거리이다. 그러나 6백 38존이나 되는 타산석굴의 조상군에서도 인근 운문산의 2백 72여 존이나 되는 수·당시대의 존상들에서도 이정기 일가가 남긴 승불사업의 흔적은 남아 있지도 않고 찾을 방법도 없다.

1996년 10월 청주박물관 인근의 학교건설 공사장에서 박물관 연구원들은 용흥사 굴장(길이8.7m, 너비 6.8m, 깊이 3.45m)에서 ‘용흥사 조상군’ 4백여 점을 발굴하였다. 이때까지(1998) 공개되지 않았던 유물 격납고에는 돌옥, 도(陶), 철, 채화니소(彩繪泥塑), 나무 등으로 된 크고 작은 입·좌불(立·座佛) 보살·나한상 등이 가득 차 있었다. 이 유물 등은 수년간 충분히 연구·고증되어 지금은 전시되고 있으며 기년이 있는 조상들을 바탕으로 대개 북위 영안 2년(永安, 529년 2월 4일)에서 동위·북제·수·당·북송에 이르는 근 5백 년간의 존상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굴장에 묻힌 파괴된 불상들은 북송 휘종(徽宗, 1101~1125)에 의한 폐불의 결과인 듯하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에는 북제 무평 4년(武平, 573)에 선각 부조된 화상석 수점

이 보관되어 있다. 여기에는 사마르칸트의 소구트(soght) 상인이라 생각되는 인물상·낙타·수레 등이 보인다. 북제시대 이미 소구트 상인들의 왕래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라 흥미롭다.

『대청일통지(大清一統志)』(권135)에는 용흥사는 청주부 북문 밖 남양교(南陽橋) 북쪽에 있었다고 하면서 북제(573) 때의 남양사에다 그 시원을 삼고 있다. 그런데 『익도현도지(益都縣圖志)』에는 용흥사의 위치도 청주부의 서북쪽에 있었다고 하며 경내에 있었던 유송(劉宋, 420~478) 때의 석비각문을 인용하여 원가(元嘉) 2년(425)에 이미 불당이 있었다고 전한다. 그 뒤 용흥사는 수(隋) 개황 원년(581)에 장락사(長樂寺)로 되었다가 다시 도장사(道莊寺)가 되었다. 당 측천무후 천수 2년(691)에는 대운사(大雲寺)로 이름을 바꿨다가 현종 개원 18년(730)에 와서야 지금의 용흥사로 된 것이라 하고 있다.

『일통지』의 기록과 『익도현지』의 그것과는 사찰 위치가 다소 다르지만 엔닌의 『순례행기』의 기록을 보며 용흥사는 성내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지금 청주박물관에는 청주자사 임희왕(臨淮王) 누정원(婁定遠)의 조상비가 보존되어 있다. 무평 4년(573) 누정원이 무량수불과 관음·세지의 협시보살을 조상한 내력을 기술한 팔분서(八分書)로 중국 서도사상 유명하다. 이 비문에서도 용흥사가 성내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되는 구절이 엿보인다. 용흥사는 문헌기록이나 근자에 출토된 유물 등을 중심으로 연구·고증한 결과 사찰의 창건은 북위 때였으며 청주부의 남양성 내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한다.

광대한 규모의 이 사원 내에 남북 3열로 된 3동의 ‘원(院)’과

남북 2백 미터 동서 1백50미터로 추정되는 대건축물에다 ‘대전(大殿)’ 승방 등 건축면적이 총 9천 평방미터²³⁹⁾나 된다고 하니 그 크기를 짐작할 만하다. 이 원 가운데 엔닌이 유숙했던 ‘신라원’이 있었을 법한데도 그것 또한 알 길이 없다. 많은 출토유물이 정리되고 유지가 정밀 조사되면 ‘신라원’의 정확한 터와 우리나라 유물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여하튼 용흥사는 인근의 타산·운문산의 석굴조상군과 새로 발견된 청주거상(四座山)과 더불어 산동불교의 중심지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정기 일가는 한때 불교 융성기를 이끌어 갔던 독실한 신자들이었다.

이와 같이 청주 용흥사에 있었던 신라원은 이곳뿐만 아니라 장안(長安) 서가(西街)의 승화방(崇化坊)의 용흥사에도 있었다. 일본 천태종 5세 좌주 엔진(圓珍)이 855년 7월 장안을 방문하여 용흥사 신라원(淨土院)에 유석하였다. 그해 11월 장안을 떠날 때까지 신라원의 신라승 운거(雲居)화상 아래에서 많은 구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 장산현(長山縣) 예천사(醴泉寺)

840년 4월 6일 엔닌은 오대산 성적을 찾아가던 길에 청주부 장산현 예천사 경내의 ‘신라원’에 유주한다. 예천사는 우리나라의 ‘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신앙의 시원을 시사해주는 사원일

239) 1996 11월 24일 『중국문물보』

지도 몰라서 엔닌의 기록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엔닌은 예천사에서 ‘지공화상(誌公和上)’의 존영을 예배하고 있다. 일기에는 ‘지공화상은 곧 십일면보살의 화신이며 그의 본연은 비에 새겨 있다’고 적고 있다.²⁴⁰⁾ 지공화상은 보지(寶誌, 417~514) 스님을 말한다. 육조 때의 기행승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전기 가운데 육수(陸雉, 470~526)의 『지법사묘지명(誌法師墓誌銘)』과 혜교(慧皎, 497~554)의 『고승전』(권10) 등이 믿을 만하다. 지공화상의 속성은 송(宋)씨며 지금의 남경 출신이다. 도림사(道林寺)에서 출가하여 승검(僧儉)에 습선(習禪)하였다. 기행과 예언을 즐겨하면서 마을 곳곳을 순방하였다. 물론 거처도 없으며 식음도 때를 가리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먹었다. 머리는 산발한 채 항상 맨발이었고 석상에는 거울과 가위 그리고 명주 비단을 달고 다녔다고 하니 매우 무당적이기도 했다. 기행과 예언 또한 사녀(士女)와의 관계도 복잡하였지만 40여 년 동안이나 민중 교화에 힘썼고 양 무제(520~549)와의 교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면 걸승임에는 틀림이 없었던 것 같다. 천감(天監) 13년(514) 97세를 일기로 남경 근교에서 입적하였다.

당나라 초에 편찬된 『남사(권76)』의 도홍경(陶弘景, 456~526) 전기에 보면 앞에 소개한 그의 전기 내용보다 한층 더 주술과 영이(靈異)를 행한 기행승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 당나라 초에는 더욱 그의 신비화가 이루어진 것 같다. 엔닌의 『행

240) 『행기』권2, 개성 5년(840) 4월 6일, …到 醴泉寺斷中 齊後巡禮寺院 禮拜誌公和上影…誌公和上 是十一面菩薩之化身 基本緣鑄著碑上…典座僧 引向新羅院安置.

기』에 구술되어 있는 ‘십일면관음화신설(十一面觀音化身說)’도 이때에 첨가되어 개원초가 되면서 민간에 크게 유포된 것 같다. 그러나 『수서』 율력지(律曆志)에는 양대 지공도인이 주(周)의 시척(市尺)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구당서』 예문지에는 지공의 『문자석훈(文字釋訓)』 30권이 있었다고 나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지공의 문화적 업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칭명사(稱名寺) 소장 『보지화상전(寶誌和尚傳)』의 내용을 보아 일본에 전해진 십일면관음신앙은 우리나라로부터 전해진 것이라 믿어진다. 글 가운데 신라사미 원효(元孝)가 당나라 칙사와 동행하기를 거절하면서 장안에 있는 지(誌) 화상에게 편지를 썼다. 칙사는 장안의 거지무리에서 지화상을 찾았더니 그는 이미 십일면·불공견삭(不空羅索)·천수(千手) 등 세관음보살로 화신하고 있었다는 설화 내용이다. 신라 때에 이 신앙은 이미 널리 유포되고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이 신앙을 받아들인 시기는 육조(六朝) 때로 추측할 수 있는 자료도 발견된다. 앞의 도흥경 열전에는 고구려가 지화상의 갖가지 예언과 영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어 면모(綿帽)로 공양하였다고 전한다.²⁴¹⁾ 이로 미루어 보면 우리나라도 일찍부터 지화상의 십일면관음화신 신앙을 받아들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문화가 이 지역을 경유하여 산둥반도를 거쳐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전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고 예천사의 신라원도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생각할 수 있겠다.

241) 『南史』권76, 도흥경전, 高麗聞之遣使齎綿帽供養

7. 맺는말

- 세계사 속의 신라 무역상

『행기』는 당을 여행했던 일본승의 기록이면서도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은 당나라 사람이거나 일본 사람이 아닌 신라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동아시아 세계를 보는 한에 있어서는 신라인들은 세계무역사에 있어서의 새로운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동서 해상무역의 초기 단계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상인들이 지중해·아라비아 해안에서 수행하던 것과 같은 역할을 동쪽 세계에서 수행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엔닌의 『행기』를 통하여 신라의 역사에서 망각되고 있었던 신라인의 해상활동의 제상과 거기에 등장하는 몇 군상들의 생생한 생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일본의 청익승 엔닌(794~864)은 두 번이나 도해에 실패한 제17차 견당사선에 편승하여 승화(承和) 5년(838) 6월 13일에 야 대재부를 출발하였다. 그해 7월 2일에 당 양주 해릉현(海陵縣) 백조진(白潮鎮) 상전향(桑田鄉) 동량풍촌[東梁豊村, 강소성 여동현(如東縣) 스리가(勝利街) 인근]에 도착하였으니 근 20일이 소요된 셈이다. 그것도 836年 7月 첫 번째 입당을 시도한 지 꼭 2년 만의 일이었다.

엔닌은 당 양주 개원사에 유석하는 동안 신라인무역상인 왕청(王靖)의 방문을 받는다. 왕청은 819년 당나라 무역상 장각제(張覺濟) 등과 일본을 왕래한 국제무역 상인이다. 또 엔닌은 회창 6년(846)에도 일본정부가 파견한 ‘엔닌 수색대’의 한 사람인 그의 제자승 성해(性海)의 서신도 역시 양주의 신라무역상 왕종(王宗)을 통하여 받아보았다. 이러한 사실은 양주를 거점

으로 한 신라인 무역상의 거류지가 있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북송의 원풍 7년(1084)에 고려관이 설치되었던 사실도 함께 고려한다면 더욱 그 가능성은 높다.

엔닌은 양주에서 천태산 순례를 목적으로 당 정부에 신청했던 통행증인 공험이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운하를 따라 초주(회안)로 출발하였다. 그곳에는 귀국을 함께 할 건당사 일행이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엔닌 일행의 체류를 주선해 오던 신라인 역어 김정남(金正南)도 역시 초주에 머물면서 파선된 2척의 일본선 대신 9척의 신라선을 구입하고 바다 길에 익숙한 신라선원 60여 명도 고용하여 그들의 귀국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운하의 심장부인 초주에 다수의 신라인이, 그것도 신라향해 선원과 신라해상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초주는 회하 하류에 위치하여 대운하와 회수를 연결하는 조운의 요충임은 물론 경제적·전략적 요지이기도 했다. 많은 하천이 직접·간접으로 만나는 초주는 상품의 집산지이며 운송의 중심지로서 크게 발달하였다. 그의 수운은 남으로는 양주를 지나 장강(長江)에 달하고 소주(蘇州)·항주·명주 등의 무역항으로 이어진다. 북으로는 해주를 지나 산둥반도와 직결되고 서쪽으로는 과하·변하를 올라가 중원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초주는 강회지역의 무역 요지이고 물류 중심지였으므로 해상 무역의 정보가 집중되었던 곳이었다. 따라서 이곳에 거주한 신라인의 생업도 도시의 성격과 부합하였을 것이며, 김정남이 신라선과 해로를 잘 아는 신라선원을 고용할 수 있었다.

초주 신라인 취락은 운하변을 따라 집중되어 있었고 ‘신라방’

이라 하였다. 총관이 행정을 관장하였으며, 역어와 전지관 등의 관리가 있었다. 신라인들은 인보제도(隣保制度)에 바탕을 둔 단두(團頭) 아래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였다. 초주 역어 유신언을 비롯한 신라방 사람들은 일본인의 귀국 선박 알선은 물론 엔닌의 유당·순례·귀국과 유학승·상인들의 자국 왕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도맡아 수행하였다. 당 곳곳에 산재하던 신라인들과의 연락, 서신의 상호교환, 체류경비의 전달, 귀중품의 보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가지가지의 일들을 도왔다. 『행기』에는 연수현에도 신라방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전해 주고 있다. 초주에서 35Km떨어진 연수현은 옛 회하 하류의 북안에 위치하고 동북으로 140여 리, 운하를 통하여 바다에 이른다. 수운과 해운의 요충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회창 5년(845) 7월 9일 엔닌은 법난(法難)을 피하여 귀국하던 길에 이곳에서 일찍이 장보고의 휘하에서 청해진 병마사였던 최훈제십이랑(崔暲第十二郎)을 만나 큰 도움을 받게 된다. 신라방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그곳 전지관(專知官)의 반대로 인근의 대선사(大善寺)에 유숙한다. 장보고 사후 청해진 세력의 무력함과 조직망의 붕괴를 엿볼 수 있다. 신라방 관리로 촌관과 전지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초주 신라방의 크기와 비슷했으리라 짐작된다. 신라인 관리들의 이름은 알 길이 없다. 앞서 김정남이 초주에서 고용했던 신라선원 60여 명 가운데의 몇 사람은 아마도 연수현에서 온 선원이었음이 분명하다. 운하 연변에 거주하던 다른 신라인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운수업·무역·조선업·상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9세기부터 고조되어 가던 세계무역의 조류 속에서 페르시아와 아랍상인들은 중국 진출이 활발하였다. 광주와 천주를 거쳐서 양주까지 그들의 시장을 점차로 넓혀나갔으며, 그곳에 독자적인 번방(蕃房)을 이루었다. 무역거점인 ‘번방’을 확대해가던 이들은 ‘신라방’ 상인들과도 자연스럽게 상거래를 하였다. 신라 해상 활동 역시 8~9세기가 그 전성기였으며, 중국무역의 중심지의 하나인 양주에는 항해술에 능숙했던 신라인들이 모여들었다. 장보고 전성기(828~841)에는 신라·당·일본의 삼국무역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양주·항주·명주 등을 중심으로 서방세계와의 교역도 활발히 전개했다.

이로써 동서를 대표하는 상인들이 양주에서 교역하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삼국사기』 잡지에 보이는 수많은 외래 사치상품들은 이국 상인을 통한 교역에서 얻어진 물품임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서방상인들이 이때까지 양주로부터 북쪽으로 또는 동쪽으로 시장을 넓혀간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신라 무역상인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중국의 동쪽 연해안과 신라, 일본 등을 그들의 시장으로 삼아서 활발한 교역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신라사람들은 운하변에만 모여 살지는 않았다. 일본 조공사 선박이 해주(海州) 동해현 숙성촌(宿城村) 연안에 이르렀을 때 엔닌 등 4명은 구법의 일념으로 미지의 해안에 상륙했다. 숙성촌은 바다에 임한 마을로 이곳 신라인들은 주로 소금 생산에 종사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곳에서 생산된 소금도 초주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목탄 생산에도 관계하는 자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촌락 주변이 산림지대였고 또한 이곳 주민들도 목탄업자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던 까닭이다.

밀주연안에는 대주산 교마포(駁馬浦)와 청도의 동남쪽 지금의 노산만 부근의 팔수하(八水河) 인근으로 추정되는 승가장에도 신라인 촌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인 촌락은 청도에서 산동반도 남쪽 연해안 일대에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었다. 엔닌 일행은 이 지역의 연안을 지나면서 많은 신라인들의 거룻배를 목도하고 이들로부터 그들 일행의 소식과 신라에서 일어났던 정변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재당신라인들의 연해안 운송망과 연락체계는 본국과의 정보교환 실상에 대하여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엔닌이 탄 제2선박은 5월 4일 유산박(乳山泊)에서 출발하여 6월 7일에야 문등현(文登縣) 청령향(靑寧鄉) 적산촌(赤山村, 榮成市 石島鎭) 포구에 도착하였으니 무려 1개월 이상이 소요된 셈이다. 적산촌의 가장 큰 기능가운데의 하나는 당 내륙이나 연해안으로 이르는 교통과 나·당·일 3국을 잇는 항로의 중심이었다. 중원과 일본으로 나아가는 시발지였고, 장보고의 ‘대당매물사(大唐賣物使)’ 선박이 오고 가던 장보고 통제 하의 국제무역항이었다고 하겠다.

이곳에는 820년대 초반에 장보고가 세운 적산법화원이 있었다. 엔닌은 다음해 2월 19일까지 8개월 넘게 체류하면서 유당문제(留唐問題)와 순례준비를 하였다. 엔닌은 법화원에 유석하는 동안 신라 종교사상 매우 귀중한 자료를 기록해 놓았다.

즉, ‘신라강경대식(新羅講經儀式)’을 비롯하여 ‘신라일일강 의식(新羅一日講儀式)’, ‘신라송경 의식(新羅誦經儀式)’의 행법내용이 그것이다. 신라 강경법회는 신라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소중한 자료이다. 행법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산법화원의 이 3의식의 행법 내용은 당의 그것을 짐작하게 하는 유일한 자료가 된다.

개성 5년(840) 2월 19일 엔닌 일행은 8개월을 넘게 신라승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오던 적산법화원을 출발하여 오대산 순례 길에 올랐다. 엔닌은 『행기』에서 “지난 개성 5년(840) 이포구에서 오대산으로 들어갈 때 이 대사(장영)는 힘을 다하여 오로지 주·현의 공문과 공험에 관한 일을 담당하여 우리를 떠나게 하였다.”고 했다.

장보고와 그 선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에 무역거점을 설치하였다. 북큐슈 하카다 인근에 자리하던 신라인 사회가 무역활동의 거점이 되었다. 청해진을 설치하고 바다를 호령하며 국제무역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재당신라인 사회와 일본 하카다 주변에 자리잡은 신라인 마을이 바탕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장보고가 해상무역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재당신라인을 중심으로 한 해외세력과 청해진에 거점을 둔 국내세력의 협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장보고 세력의 바탕은 청해진 사람들과 신라방·신라촌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우수한 선박과 선원 그리고 항해술·조선술이었다. 해적이 준동하던 거친 해상에서 그들이 해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기반은 군사력이었다.

청해진을 설치할 당시 국왕은 ‘병졸 1만 인’을 그에게 주었다. 실제의 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사’가 동원할 수 있는 대체적인 군사력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장보고의 세력 하에 있었던 일정지역의 주민에 대해 정치적으로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그의 휘하에는 군졸 이외에 다른 세력도 있었다. 838년 무주를 공격한 5,000 병력과 남원 싸움에서 승리한 군사는 장보고의 사병들이다. 부하인 6호장과 이들에 의하여 군진이 편성되어 ‘군용이 매우 융성하였다’고 한다. 장보고 상단은 군산 복합의 종합무역상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청해진 군사들은 해운교통의 오랜 경험과 기술을 가진 토착주민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해상교통로와 청해진을 지키는 정예병력 이외에 이들은 나·당·일 삼국간의 무역과 연해안의 교역 등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일종의 민병조직으로 결합되어 있었던 사병적 특수 집단이라고 생각된다.

청해진 사람들이 동아시아 항로의 주역으로 역할하였던 것은 바다를 통과하는 길목에서 물씨·해류·바람을 잘 이용할 수 있었고 나아가 탁월한 조선술과 장보고 선단의 뛰어난 조직력을 갖추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장보고 선단의 업적이라면 페르시아·아랍 상인들이 활동하였던 동남아시아·인도 항로를 9세기 이후 동아시아 항로와 연결시킴으로써 서와 동 무역망을 하나로 통합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청해진은 단순히 동아시아 항로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인도 항로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되었던 곳이다.

9세기 신라 무역상들은 이 항로를 이용하여 무슬림 상인과도 활발한 무역을 전개하였다. 또한 신라무역상들은 공무역 중심의 동아시아 무역이 사무역으로 이행하는 데에 큰 공헌을 하였다. 즉 일본 내 관헌과 귀족들이 선호하던 ‘당국화물(唐國貨物)’의 교역을 장보고선단이 주도하게 되면서, 일본정부는 증가된 수요를 반영하여 민간거래를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무역의 활성화는 일본 사회구조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후 견당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게 된 이유 가운데의 하나이기도 하다. 장보고와 그 선단은 동아시아의 해운질서를 재편하고 국제무역을 독점하여 거대한 재부를 창출하였다. 특히 무슬림과의 교역을 수행한 점은 동아시아 경제 활성화에 특기할만한 사건이었다. 장보고의 상업제국은 이렇게 이루어졌다.